

#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The Study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김범식 김묵한

2014-PR-06

##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The Study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 연구진

연구책임	김범식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황민영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21세기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
- 서울시도 이전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 증대
-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실태 및 특성 분석도 부재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만 논의
- 이 연구의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실태 파악과 업종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후 향후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

### 1.2 연구 범위

- 시간적·공간적 범위 : 2008년부터 2013년 중 서울과 16개 시·도
- 내용적 범위 :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인식도 조사, 16개 시·도의 괜찮은 일자리 추이와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산업 및 직업적 특성 파악, 그리고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 추이 등을 분석

## 주요 연구결과

### 2.1 관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측정기준 설정

- 관찮은 일자리는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 동시에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만족 등이 일정 수준을 웃도는 일자리
- 관찮은 일자리 조건은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차원에서 설정
- 즉, 중위임금 이상이고 상용직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49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이 평균 이상인 일자리

표 1 관찮은 일자리 측정변수와 조건

구분	측정기준	측정기준별 특징
보수 측면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	2013년 전국 임금 근로자 중 중위임금 이상 비중이 53.4%
적정 근로시간 측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	2013년 전국 임금 근로자 중 적정 근로시간 비중이 71.2%
고용안정성 측면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2013년 전국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63.8%
직업의 사회적 평판 측면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의 표준화 값이 0 이상	2013년 전국 임금 근로자 중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 평균 이상이 49.2%

- 관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로 구분
- 일원적 개념의 관찮은 일자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기본적인 보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일자리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로 정의해 보조적으로 파악
- 다원적 개념의 관찮은 일자리는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 다원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 조건에 대한 시민 인식도

-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전문가는 고용안정성을, 일반시민은 임금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차별화
-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로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45.6%)를 가장 많이 선택
- 이에 비해 일반시민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로 적절한 임금수준(51.4%)을 가장 많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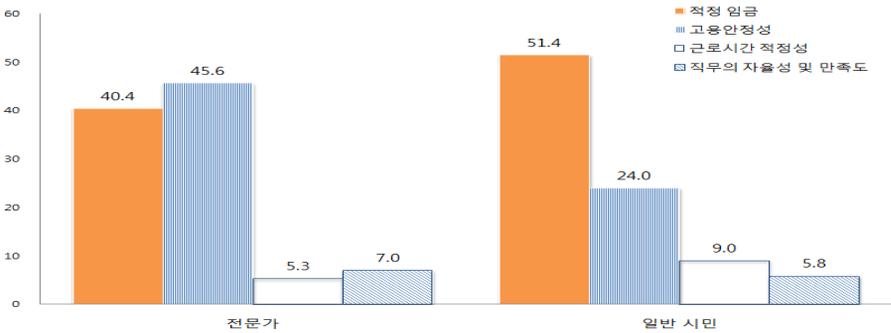


그림 1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 조건

- 전문가 대상으로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주요 5가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층화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수행결과, 각 항목의 중요도는 고용안정성 0.345, 임금 0.298, 적정 근로시간 0.144, 사회보험 유무 0.140, 직업의 사회적 평판 0.072
- 향후 서울시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수요를 보면, 전문가들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일반시민도 유사
- 전문가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1순위 사업 :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35.1%),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 강화(15.8%),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14.0%), 첨단 융복합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12.3%) 등의 순

### 서울의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실태

- 서울의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2008년 2,320,585명에서 2013년 2,761,551명으로 연평균 3.5% 증가
- 2013년 전국의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28.8%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은 경기(21.9%), 경남(6.5%), 부산(5.2%) 등의 순으로 분포
- 2013년 서울의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1,067,228명이며, 전국 내 비중도 22.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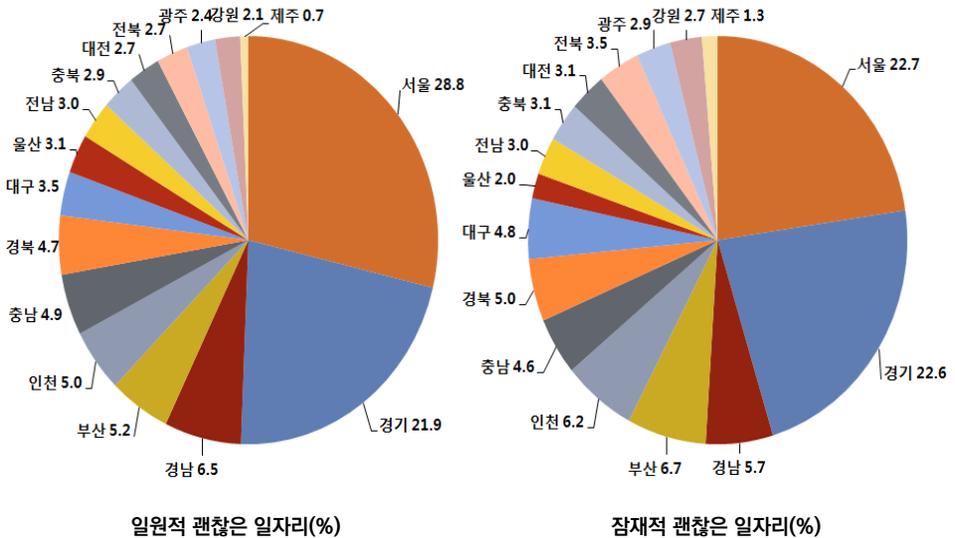


그림 2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 서울에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이며, 2008년 이후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의 비중이 크게 확대
- 2013년 서울에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8.2%), 도매 및 상품중개업(8.0%), 교육 서비스업(7.3%), 출판업(6.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5%) 등

-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주로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분포해있으나, 2008년 이후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및 일자리 수 증가가 큰 편

#### 2.4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실태

- o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008년 1,245,098명에서 2013년 1,613,698명으로 연평균 5.3% 증가
- 2013년 전국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서울(35.1%), 경기(20.6%), 경남(5.3%), 부산(4.8%), 인천(4.5%) 등의 순으로 분포
-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을 감안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서울 집중도가 임금 기준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보다 높음
- 2013년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은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28.8%)을 6.3%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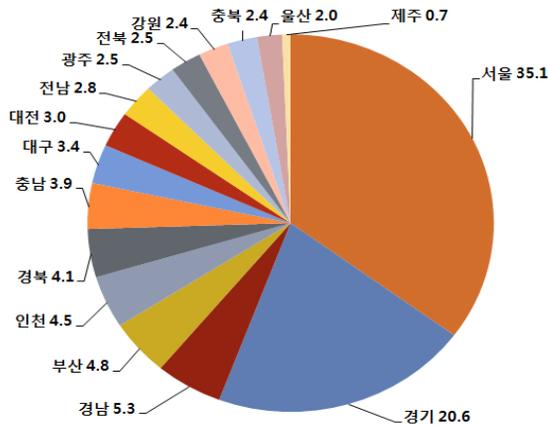


그림 3 2013년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 o 2013년 각 시·도 내에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이 35.1%로 가장 큰 편

- 2013년 각 시·도 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35.1%), 대전(26.7%), 광주(24.7%), 경기(24.0%), 강원(23.8%) 등의 순
- o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사회·경제적 위세,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세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0.1%로 전국 평균(53.4%) 수준을 6.7%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5.2%로 전국 평균(63.8%)을 1.4%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71.3%로 전국 평균(71.2%) 수준을 0.1%p 상회
- 2013년 사회·경제적 위세를 충족하는 서울시 일자리는 62.5%로 전국 평균(49.2%) 수준을 13.3%p 상회



그림 4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인별 시·도 내 비중과 전국 평균 간 편차

- o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주로 30~40대, 남성, 대졸 이상 근로자가 차지

- 2013년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0대 40.1%, 40대 27.3%, 20대 이하 17.5%, 50대 13.2%, 60대 이상 1.9% 등의 순으로 구성
-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63.9%를 차지하고, 여성은 36.1%를 점유하며, 학력별로는 90% 이상이 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
- o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전문서비스업에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일자리 수의 증가세도 높은 편
- 2013년에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가 많은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9.0%), 교육 서비스업(8.7%), 출판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8%) 등
- 2008~2013년 중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전문서비스업 15.9%, 출판업 13.7%,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 협회 및 단체 8.3%, 도매 및 상품중개업 7.4% 등
- o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를 중분류 직업별로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35.1%가 분포
-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5.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8.5%), 경영·금융 전문가 관련직(8.0%),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6.9%) 등의 순

## 2.5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 추이

- o 일자리 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이후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70.1으로 전국 평균을 1.5p 상회
-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67.0에서 2009년 70.9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소폭 하락
- 일자리 질 지수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사회보험 유무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한 합성지수

- 2008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다소 차별화
- 2011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후 정체
- 최근 들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지수가 동행하지 않는 것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일자리 질의 강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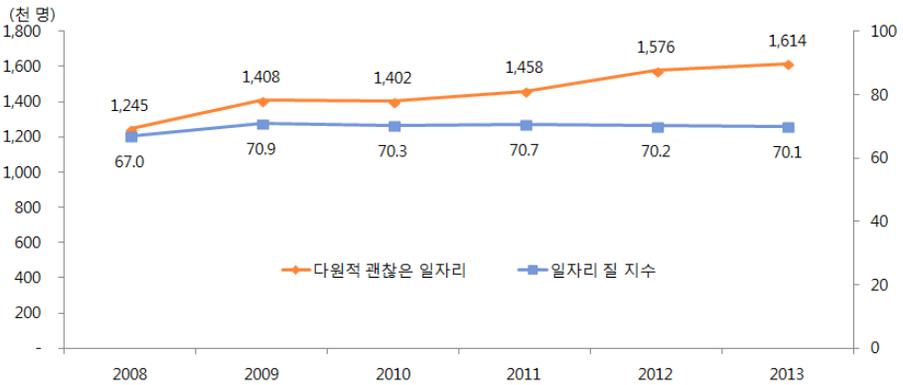


그림 5 2008~2013년 중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지수 추이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하면,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음
- 2013년 서울시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요소별 평균 점수는 고용안정성 22.5, 임금 19.7, 근로시간 10.3, 사회적 평판 3.5 등의 순
- 2008~2013년 중 구성요소별 점수의 연평균 증가율 : 임금 2.8%, 고용안정성 -0.4%, 근로시간 1.7%, 사회적 평판 0.5%
- 2008년 이후 구성요소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고용안정성, 사회적 평판, 임금,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서울과 전국 평균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

## 정책 건의

### 3.1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 수립

- 향후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양적 확대를 모색할 필요
  -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 향상
  -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셋째,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괜찮은 일자리 정책대상의 선정과 정책 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마련



그림 6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안

### 3.2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

- 우선적으로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를 대상으로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의 일자리 질 향상을 모색

- 기존 일자리들의 양질화가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 창출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면적 측면의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가능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평판 등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35.1%에 불과할 정도로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 향상 요구
-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정책적 노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자리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편
-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중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해당 일자리의 다른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전략도 바람직



그림 7 2013년 기준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후보군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통계청

- 서울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보수측면의 일자리 질 제고
- 일반시민들은 괜찮은 일자리 조건으로 임금수준을 가장 중시하나, 현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비생산적이고 불확실한 일자리도 감수
-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필요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고용안정성 제고는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발점
-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보다 확대
-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산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 등 해고회피노력 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적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중소기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 강화
-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유도
-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화 투자, 단축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검토
- ‘두루누리 사업’의 서울시 협약을 통해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로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사업의 실효성 저하
- 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15.6%에 불과
-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 발굴 기회 확대
- 사업장 관련 각종 인·허가 시 시청 및 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통한 두루누리 사업을 안내하여 참여 기회 확대
-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우대 및 우선 배정,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 설치 등 안전 지원 인센티브 부여

###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관찮은 일자리 창출

- 관찮은 일자리 측면에서 서울의 유망산업을 탐색한 후 이를 육성해 관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유지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우선적으로 관찮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유망산업 및 성장산업을 서울시 산업전략과 연계해 적극 육성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및 권역별 육성 전략과의 연계 등 강화
  - 특히 제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전달체계 개선
  -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는 관찮은 일자리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저임금 속에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
  - 시장의 개입 없이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혁신형 사회적기업 (Social Venture) 육성을 통해 관찮은 일자리 창출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생태계 구축에 주력
  - 공공사회서비스는 전달체계 개선으로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운영방식 개선
  - 사전에 보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밀한 위탁설계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유지 등 사후 위탁 관리 강화
- 관찮은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서울시 산업 및 직업 변화 등을 고려한 인력양성 및 전업·전직 프로그램 강화
  - 미국 등 고용 서비스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인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깃팅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깃팅 서비스는 개인별 고용이력을 취합해 노동시장 이행과정별로 경력개발 단계를 분석해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관찮은 일자리의 대졸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졸 인력의 진입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공공부문이 적극 활용하거나 우수기업과의 연계 확대

### 3.4 정책대상 선정과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 o 서울에서 관찮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후보군은 기존의 관찮은 일자리가 아닌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 기존의 관찮은 일자리는 해당 산업 및 인력 육성을 통해 해결 가능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정책개입을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할 필요
- o 정책대상인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중 구체적인 산업과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세분화한 후 규모와 속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 관찮은 일자리 기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자리 성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특성에 따라 대상 일자리를 어떻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 정립
  - 또한 정책대상의 일자리 질 개선도 동시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o 정책대상별로 관찮은 일자리 기준을 설정해 추진할 경우 정책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가능
  -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정책대상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관찮은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정책목표 설정 용이
  - 정책대상별로 관찮은 일자리 기준은 구인 및 구직 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사업체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자극제 역할도 가능

# 차례

<b>I</b>	<b>연구의 개요</b>	<b>28</b>
1	연구의 배경 및 목차	28
1 1	연구의 배경	28
2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분포 및 특성	30
2 1	양질의 사업체 정의와 분석 대상	30
2 2	양질의 사업체는 16개 시·도 중 서울에 가장 많이 집중	30
2 3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 등에 입지	32
2 4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는 상위 3개 산업에 49% 분포	34
3	사업체 분석의 한계와 근로자 대상의 분석 필요성	37
3 1	사업체 분석의 한계	37
3 2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대상의 분석 필요성	38
<b>II</b>	<b>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b>	<b>40</b>
1	고용의 질의 일반적 개념	40
1 1	고용의 질의 중요성	40
1 2	고용의 질의 일반적 개념	41
1 3	선행연구의 괜찮은 일자리 측정 기준	50
2	이 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	53
2 1	자료집합에 대한 검토	53
2 2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	55
2 3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측정기준	56
2 4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측정기준	61

<b>III</b>	<b>서울시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b>	<b>70</b>
1	조사개요	70
2	주요 조사결과	71
2 1	일반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 조건	71
2 2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73
2 3	관찮은 일자리 주요 조건에 대한 동의 수준	81
3	관찮은 일자리 주요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85
3 1	AHP	85
3 2	일관성 분석	87
4	관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요	88
4 1	관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인식	88
4 2	향후 관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수요	89
<b>IV</b>	<b>서울시 관찮은 일자리 실태 분석</b>	<b>92</b>
1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실태	92
1 1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규모와 추이	92
1 2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고용의 질 관련 특성	97
1 3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인구학적 특성	103
1 4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별 특성	109
1 5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별 특성	119
2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실태	126
2 1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규모와 추이	126
2 2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구성요인 분해	130
2 3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인구학적 특성	136
2 4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별 특성	140
2 5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별 특성	145

3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추이	149
3 1	작성 목적 및 방법	149
3 2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산출 결과	151
<b>V</b>	<b>향후 정책방향</b>	<b>158</b>
1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 수립	158
2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	159
2 1	보수 측면	160
2 2	고용안정성 측면	161
2 3	근로시간 측면	162
2 4	사회보험 측면	164
3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165
3 1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165
3 2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전달체계 개선	167
3 3	인력양성과 전업·전직 프로그램 강화	169
4	정책대상 선정과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173
	<b>참고문헌</b>	<b>176</b>
	<b>부록</b>	<b>182</b>
	<b>Abstract</b>	<b>222</b>

# 표차례

표 1-1	서울시 자치구별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33
표 1-2	서울시 산업별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36
표 2-1	ILO, OECD, 유럽위원회 등의 고용의 질에 대한 다면적 측면	46
표 2-2	ILO의 관참은 일자리 측정지표 요약	49
표 2-3	보수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을 정의한 선행연구	51
표 2-4	보수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52
표 2-5	고용관련 주요 표본가구조사 비교	54
표 2-6	전국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중위임금, 평균임금 추이	59
표 2-7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회·경제적 위세지수의 표준화 값이 0 이상인 중분류 항목	66
표 3-1	일반인 조사 응답자 현황	70
표 3-2	일반시민의 희망 임금수준	71
표 3-3	관참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전문가조사)	74
표 3-4	관참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일반시민조사)	75
표 3-5	관참은 일자리에 대한 최소 임금(소득) 수준	77
표 3-6	관참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최소·최대 적정 근로시간	78
표 3-7	관참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고용안정성 조건	79
표 3-8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관참은 일자리 평균 수준	80
표 3-9	월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에 대한 일반시민 응답 비율	82
표 3-10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에 대한 일반시민 응답비율	84
표 3-11	요인별 상대평가 행렬	86
표 3-12	요인별 상대평가 표준행렬	86
표 3-13	일관성 검증 행렬	87
표 3-14	일관성 비율	87

표 4-1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규모	93
표 4-2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규모 추이	98
표 4-3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근로시간별 규모 추이	100
표 4-4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위세별 규모 추이	102
표 4-5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규모 추이	104
표 4-6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성별 규모 추이	106
표 4-7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학력별 규모 추이	108
표 4-8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10
표 4-9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13
표 4-10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15
표 4-11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18
표 4-12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규모 추이	121
표 4-13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123
표 4-14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125
표 4-15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시·도별 규모	127
표 4-16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인별 시·도 내 비중	132
표 4-17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규모 추이	137
표 4-18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성별 규모 추이	138
표 4-19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학력별 규모 추이	140
표 4-20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42
표 4-21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144

표 4-22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규모 추이	146
표 4-23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148
표 4-24	일자리 질 지수 작성의 분석 변수와 가중치	151
표 4-25	2008~2013년 중 서울과 전국의 일자리 질 지수와 구성요소별 점수	155
표 5-1	두루누리 사회보험 인지 여부	164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29
그림 1-2	전국 및 16개 시·도 내 양질의 사업체 분포	31
그림 1-3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분포 및 자치구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	32
그림 1-4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산업 분포(상위 10대 산업)	34
그림 1-5	서울시 산업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상위 10대 산업)	35
그림 2-1	보수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의 질 분류	50
그림 2-2	괜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임금 기준	58
그림 2-3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 범위 추이	59
그림 2-4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60
그림 2-5	괜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	62
그림 2-6	적정 근로시간 범위에 해당하는 전국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62
그림 2-7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 및 평균 근로시간 추이	63
그림 2-8	괜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종사상 지위 기준	64
그림 2-9	전국 임금종사자의 상용직 일자리 비중 추이	65
그림 2-10	괜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기준	67
그림 2-11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일자리 비중 추이	68
그림 3-1	일반시민의 속성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72
그림 3-2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73
그림 3-3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 조건	76
그림 3-4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최소 임금수준	77
그림 3-5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사회보험 여부	79
그림 3-6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 수준	80
그림 3-7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에 대한 적절성	81

그림 3-8	상용직 여부에 대한 적절성	82
그림 3-9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적절성	83
그림 3-10	주당 적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에 대한 적절성	83
그림 3-11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에 대한 적절성	84
그림 3-12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 여부	88
그림 3-13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여부	89
그림 3-14	향후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대 정책의 1순위 사업	90
그림 4-1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92
그림 4-2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시·도 내 비중	94
그림 4-3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95
그림 4-4	서울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96
그림 4-5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97
그림 4-6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시간별 비중 추이	99
그림 4-7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위세별 비중 추이	102
그림 4-8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	103
그림 4-9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성별 비중 추이	106
그림 4-10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학력별 비중 추이	108
그림 4-11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109
그림 4-12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112
그림 4-13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 (상위 20대 산업)	114
그림 4-14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	117
그림 4-15	2013년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비중	120
그림 4-16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122
그림 4-17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124
그림 4-18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126

그림 4-19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시·도 내 비중	128
그림 4-20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129
그림 4-21	서울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129
그림 4-22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구성요인별 시·도 내 비중과 전국 평균 간 편차	131
그림 4-23	관참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따른 시·도별 유형(1~4)	134
그림 4-24	관참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따른 시·도별 유형(5~8)	135
그림 4-25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	136
그림 4-26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성별 비중 추이	138
그림 4-27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비중 추이	139
그림 4-28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141
그림 4-29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 (상위 15대 산업)	143
그림 4-30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비중	145
그림 4-31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147
그림 4-32	2008~2013년 중 전국과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 추이	152
그림 4-33	2008~2013년 중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 지수 추이	153
그림 4-34	2008~2013년 중 서울의 일자리 질 구성요소별 점수 추이	154
그림 5-1	서울시 관참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안	158
그림 5-2	2013년 기준 서울시 관참은 일자리 후보군	159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차
- 2 서울의 양질의 사업체 분포 및 특성
- 3 사업체 분석의 한계와 근로자 대상의 분석 필요성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차

### 1.1 연구의 배경

#### 1.1.1 고용문제 초점이 단순한 ‘고용 여부’에서 ‘고용의 질’로 이동

- 21세기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
- 서울시도 이전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복지 향상, 빈부격차 해소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요
  -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추상적 개념하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만 논의
    - 특히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이 부재한 상황

#### 1.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먼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 파악과 업종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 괜찮은 일자리 실태 및 특성 분석에 기초해 향후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정책방향을 모색

## 113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관찮은 일자리 및 고용의 질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찮은 일자리 개념, 주요 분석방법과 이론적 틀 정립
-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 서울시 관찮은 일자리 실태 분석을 위한 관련 DB구축과 이를 통한 통계분석,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등 작성
  - 관찮은 일자리 조건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도, 관찮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 설문조사
- 자문회의
  - 관찮은 일자리 분석관련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 114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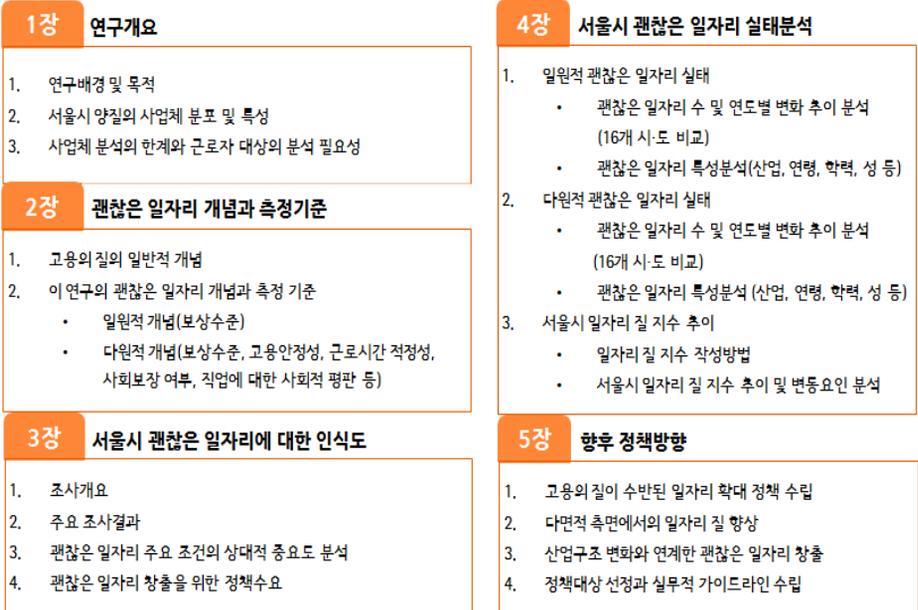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흐름도

## 2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분포 및 특성

### 2.1 양질의 사업체 정의와 분석 대상

- 보수 측면에서 본 양질의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별 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국 수준 이상인 사업체로 파악
- 자료집합은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국 및 16개 시·도의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
-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된 것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노동의 보수인 급여가 아니라 사업비 개념의 인건비만 제공되기 때문
- 또한 5인 미만 사업체는 무급가족 종사자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사업체 매출액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0년 경제총조사에서 사업체별 인당 평균 급여액은 163.9만원
- 이 기준에 따라 전국을 비롯해, 서울 등 16개 시·도의 양질의 사업체 수와 전국 내 비중, 16개 시·도 내 비중 등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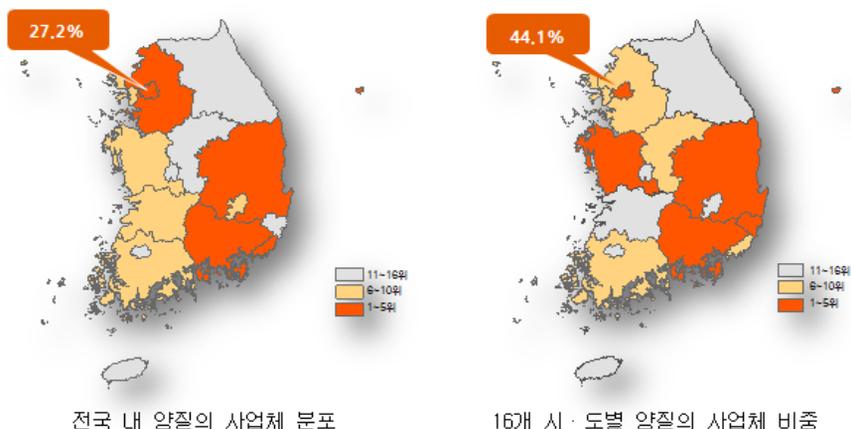
### 2.2 양질의 사업체는 16개 시·도 중 서울에 가장 많이 집중

- 2010년 전국 내 양질의 사업체는 총 306,273개이며, 이 중 서울에 가장 많은 83,307개가 존재<sup>1</sup>
- 급여액 163.9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68,962개 중 306,273개(39.8%)가 양질의 사업체로 규명

---

<sup>1</sup> 2010년 전국 내 양질의 사업체 수(개): 서울 83,307, 부산 20,271, 대구 11,423, 인천 14,581, 광주 7,095, 대전 6,887, 울산 5,935, 경기 70,625, 강원 7,802, 충북 8,742, 충남 11,981, 전북 9,107, 전남 10,559, 경북 15,102, 경남 19,926, 제주 2,930

- 2010년 양질의 사업체 수는 서울 83,307개, 경기도 70,625개, 부산 20,271개, 경남 19,926개, 경북 15,102개 등의 순으로 분포
- 2010년 전국 내 양질의 사업체 분포 : 서울(27.2%), 경기(23.1%), 부산(6.6%), 경남(6.5%) 등의 순<sup>2</sup>
- 특히 양질의 사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약 55% 입지
- 16개 시·도별로 5인 이상 사업체<sup>3</sup> 중 양질의 사업체 비중을 보면, 서울이 2010년 44.1%로 16개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0년 각 시·도 내 양질의 사업체 비중(%) : 서울(44.1), 충남(42.5), 경남(42.2), 울산(40.8), 경북(40.7) 등의 순<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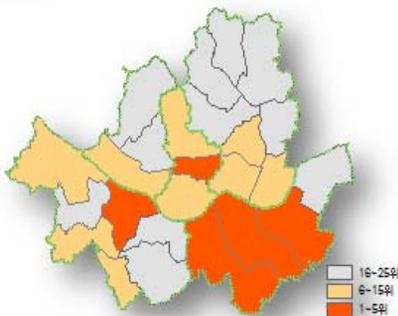
**그림 1-2 전국 및 16개 시·도 내 양질의 사업체 분포**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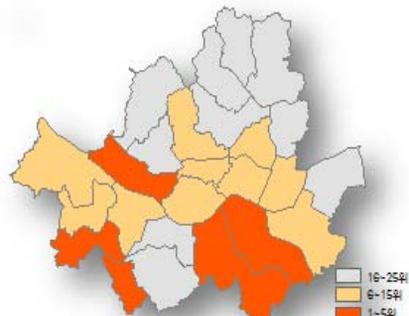
- 2 2010년 전국 내 양질의 사업체 시·도별 비중(%) : 서울 27.2, 부산 6.6, 대구 3.7, 인천 4.8, 광주 2.3, 대전 2.2, 울산 1.9, 경기 23.1, 강원 2.5, 충북 2.9, 충남 3.9, 전북 3.0, 전남 3.4, 경북 4.9, 경남 6.5, 제주 1.0
- 3 2010년 시·도별 5인 이상 사업체 수(개) : 서울 189,044, 부산 53,406, 대구 34,334, 인천 36,329, 광주 22,414, 대전 20,348, 울산 14,538, 경기 177,802, 강원 22,270, 충북 22,319, 충남 28,174, 전북 26,422, 전남 27,073, 경북 37,126, 경남 47,260, 제주 10,103
- 4 2010년 시·도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 : 서울 44.1, 부산 38.0, 대구 33.3, 인천 40.1, 광주 31.7, 대전 33.8, 울산 40.8, 경기 39.7, 강원 35.0, 충북 39.2, 충남 42.5, 전북 34.5, 전남 39.0, 경북 40.7, 경남 42.2, 제주 29.0

##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 등에 입지

- 2010년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는 강남구, 서초구 등에 10% 이상,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 금천구, 마포구, 구로구 등에 5% 이상 입지하고, 강북구, 도봉구는 1% 미만으로 가장 작게 입지
- 2010년 서울시 사업체 중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강남구(16.9%), 서초구(10.1%), 영등포구(7.2%), 중구(6.7%), 송파구(6.6%) 등의 순
-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동남권(35.7%), 서남권(27.25), 도심권(14.5%), 동북권(14.3%), 서북권(8.3%) 등의 순
-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등은 5인 이상 사업체 중 50% 이상이 양질의 사업체인 반면, 도봉구, 관악구, 강북구, 중랑구는 양질의 사업체 비중이 20% 대로 다소 낮은 편
- 2010년 자치구 내에 있는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금천구(53.7%), 서초구(52.5%), 강남구(51.8%), 구로구(51.1%), 마포구(49.2%) 등의 순
- 특히 강남구, 서초구는 자치구 내 양질의 사업체 비중이 50% 이상일 뿐 아니라, 양질의 사업체 수도 각각 14,038개, 8,399개로 여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분포



서울시 자치구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

그림 1-3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분포 및 자치구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표 1-1 서울시 자치구별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명, %)

구분	5인 이상 사업체 수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사업체 수	서울 내 비중	자치구 내 비중
종로구	9,175	3,887	4.7	42.4
중구	12,162	5,551	6.7	45.6
용산구	6,030	2,674	3.2	44.3
성동구	6,485	2,916	3.5	45.0
광진구	5,332	1,980	2.4	37.1
동대문구	5,256	1,953	2.3	37.2
중랑구	3,828	1,020	1.2	26.6
성북구	4,112	1,251	1.5	30.4
강북구	2,900	788	0.9	27.2
도봉구	2,483	717	0.9	28.9
노원구	3,990	1,268	1.5	31.8
은평구	3,371	1,067	1.3	31.7
서대문구	3,224	1,115	1.3	34.6
마포구	9,696	4,767	5.7	49.2
양천구	4,885	1,833	2.2	37.5
강서구	6,892	2,743	3.3	39.8
구로구	8,934	4,568	5.5	51.1
금천구	9,202	4,946	5.9	53.7
영등포구	12,441	6,005	7.2	48.3
동작구	3,765	1,302	1.6	34.6
관악구	4,454	1,245	1.5	28.0
서초구	15,985	8,399	10.1	52.5
강남구	27,110	14,038	16.9	51.8
송파구	12,337	5,493	6.6	44.5
강동구	4,995	1,781	2.1	35.7
서울시	189,044	83,307	100.0	-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는 상위 3개 산업에 49% 분포

- 2010년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상위 3개 산업에 49.3%가 분포
-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중 29.2%가 도·소매업이고, 11.8%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다음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3%), 제조업(7.4%), 건설업(7.1%) 등의 순으로 많음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양질의 사업체수가 적은 편
-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중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모두 1% 미만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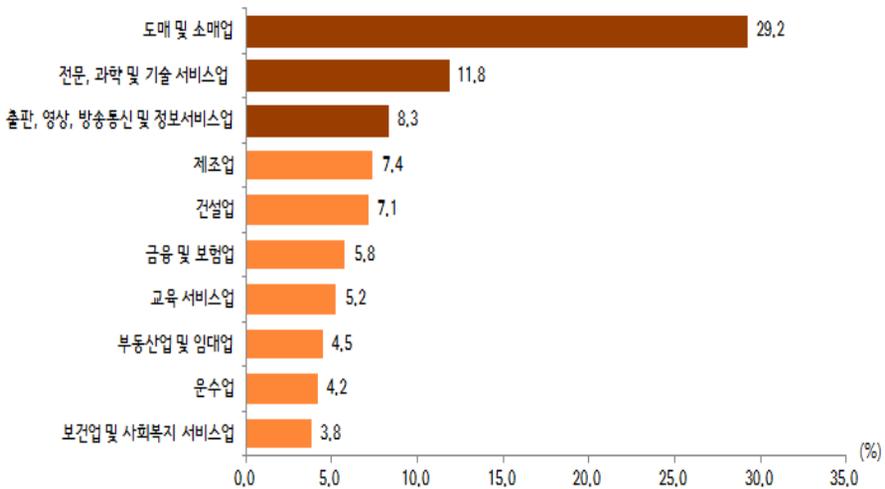


그림 1-4 서울시 양질의 사업체 산업 분포(상위 10대 산업)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 각 산업 내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주로 공공관련 산업에서 높게 발생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90.9%),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83.1%) 등에서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모두 80% 이상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에서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50~60% 대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각각 12.0%, 23.8%에 불과
- 또한 양질의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의 경우 양질의 사업체 비중이 48.1%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 업종은 열악한 사업체도 매우 많다는 것을 시사
-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등은 양질의 사업체 수가 적지만, 산업 내 양질의 사업체 비중은 높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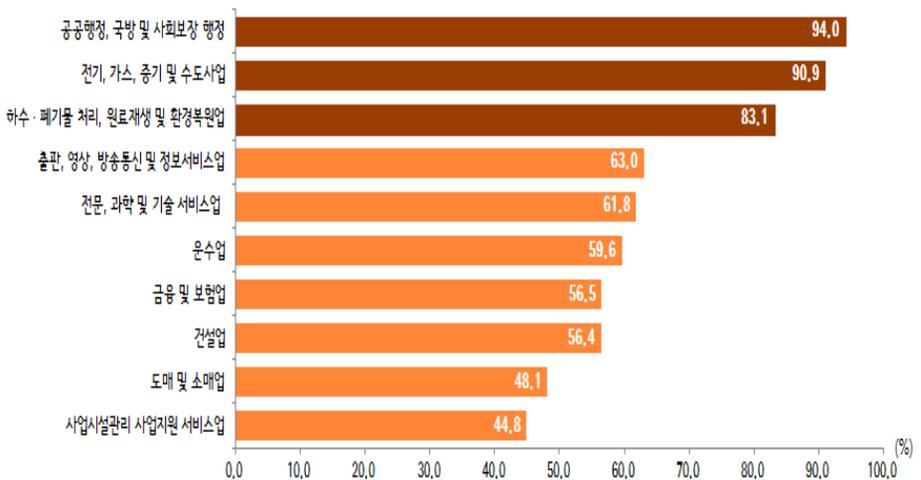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산업별 양질의 사업체 비중(상위 10대 산업)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표 1-2 서울시 산업별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명, %)

구분	5인 이상 사업체 수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비중		
		사업체 수	서울 내 비중	산업 내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0.0	0.0
광업	0	0	0.0	0.0
제조업	16,002	6,140	7.4	38.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	40	0.0	90.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90	241	0.3	83.1
건설업	10,529	5,937	7.1	56.4
도매 및 소매업	50,599	24,322	29.2	48.1
운수업	5,842	3,481	4.2	59.6
숙박 및 음식점업	20,467	2,447	2.9	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931	6,884	8.3	63.0
금융 및 보험업	8,502	4,801	5.8	5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725	3,711	4.5	4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881	9,811	11.8	6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060	3,166	3.8	4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60	1,185	1.4	94.0
교육 서비스업	10,176	4,363	5.2	4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28	3,182	3.8	3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51	630	0.8	2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54	2,966	3.6	31.0
전산업	189,044	83,307	100.0	-

자료 : 경제총조사, 2010, 통계청

## 3.1 사업체 분석의 한계

- 양질의 사업체 분석은 일자리 공급자 특성 파악과 사업체 통계의 전수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보유
- 양질의 사업체 분석은 급여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어떤 업종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대리변수적 성격을 가진
- 특히 양질의 사업체 분석은 전수조사인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
- 경제총조사는 현재 국내 고용관련 통계 중 전 산업 대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및 시·도별로 종사자 급여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특히 시·군·구별, 산업 소분류 또는 세분류별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사업체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첫째, 양질의 사업체 분석은 일자리 공급자 위주의 평균 분석으로 일자리 수요자 측면의 분석에 한계
- 둘째, 양질의 사업체 분석을 수행할 때, 핵심 변수인 급여액의 적절성 문제가 발생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급여는 사업체별 평균 급여액 수준으로 임금분포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괴리
- 즉, 개별 사업체의 평균 급여와 달리 사업체 내 일자리의 급여는 직급 및 종사상 지위별로 다양하게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 셋째, 양질의 사업체 판단 기준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에 봉착

- 경제총조사에서 제공되는 사업체 관련 자료는 주로 사업체, 종사자, 업종, 지역, 급여, 종사상 지위 등으로 양질의 사업체나 괜찮은 일자리로 활용 가능한 변수가 제한적

### 3.2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대상의 분석 필요성

- 일자리 수요자인 근로자 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대상의 분석이 필요
- 노동이 아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개인 차원에서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일자리를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sup>5</sup>
- 일자리 수요자인 근로자 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할 경우 어떤 조건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이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
- 이를 위해 사업체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미시데이터로 구성된 자료집합을 활용해 단순히 보상측면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괜찮은 일자리를 파악할 필요
- 개별 근로자 대상의 자료집합을 이용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속성이 반영된 괜찮은 일자리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
- 이를 통해 보상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직무 만족도, 근로시간 등 보다 넓은 개념의 괜찮은 일자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

---

5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27~252

## II      **관찰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

1      고용의 질의 일반적 개념

2      이 연구의 관찰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

## II 관참은 일자리 개념과 측정기준

### 1 고용의 질의 일반적 개념

#### 1.1 고용의 질의 중요성

- 최근 들어 고용의 질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문제의 주요 논제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성 부각
- 취업자 확대나 고용률 제고 등 주로 양적 문제에 집중되었던 노동 분야의 문제의식이 고용의 적정 보수, 고용의 안정성 확대, 근로환경 개선, 산업재해 축소 등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 확장
- 이는 노동을 단순히 소비를 위한 구매력 창출 수단으로 보는 데 머물지 않고 고용의 질 자체가 근로자 후생과 직결되고, 노동생산성 등 거시경제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sup>6</sup>
- 특히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노동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고용조건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발생<sup>7</sup>
- 고용조건 악화는 여성, 고령층, 청년층 등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요구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도 고용의 질의 중요성 배가
- 또한 고용의 질 향상은 많은 나라에서 경쟁전략과 노동기준 보호의 일환으로 활용<sup>8</sup>
- 고임금 국가 근로자들이 개발도상국 근로자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

6 배민근, 2008, “고용의 질 아직 갈 길 멀다”, LG Business Insight, 971호, LG경제연구원  
7 이상현, 2005, “Decent 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8 Francis Green, 2005, “선진국에서 고용의 질 개념의 발전”,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 수 있는 있는 방법은 고속련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
- ILO는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노동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의 질 개념을 촉진
- o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립과 통계 구축이 필수적

## 1.2 고용의 질의 일반적 개념

- o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사업 및 개인 수요에 알맞은 일자리 구성’을 의미<sup>9</sup>
- 구체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된 객관적 특성, 근로자 특성, 근로자와 고용 특성 간 조화, 고용의 특징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일자리 만족) 등을 포함
- o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의 질 또는 괜찮은 일자리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초기에는 경제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등 단면적 측면에서 보다가 추후 다면적 측면에서 본 개념으로 발전
- 고용의 질은 단순히 보수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과 조건, 사회적 위세 등 노동과 관련된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
- o 또한 고용의 질을 반영한 일자리에 대한 표현도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등 다양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괜찮은 노동(decent work)에서 출발한 것으로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sup>10</sup>

<sup>9</sup> Roopali Johri, 2005, “Work values and quality of employment”, a literature review, ; 박현정, 2010 재인용, “고용의 질 측정방법 연구”, 2010년 하반기연구보고서 제 1권 제4장, 통계개발원

<sup>10</sup>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Mehran, F. and Ritter, J. 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LO Policy Integration Department

-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은 ILO에서 정의된 것으로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sup>11</sup>
- **좋은 일자리(good job)**는 일반적으로 보상수준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위세가 높은 일자리로 정의<sup>12</sup>
- 초기에는 임금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 직업위세에 중점을 둔 사회학적 접근, 주관적 만족도에 집중한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다가 이후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면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짐
- 양질의 일자리는 연구자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와 동일한 개념
- **괜찮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보다 기준 측면에서 더 낮은 개념이고, 주로 빈곤 또는 최저생활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반면,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성취를 가늠하게 해주는 개념에 더 가까운 편<sup>13</sup>

#### 1.2.1 단면적 측면에서 본 고용의 질 개념

- 고용의 질은 초기에는 산업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분야별로 관심 사항에 따라 단면적 측면에서 접근
-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도를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측정
- Locke, E. A.(1976)<sup>14</sup>는 직무만족도를 개인의 직업 및 직업적 경험의

---

Statistical Development and Analysis Group Working Paper No. 2, ILO

11 이상현, 2005, “Decent Work: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한국노동연구원

12 방하남·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0(1):93~126

13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27~252

14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D.(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Rand-McNally, Chicago.

- 성과에서 발생하는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
- 사회학 분야에서는 주로 해당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측정해 일자리의 질을 평가
    - Ganzeboom B. G, H. De Graaf, and D. Treiman(1992)<sup>15</sup>은 직업의 위세순위, 사회학적으로 분류된 직업 분류, 사회·경제적 상태 등 3가지 기준을 반영한 점수를 국제 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조정하여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 ISEI)를 산출
  - 경제학 분야에서는 주로 일자리를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서열화
    -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은 지속성만 보장되면 가장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보여준다는 시각에 기반
    - 특히 직업 위세(occupational status) 대신에 임금에 초점을 둘 경우 동일한 직업범주(occupational title)에 속하는 일자리들의 질적 차이를 허용하는 장점을 보유
    - 그러나 Jencks, Perman and Rainwater(1988)가 지적하였듯이 고용의 질에 대한 단면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유<sup>16</sup>
  - 경제학적 접근은 일자리가 제공하는 비금전적 이득, 가령 사회적 위세나 직무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보상 등을 간과
    - 일부 조사결과에 의하면<sup>17</sup>, 직업 순위 결정에서 고용 안정성, 기술습득 가능 여부 등과 같은 비금전적 직업 특성이 임금에 비해 2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15 Ganzeboom, Harry B. G., De Graaf, D. Treiman,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1~56

16 Jencks, Perman and Rainwater, 1988,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Market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322~1357

17 미시간 대학교의 Survey Research Center가 수행한 1972~1973년 Quality of Employment Survey

- 사회학적 접근은 동일한 직업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차별화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유
- 직업은 사회·경제적 위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업분류를 활용하여 계산하지만, 동일한 직업이라도 일자리의 질은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
-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심리학적 접근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결여
- 이 경우 직업탐색자로서 근로자가 가지는 행위론적 준거가 약화

## 122 다면적 측면에서 본 고용의 질 개념

- 단면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다면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시작
- Jencks, Perman and Rainwater(1988)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별하는 수단으로서 직업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척도’(Index of Job Desirability, IJD)를 제시
-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임금, 부가적 급부, 근로시간, 직종, 훈련 및 승진기회 등 다양한 직업특성을 추출
- 근로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이러한 직업특성들이 자신의 직업에 있는지 여부와 그들의 직업의 질을 평균적인 직업과 비교한 후 이 결과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통해 종합척도를 작성
- 한편, 1990년대 후반 들어 ILO 등도 다면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본격화
- OECD, 유럽집행위원회, ILO 등은 인권 측면에서의 노동,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수급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와 측정 지표 개발에 착수
- ILO(1999)<sup>18</sup>는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

---

<sup>18</sup> ILO, 1999, “Decent Work :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관찮은 일자리를 정의

- 관찮은 일자리가 사회통합 및 개인의 자존감 차원에서 삶의 기초가 되고, 생산적 노동이 근로계층의 소득창출과 지속적인 발전 동력의 근원이라고 인식
- Anker 외(2003)<sup>19</sup>는 ILO의 관찮은 일자리를 6가지 측면으로 설명
  -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
  - 자유롭게 선택되고 강제 받지 않는 노동의 자발성
  -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가계부양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생산적 노동
  - 근로자 노동에서 공평한 대우와 기회를 의미하는 노동의 공평성
  - 건강 등 위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호가 제공되는 노동의 안전성
  -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경받고 근로환경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노동의 존엄성
- o 유럽집행위원회(2001)<sup>20</sup>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차원에서의 노동을 중시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저숙련,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 우려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용의 질에 대한 접근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
- 유럽집행위원회(2001)<sup>21</sup>는 노동의 질을 동등한 노동의 기회, 성의 평등, 노동의 유연성, 생애에 걸친 배움,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 일자리에서 근로자의 몰입과 다양성 등 6가지 측면에서 접근

---

19 Anker, Richard and Igor Chernyshev et al., 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179-211

20 EU, 2001,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1 EU, 2001,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 OECD(2003)<sup>22</sup>는 더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에 초점을 맞춤
- 일자리의 양적 증가 지속가능성 확대와 다양한 노동계층의 일자리 공유를 위해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시작
- OECD는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근로조건, 고용형태, 일자리의 안전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접근

**표 2-1 ILO, OECD, 유럽위원회 등의 고용의 질에 대한 다면적 측면**

ILO (Anker, 2002)	OECD	유럽위원회
동등한 기회		동등한 기회
노동의 자발성		몰입과 다양성
생산적 노동	임금	
공정한 대우	고용형태	성의 평등
노동의 안전성	고용 안전성	건강과 안전
노동의 존엄성	근로조건	노동과 개인 삶의 균형 생애에 걸친 배움

### 1.2.3 ILO의 관점은 일자리 측정 지표

- ILO는 일자리를 ‘빈곤이나 최저생계보장’ 등 복지개념과 연계하면서 관점은 일자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노력
- 2003년 관점은 일자리를 측정하는 지표개발 연구들로 구성된 International Labour Review 스페셜 단행본을 출간
- Anker 외, Becond 외, Ghai 등의 관점은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

<sup>22</sup> OECD,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 Anker 외(2003)<sup>23</sup> 등은 ILO에서 개념화된 괜찮은 일자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1개 분야에서 30개의 측정지표를 제시
- 고용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 고용률, 비농업부문 임금노동비율
- 철폐되어야 할 노동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임금 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저임금(시간당 중위수입의 1/2 이하) 고용 비율, 주요 직종의 평균 수입, 최근 1년 동안 직무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
- 적절한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
- 고용안정성 : 재직 1년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임시 임금근로자 비율
- 일과 가정의 양립 : 20~49세 여성 중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의 취업률
- 고용평등 : 성별 직종 분화 비율, 경영·행정직종의 여성고용 비율
- 안전한 근로환경 : 치명적 부상빈도, 근로감독관 비율,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
- 사회적 보호 : 공공 사회보장지출 비율(GDP 대비), 현금소득보전지출 비율(GDP 대비), 현금소득보전 수혜자 비율(빈곤층 대비), 연금수혜자 비율(65세 이상 대비), 연금가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평균 월별 연금액 비율(중간 또는 최소 수입 대비)
- 사회적 소통과 일터에서의 관계 : 노조가입률, 단체임금협약 적용률, 파업과 직장 폐쇄 빈도(근로자 1,000명당)
- 경제 사회적 환경 : 비공식 경제의 고용 비율(비농업 부문 또는 도시의 고용 대비)

23

Anker, R. et al., 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147-178

- Bescond 외(2003)<sup>24</sup>는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주된 자료원으로 한 7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괜찮은 일자리 측정과 국제비교를 수행
  - 적절한 보상 : 중위임금의 50% 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시간당 임금 여부
  - 적절한 노동시간 : 경제적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인한 주당 48시간 이상의 과잉 노동시간 여부
  - 완전고용 : 실업률
  - 인적자원 개발 : 10~14세 아동 중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청년의 일자리 기회 :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
  - 고용기회의 형평성 :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
  - 사회보장 :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비수혜자 비율
- Ghai(2003)<sup>25</sup>는 고용, 사회적 대화 등 4가지 차원에서 총 10개 지표를 사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측정
  - 고용 차원 : 고용기회(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적절한 보상(중위임금 50% 이하의 근로자 비율, 절대 빈곤선 이하의 근로자 비율),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산업보건 및 안전 등)
  - 사회보장 차원 :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사회보험 적용률 등
  - 노동권 차원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일에서의 차별(성 차별 등), 단결권 보장(시민자유지수, 노조가입률 등)
  - 사회적 대화 차원 : 단체협약, 사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 국가 수준의 참여

---

<sup>24</sup> Bescond, D. et al., 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179~211

<sup>25</sup> Ghai, Dharam, 2003, "Decent work: Concept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113~145

표 2-2 ILO의 관점은 일자리 측정지표 요약

ILO의 관점은 일자리에 대한 6가지 측면	Anker 외(2003)	Bescond 외(2003)	Ghai(2003)
동등한 기회	· 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 실업률 ·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	· 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의 자발성	· 철폐되어야 할 노동(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등)	· 10~14세 학령인구의 비재학률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생산적 노동	·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저임금 고용비율 등) · 적절한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 비율 등) · 고용안정성 (임시 임금근로자 비율 등) · 일과 가정의 양립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 취업률)	· 중위임금 50% 이하의 낮은 시간당 임금 여부 · 주당 48시간 이상의 과잉 노동시간 여부	· 적절한 보상 (중위임금 50% 이하의 근로자 비율 등) ·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등)
공평한 대우	· 고용평등 (성별 직종 분화 비율 등)	·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간 격차	· 일에서의 차별 (성 차별 등)
노동의 안전성	· 안전한 근로 환경 (근로감독관 비율 등) · 사회적 보호 (GDP 대비 공공 사회보장 지출 비율 등)	·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비수혜자 비율	· 사회보장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등)
노동의 존엄성	· 사회적 소통과 일터에서의 관계(노조가입률 등) · 경제 사회적 환경 (비공식 경제의 고용비율)		· 단결권 보장 (노조가입률 등) · 단체협약 · 사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 · 국가수준의 참여

### 선행연구의 관찮은 일자리 측정 기준

- 좋은 일자리, 관찮은 일자리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  
찮은 일자리의 측정기준 및 분석방법을 검토
-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관찮은 일자리 등 용어와 그 기준이 연구  
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측정기준에 초점을 두고 검토
- 고용의 질의 핵심지표인 보수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을 구분한 선행  
연구로는 송영남(2011) 등이 있음
- Ahlburg 외(1995)<sup>26</sup>, Morissette 외(2005)<sup>27</sup>, 송영남(2010)<sup>28</sup>, 송영남  
(2011)<sup>29</sup> 등은 임금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개념화하고 측정
- 특히 송영남(2011)은 임금을 기준으로 일자리 수준을 관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 등 상대적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이행  
과정의 결정요인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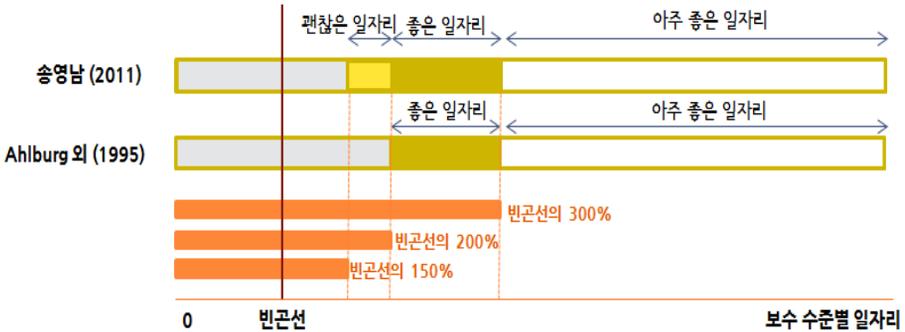


그림 2-1 보수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의 질 분류

26 Ahlburg, Dennis A., et al, 1995, "Are Good Jobs Disappearing? Evidence for Minnesota from the 1980 and 1990 Censuses",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27 Morissette, Rene and Anick Johnson, 2005, "Are Good jobs Disappearing in Canada?",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28 송영남, 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4) : 209~234

29 송영남, 2011,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지방행정연구 25(3) : 313~342

표 2-3 보수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을 정의한 선행연구

구 분	Ahlburg 외 (1995)	Morissette, Johnson(2005)	송영남(2010), 송영남(2011)
기준(보수)	좋은 일자리 : 빈곤선의 200% 이상	시간당 임금 수준	괜찮은 일자리 : 빈곤선의 150%
	아주 좋은 일자리 : 빈곤선의 300% 이상		좋은 일자리 : 빈곤선의 200% 아주 좋은 일자리 : 빈곤선의 300%
분석방법	좋은 일자리의 분포 분석 등	좋은 일자리의 분포 분석 등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 분석,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이행과 정의 결정요인 분석 등

- 보수 외에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일자리의 질을 판단한 선행연구로는 Ritter 외(2002) 등이 있음
- Ritter 외(2002)<sup>30</sup>, 방하남·이상호(2006), 홍성우(2008)<sup>31</sup>, 최옥금(2006), 박상현(2010)<sup>32</sup>, 어수봉·조세형(2006)<sup>33</sup>, 장광수·임진 외(2011)<sup>34</sup>, 김영수(2013)<sup>35</sup> 등은 보수 외에 직업특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일자리의 질을 구분
- Ritter 외(2002)는 임금, 부가급여, 일의 성격, 자율과 독립성, 승진가능성 등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결정요인을 분석
- 방하남·이상호(2006)는 월평균 임금, 직업의 사회적 위세, 종합 직무만족도 등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결정요인을 분석

30 Ritter, J.A, R. Anker, 2002, "Good jobs, bad jobs: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ie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1(4)

31 홍성우, 2008, "광주·전남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40(2): 17~36

32 박상현, 2010, "OES를 활용한 괜찮은 일자리의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33 어수봉·조세형, 2006,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4 장광수·임진 외, 2011,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BOK 경제 브리프

35 김영수, 2013,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전략", 산업연구원

- 최옥금(2006)은 임금, 취업안정성,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활용해 관찮은 일자리를 정의한 후 관찮은 일자리의 규모와 변화 추이, 특성 등을 분석

표 2-4 보수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구분	관찮은 일자리의 활용변수 및 기준					분석 방법
	보수	직무/직업 특성	고용안정	근무조건	기타	
홍성우 (2008)	월평균 임금	직업의 사회적 위세	정규직	주당 근로시간 (19~49시간)		
어수봉, 조세형 (2006)	실질임금 상승률	-	상용 근로자 비율	주당 근로시간	고용률, 고용보험 임금지니계수, 재해율, 노조조직률	합성지수 산출
방하남, 이상호 (2006)	월평균 임금	직업의 사회적 위세 직무만족도	-	-	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학력 등) 사업체 특성 (노조유무 등) 직무특성 (근속연수 등)	결정요인 분석
최옥금 (2006)	중위임금의 1/2 이상 중위임금의 2/3 이상	-	취업 안정성의 긍정적 답변 여부	-	일자리의 사회보험 적용 유무	
박상현 (2010)	중위소득 이상	-	정규직, 상용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평균근로시간 이하)	사업체 규모 (근로자 100인 이상 규모)	규모 및 속성 분석
김영수 (2013)	종사자수 대비 평균 인건비	-	상용 종사자 수 증가율	-	-	
장광수, 임진 외 (2011)	평균 임금 이상	-	상용직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리직/전문직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 2.1 자료집합에 대한 검토

- 관점은 일자리 규모 및 특성 분석을 위해 노동 공급자를 대상으로 임금, 고용조건 등의 정보를 가진 전국대상의 고용통계 조사자료를 검토
- 관점은 일자리 특성에 대한 시·도별 비교 분석을 위해 시·도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집합을 우선 검토
- 자료집합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등이 존재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국내 고용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
- 매월 약 3만 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의사와 취업시간, 일자리 형태 등에 대해 조사
- 실업률, 고용률 등 거시지표 작성에 매우 유용하지만, 근로자의 속성 파악이 어렵고, 표본가구가 적어 시·도별 비교에 한계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가구단위의 종단면 조사
- 비농촌지역 국내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 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등에 관해 추적조사
-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시·도별로 구분할 경우 표본가구가 적어 서울시 관점은 일자리 현황과 속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하는 대규모 표본 가구조사
- 전국 7만 5천 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조사로 노동시장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파악이 목적

- 일자리 및 취업자의 특성을 시·도별로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지만 2009년 이후 조사가 중단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2008년부터 통계청에서 시행된 지역별 고용조사와 조사내용이 유사해 조사 일부가 지역별 고용조사로 흡수
  - 지역별 고용조사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대규모 표본 가구조사로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제공
- 전국 19만 9천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근로시간, 구직사항,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월평균 임금, 고용계약기간 등을 조사
- 괜찮은 일자리 파악에 매우 유용하지만, 서울시 등 광역급 이상 시에 대해서는 구별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

**표 2-5 고용관련 주요 표본가구조사 비교**

조사명	한국노동패널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개요	노동시장 이동, 직업훈련 등에 관한 중단면조사	전체 노동시장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 파악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자료 생산
조사항목	가구정보,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소득, 산업구분, 사회보험, 종사상 지위, 직무만족도 등	228개 산업소분류별, 426개 직업 세분류별로 임금, 학력, 경력, 종사자수,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구직사항,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월평균 임금, 고용계약기간 등
조사기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조사주기	연간(1998년~)	연간(2001~2009년)	2008~2009년은 연간, 2010~2012년은 분기, 2013년 이후 반기조사
조사대상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 내 가구원 대상	전국 7만 5천 가구의 취업자	전국 19만 9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한계점	시·도별 표본가구가 적어 시·도별 분석에 한계	괜찮은 일자리 파악에 유용하나 2009년 이후 중단	괜찮은 일자리 파악에 유용하나 광역시 이상에서 구별 코드를 제공하지 않음

- 이 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은 ILO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첫째,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 둘째,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만족 등이 일정 수준을 웃도는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 조건은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
  - 괜찮은 일자리 조건은 학력, 연령, 업종, 직종 등 대상별로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지표중심으로 설정
  - 구체적으로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여부,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괜찮은 일자리 조건을 측정
- 이때 괜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개념과 다원적 개념으로 이원화
  - 일원적 개념의 괜찮은 일자리(이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조건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기본인 보수를 기준으로 설정
    - 보수만을 기준으로 한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경제학적 개념에 입각
  - 다원적 개념의 괜찮은 일자리(이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조건은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사용
    - 특히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이러한 지표 각각에 대해 일정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
- 괜찮은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료집합으로 앞서 검토한 자료집합 중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검토한 자료집합 중 표본크기가 가장 크고, 괜찮은 일자리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다양

-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sup>36</sup>
- 분석단위는 산업·직업 중분류, 사업체 소재지 기준 전국 및 시·도 단위이며, 분석대상은 전국 및 시·도별 임금근로자로 한정
-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임금근로자는 괜찮은 일자리 조건의 중요변수인 보수, 근로시간 등에서 결측치 빈도가 높아 분석에 한계

## 2.3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측정기준

### 2.3.1 보수는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 보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선정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변수
- 보수는 근로자의 빈곤탈출 및 삶의 영위에서 매우 높은 영향력을 보유
- 일부 연구에 의하면 보수는 일자리 안정성, 비전, 사회적 인지도 등의 특성과 ‘정’의 관계를 지님<sup>37</sup>
- 이 연구에서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sup>38</sup> 이상’을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하는 임금조건으로 선정
- 보수기준은 평균임금, 중위임금, 최빈임금, 최저생계비 등 연구자에 따라 측정 척도와 기준이 매우 다양

<sup>36</sup> 일반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는 분기자료는 3분기가, 반기자료는 하반기 자료가 연간자료로서 대표성을 가지지만, 이 연구에서 2011과 2013년은 각각 해당 연도의 6월과 3월 자료를 활용함. 2013년은 분석 시점에서 상반기 자료가 가장 최근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 자료를 연간 자료로 활용함. 그리고 2011년 3분기 자료는 조사기간과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전년에 비해 17시간 적은 28시간으로 집계되어 활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2분기 자료로 대체하여 분석

<sup>37</sup> Clark, Andrew E., 1998,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Working Party 7 of the OECD; 송영남, 2011 재인용,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지방행정연구 25(3) : 313~342

<sup>38</sup>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봉사료(팁) 등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급여)이며, 세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 받은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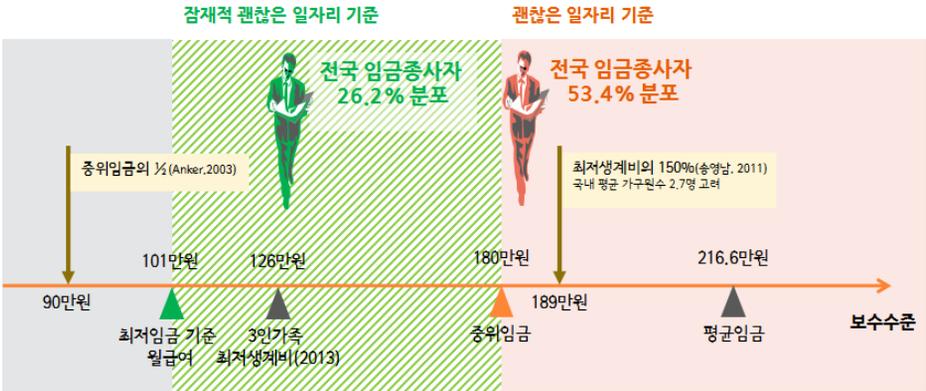
- 박상현(2010)은 보수기준으로 중위임금 이상을 사용
- Anker(2003)는 중위임금의 1/2 이상, 최옥금(2005)<sup>39</sup>은 중위임금의 1/2 이상, 최옥금(2006)은 중위임금의 1/2 이상과 2/3 이상을 각각 보수기준으로 제시
- 송영남(2010), 송영남(2011)은 빈곤선의 150% 이상을 괜찮은 일자리, 200% 이상을 좋은 일자리, 그리고 300% 이상을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의하고, 빈곤선의 대리변수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분석
- 방하남·이상호(2006), 홍성우(2008), 장광수·임진 외(2011) 등은 평균임금을 보수의 측정 척도로 활용
- 보수 관련 척도와 기준을 검토한 결과, 국내 임금수준 및 분포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중위임금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중위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조사자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상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중위임금의 1/2은 최저임금을 밑돌 정도로 매우 낮고, 평균임금은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을 웃도는 반면, 중위임금은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과 유사
- 또한 별도로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해 괜찮은 일자리와 구분
-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의미
-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sup>40</sup> 이상~중위수 임금 미만’으로 정의
-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분석을 통해 향후 일자리 정책 시행 시 어느 업종에서 이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 가능한지 파악 가능

39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5(1): 1~42

40 최저임금 월급여 = 최저임금(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전국 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절반 수준을 소폭 상회**

- 2013년 전국에서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종사자 비중은 53.4%(전국 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은 180만원으로 평균임금의 약 83.1%,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각각 약 1.8배, 1.4배 수준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16.6만원,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01.6만원<sup>41</sup>, 3인 가족<sup>42</sup>의 최저생계비는 126만원 수준
- 한편, 2013년 전국 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이상이지만 중위임금 미만을 받는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6.2%



**그림 2-2 관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임금 기준**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013, 보건복지부 ; 최저임금, 2013, 최저임금 위원회

-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은 2012년 이후 18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2009년 78.8만원에서 2013년 101.6만원으로 상승

41 최저시급 4,860원,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42 한국복지패널조사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가구원수는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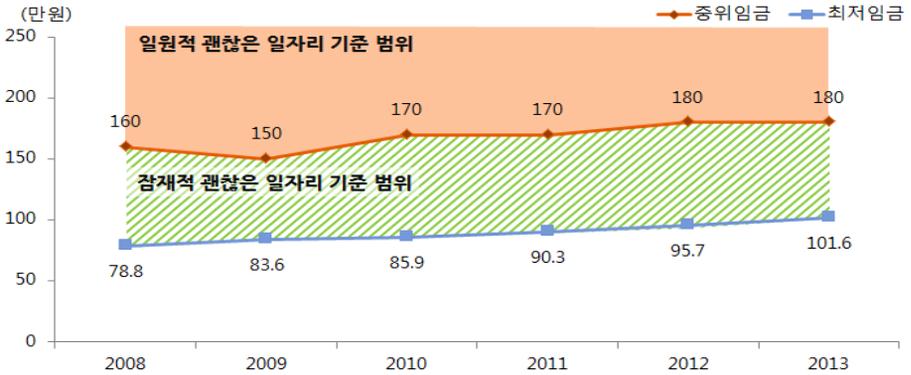


그림 2-3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기준 범위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최저임금, 각 연도, 최저임금 위원회

표 2-6 전국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중위임금, 평균임금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최저임금	중위임금	평균임금
2008	78.8	160	195.1
2009	83.6	150	192.9
2010	85.9	170	202.8
2011	90.3	170	201.3
2012	95.7	180	211.1
2013	101.6	180	216.6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최저임금, 각 연도, 최저임금 위원회

- 2011년 이후 전국 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전국에서 차지하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011년 50.7%에서 2012년 51.3%, 2013년 53.4%로 확대
- 2013년 전국의 임금근로자와 중위임금 이상 임금근로자 수는 각각 총 17,998,419명과 9,602,762명

- 2013년 전국 내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6.2%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 대비 7.8%p나 축소
- 전국 내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 2010년 35.9% → 2011년 34.2% → 2012년 34.0% → 2013년 26.2%
- 2013년 전국에서 최저임금 이상, 중위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임금 근로자수는 4,710,0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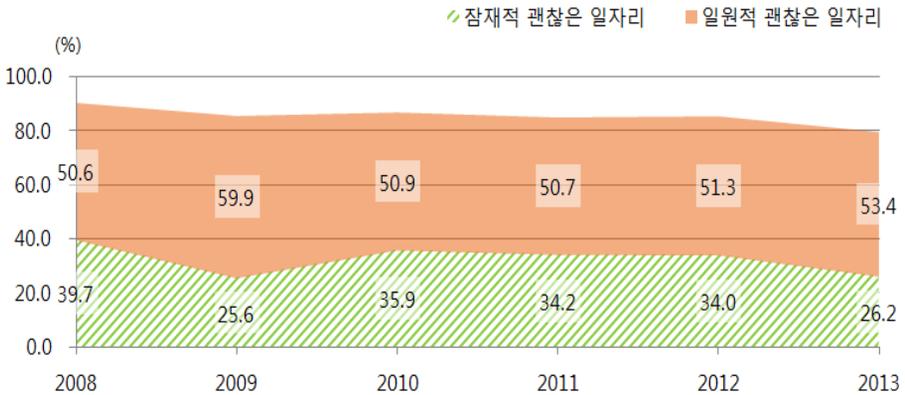


그림 2-4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최저임금, 각 연도, 최저임금 위원회

- 이러한 결과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임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이면에 최저임금 미만의 나쁜 일자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2008~2013년 중 전국 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증가세가 가장 높은 편
- 2008~2013년 중 일자리별 연평균 증가율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4.3%,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5.1%,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19.8%

2.4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측정기준

2.4.1 보수 측면

- 보수는 일원적 관점은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측정변수로 활용하고 측정기준도 동일
- 보수 측면에서 본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조건은 ‘전국 임금근로자 기준 중위임금 이상’

2.4.2 적정 근로시간 측면

- 적정 근로시간은 일과 삶의 조화, 근무조건 등을 반영하는 변수로 주당 근로시간을 측정변수로 활용
- 적정 근로시간의 측정기준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로 설정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적정 근로시간은 19시간~49시간, 36시간~평균 근로시간 등 다양<sup>43</sup>
- 이 연구에서 적정 근로시간의 상한선은 Anker(2003)가 제시한 주당 49시간으로 설정
- 적정 근로시간의 하한선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하한기준인 주 15시간으로 설정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하한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즉, 주 15시간 이상으로 규정
- 서울수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중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 비중은 71.2%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71.2%인 12,820,318명의 근로자가 관점은 일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영위

43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3.8시간이며, 중위수는 40시간



그림 2-5 관참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o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의 주당 근로를 하는 일자리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답보상태 유지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인 일자리는 전국기준으로 2008~2010년 중 약 64%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71% 대의 비중을 유지
- 2008~2013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인 일자리는 2008년 9,893,917명에서 2013년 12,820,318명으로 연평균 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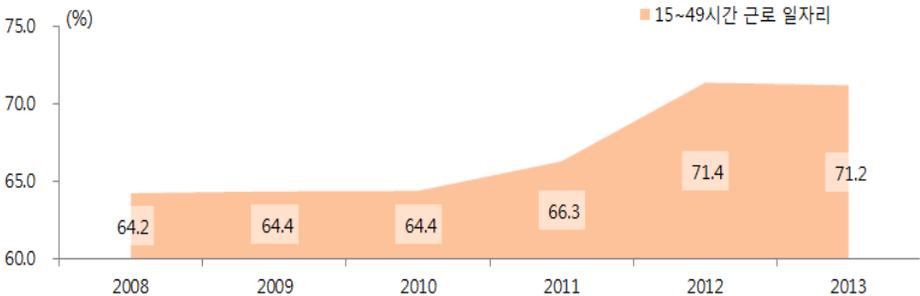


그림 2-6 적정 근로시간 범위에 해당하는 전국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주당 근로시간 감소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6.6시간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엔 43.8시간으로 2.8시간 감소
- 중위 근로시간으로 보아도 2011년까지 45시간이던 중위 근로시간이 2012년 40시간으로 5시간이나 감소한 후 2013년까지 유지
- 이는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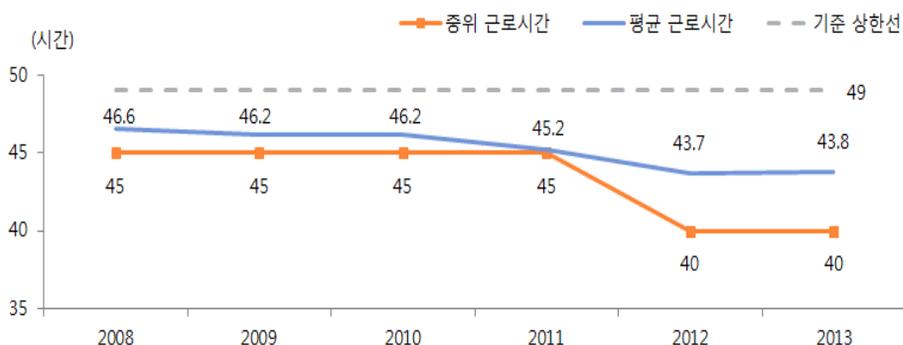


그림 2-7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 및 평균 근로시간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4.3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 여부 측면

- 고용안정성을 보는 주된 변수이면서 보조적으로 사회보장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로 '상용종사자 여부'를 활용
- 고용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임시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또는 정규직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
- 사회보장 여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보는 것이 좋지만, 자료집합의 한계<sup>44</sup>로 상용종사자 여

<sup>44</sup>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사회보장 여부는 2013년 부가조사로만 파악이 가능하여 활용에 한계

부로 간접적으로 파악

- 이는 상용종사자의 대부분이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2013년 상용종사자의 97.5%가 국민연금(또는 특수직가입연금), 99.98%는 건강보험에 가입<sup>45</sup>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11,486,359명이 상용직 근로자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63.8% 수준이며, 임시직이 27.1%, 일용직이 9.1%를 차지



그림 2-8 관참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종사상 지위 기준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전국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1년까지 확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전년 대비 4.8%p 축소 후 2013년에 다시 반등
- 전국의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1년 67.8%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63.0%로 감소했지만 2013년에 다시 반등
- 2008~2013년 중 상용직 근로자는 연평균 2.9% 증가했지만, 전체 임금종사자 증가율(3.2%)을 밑돌면서 상용직 비중이 감소
- 즉, 전체 임금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이를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보다 임시직의 증가속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
- 2008~2013년 중 종사상 지위별 연평균 증가율 : 상용직 2.9%, 임시직 5.8%, 일용직 -1.6%

45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 2013,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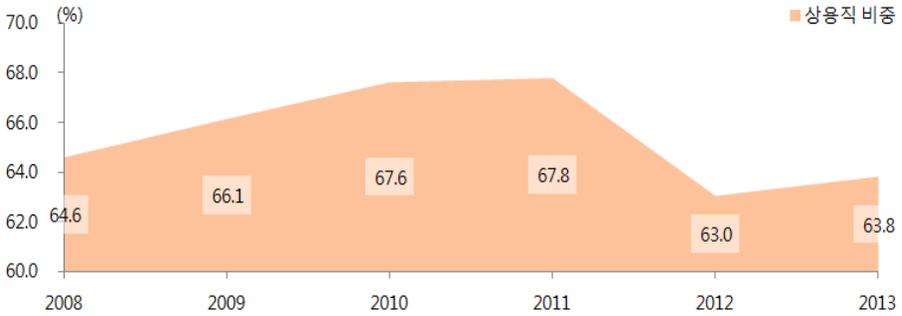


그림 2-9 전국 임금종사자의 상용직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4.4 직업의 사회적 평판 측면

- 직업의 사회적 평판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활용
  -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의 표준화 값이 0 이상이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
  - 이러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는 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방하남·이상호(2006), 홍성우(2011) 등이 Ganzeboom 외(1992)<sup>46</sup>의 국제 사회·경제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를 활용
  - 노동패널 등에서 제공하는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시·도별 표본규모 등으로 활용에 한계
- 이 연구에서도 Ganzeboom 외(1992)의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점수(SEI)를 2008년 ILO기준으로 변환한 사회·경제적 위세점수(SEI)<sup>47</sup>를 국내 직업분류에 적용하여 일자리의 직업별 위세 점수를 산출

<sup>46</sup> Ganzeboom, Harry B. G., Paul M. De Graaf and Donald J. Treiman,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1~56.

<sup>47</sup> Ganzeboom, Harry B.G.; Treiman, Donald J.,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File : Conversion Tools.” Amsterdam : Department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http://www.harryganzeboom.nl/ismf/index.htm>. <Date of last revision>.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 따른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점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 표준직업분류코드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
- 통계청의 국제·국내 표준직업분류 연계표를 활용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코드(중분류)에 맞춰 세분류 기준 사회·경제적 위세점수를 국내 고용구조 반영을 위해 직업분류별 종사자수로 가중평균<sup>48</sup>
- 산출된 직업분류(중분류)별 사회·경제적 위세점수를 표준화
- 표준화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점수의 평균 점수(0) 이상을 괜찮은 일자리 조건으로 설정

표 2-7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회·경제적 위세지수의 표준화 값이 0 이상인 중분류 항목

중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표준화 지수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94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81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70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67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63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60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1.58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9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39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26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12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10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08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0.68
51	영업직	0.65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0.48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0.42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0.23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0.09

자료 : 한국표준직업분류, 2013, 통계청

Ganzeboom, Harry B.G.; Treiman, Donald J.,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File: Conversion Tools." Amsterdam: Department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http://www.harryganzeboom.nl/ismf/index.htm>.

<sup>48</sup> 국내 직업분류별 종사자수는 소분류가 최소단위이므로 세분류에서 소분류는 산술평균, 소분류에서 분류는 가중평균을 적용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49.2%가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로 볼 때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8,859,931명은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수준 이상인 일자리에 종사
- 표준화지수 0 이상~0.5 미만의 직업에 22.1%, 0.5 이상~1 미만의 직업에 3.2%, 1 이상의 직업에 23.9%의 임금근로자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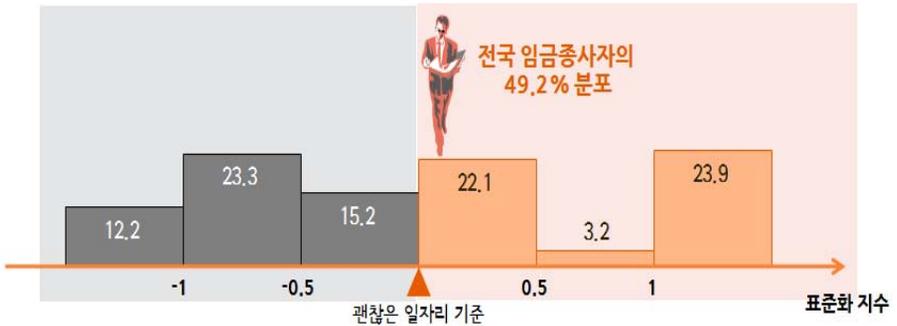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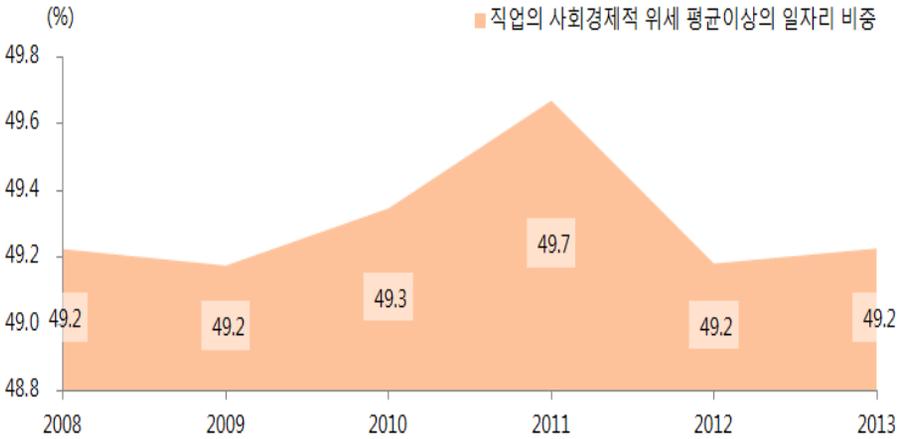


그림 2-10 괜찮은 일자리 선별을 위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기준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3, 통계청

Ganzeboom, Harry B.G.; Treiman, Donald J.,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File: Conversion Tools." Amsterdam: Department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http://www.harryganzeboom.nl/ismf/index.htm>.

-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8년 이후 49% 대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는 편
- 2008~2013년 중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일자리는 연평균 3.2% 증가
- 그러나 2008~2013년 중 직업의 사회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임금근로자 비중의 최고치(49.7%)와 최저치(49.2%)의 차이가 0.5%p로 다른 기준에 비해 변동폭이 작은 편



**그림 2-11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3, 통계청

Ganzeboom, Harry B.G.; Treiman, Donald J.,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File: Conversion Tools." Amsterdam: Department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http://www.harryganzeboom.nl/ismf/index.htm>.

### III 서울시 관찰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 1 조사개요
- 2 주요 조사결과
- 3 관찰은 일자리 주요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4 관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요

### III 서울시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관찮은 일자리<sup>49</sup>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관찮은 일자리 조건에 대한 적합도, 관찮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파악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4년 4월 29일~6월 4일 중 조사원을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일반시민과 전문가로 나누어 조사
  - 일반시민 조사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성, 연령, 학력, 취업유무 등에 따른 모집단을 확보하고 인구비례할당에 의해 500명의 표본 설계
  - 전문가 조사 : 노동, 직업관련 분야의 전문가 57명을 설문조사

표 3-1 일반인 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500	100.0
성별	남자	240	48.0
	여자	260	52.0
연령	20대	113	22.6
	30대	129	25.8
	40대	120	24.0
	50대	103	20.6
	60대	35	7.0
학력	고졸 이하	83	16.6
	대졸	363	72.6
	대학원졸 이상	54	10.8
취업 유무	취업자	320	64.0
	미취업자	180	36.0

<sup>49</sup> 설문에서는 관찮은 일자리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시민에게 친숙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용어로 질문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측정기준 등의 개념은 관찮은 일자리와 동일하게 제시됨

## 주요 조사결과

### 2.1 일반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 조건

#### 2.1.1 희망하는 임금수준

- 서울시민 500명에 대해 희망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5,0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중이 30.6%로 가장 높음
- 그다음은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4.2%),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22.8%),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3.6%) 등의 순

표 3-2 일반시민의 희망 임금수준

		(단위 : %)				
구분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전체		8.8	22.8	24.2	13.6	30.6
성별	남자	4.2	14.6	18.3	16.7	46.3
	여자	13.1	30.4	29.6	10.8	16.2
연령	20대	2.7	32.7	31.9	14.2	18.6
	30대	7.0	19.4	27.1	20.2	26.4
	40대	9.2	18.3	18.3	9.2	45.0
	50대	14.6	19.4	22.3	11.7	32.0
	60대	17.1	28.6	14.3	8.6	31.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9	37.3	14.5	13.3	12.0
	대졸	6.1	22.0	28.1	12.4	31.4
	대학원졸 이상	5.6	5.6	13.0	22.2	53.7
취업 유무	취업자	4.7	18.8	19.7	17.8	39.1
	미취업자	16.1	30.0	32.2	6.1	15.6

- 속성별로 보면, 희망 임금수준은 여성과 미취업자,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희망 임금수준을 2,0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이 남성은 4.2%인 반면, 여성은 13.1%에 달하고,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각각 6.1%, 5.6%인 반면, 고졸 이하는 22.9% 수준
- 이는 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라도 원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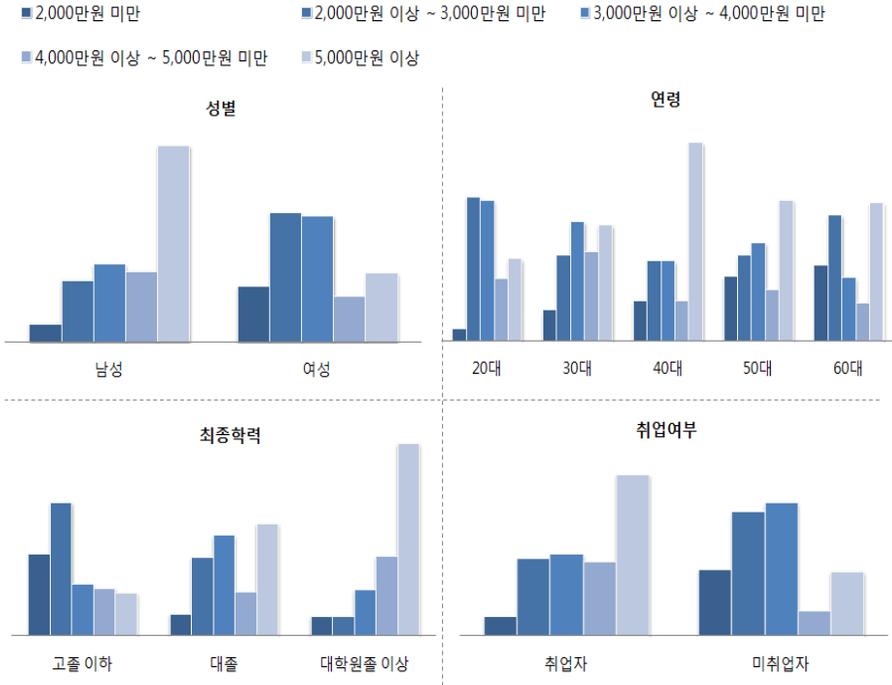


그림 3-1 일반시민의 속성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 2.1.2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 o 시민들이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이 대다수를 차지
- 희망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상~60시간 미만(80.0%), 3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4%), 30시간 미만(4.6%), 60시간 이상(2.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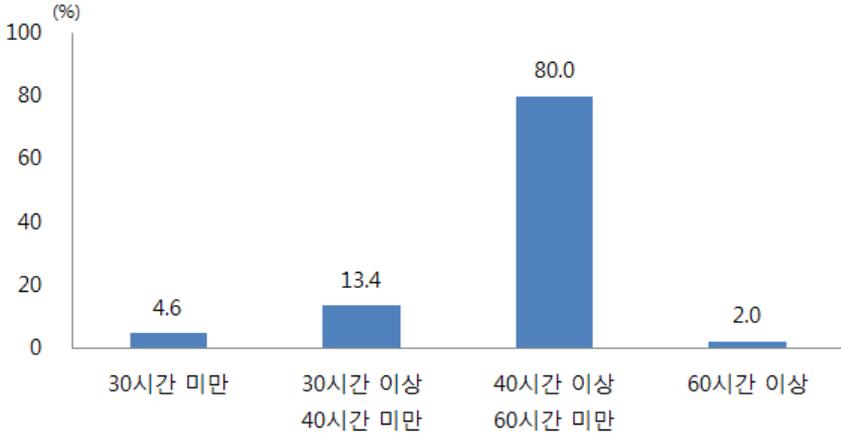


그림 3-2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2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 2.2.1 관찮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

- 일반적으로 관찮은 일자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적 조건<sup>50</sup>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 임금,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
-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보면, 고용안정성이 4.75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적정임금 4.68점, 4대보험 유무 4.28점, 근로시간 적정성 4.12점, 쾌적·안전한 근로환경 3.98점 순으로 조사
-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일을 통한 개인의 발전, 근로환경보다 생활과 직결된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유무 등을 중시

50 일반적 조건은 1) 적절한 임금(소득) 수준, 2)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3) 근로시간의 적정성,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5) 해당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6)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9)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10) 원활한 노사관계 등

표 3-3 관청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전문가조사)

(단위 : %,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점 [5점 만점]
적정한 임금(소득) 수준	0.0	0.0	0.0	31.6	68.4	4.68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0.0	0.0	1.8	21.1	77.2	4.75
근로시간의 적정성	0.0	1.8	17.5	47.4	33.3	4.12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0.0	0.0	12.3	47.4	40.4	4.28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0.0	26.3	31.6	38.6	3.5	3.19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1.8	5.3	22.8	42.1	28.1	3.89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1.8	5.3	12.3	54.4	26.3	3.9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3.5	12.3	45.6	26.3	12.3	3.32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1.8	1.8	17.5	54.4	24.6	3.98
원활한 노사 관계	5.3	12.3	31.6	43.9	7.0	3.35

- 한편, 일반시민들은 관청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 조건 중 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의 적정성,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근로환경 등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편
-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보면, 적정 임금이 4.55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고용안정성 4.42점, 근로시간 4.29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4.15점, 쾌적·안전한 근로환경 4.14점, 직무의 자율성 및 만족도 4.07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조사와 비교해 평점이 일반시민조사에서는 고용안정성보다 임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특히 전문가조사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쾌적한 근로환경,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일을 통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표 3-4 관찮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인식도(일반시민조사)

(단위 : %,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점 [5점 만점]
적정한 임금(소득)수준	0.2	0.2	1.6	40.0	58.0	4.55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0.0	0.0	5.2	47.2	47.6	4.42
근로시간의 적정성	0.0	1.0	8.2	51.4	39.4	4.29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0.4	2.0	18.4	55.2	24.0	4.00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1.4	9.8	42.0	39.2	7.6	3.42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0.2	0.8	20.4	49.4	29.2	4.07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0.0	0.8	12.4	58.4	28.4	4.14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0.0	1.2	16.4	48.8	33.6	4.15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0.2	1.4	22.2	50.6	25.6	4.00
원활한 노사 관계	0.6	1.6	19.4	57.6	20.8	3.96

- 관찮은 일자리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도 전문가들은 고용안정성을, 일반시민들은 임금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차별화
- 전문가들은 관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로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45.6%)를 가장 많이 선택
- 그다음에 적정한 임금수준이 40.4%를 차지하고,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가 7.0%, 근로시간의 적정성이 5.3%를 차지
- 이에 비해 일반시민들은 관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로 적정한 임금수준(51.4%)을 가장 많이 선정
- 그다음에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가 24.0%에 달하고, 근로시간의 적정성이 9.0%,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가 5.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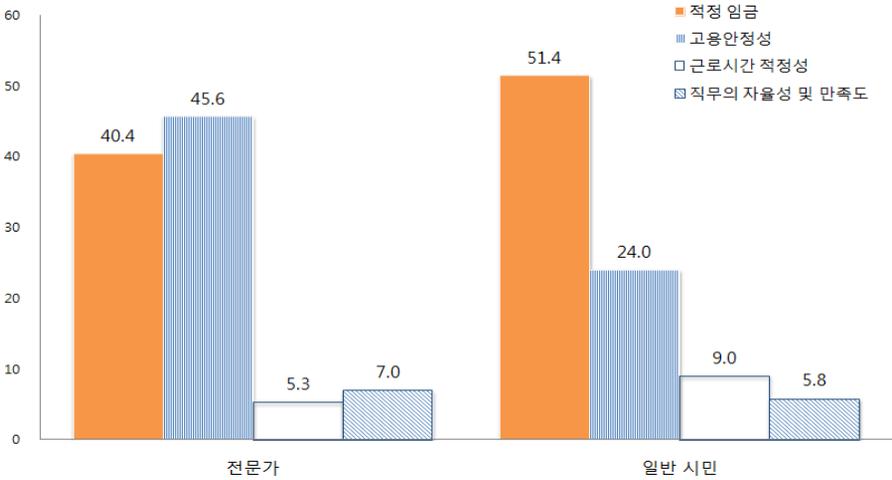


그림 3-3 관청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1순위 조건

## 2.2.2 관청은 일자리 주요 조건의 인식 수준

- 관청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임금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전문가는 월평균 259만원, 일반시민은 월평균 301만원으로 인식
-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 월평균 최소 임금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0.9%, 32.8%로 가장 높음
- 그다음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전문가 24.6%, 일반시민 27.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전문가 14.0%, 일반시민 17.2%) 등의 순으로 응답
- 일반시민의 응답빈도를 속성별로 보면, 여성, 50~60대, 고졸 이하, 미취업자 등에서 월평균 최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
- 특히 고졸 이하에서는 월평균 최소 임금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응답비율이 38.6%로 가장 높은 편
- 또한 여성, 60대, 미취업자 등에서도 월평균 최소 임금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응답비율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다음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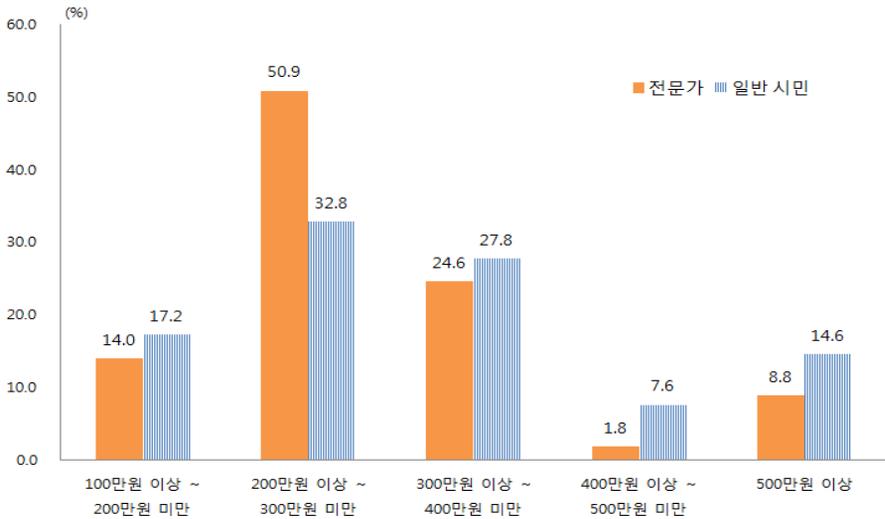


그림 3-4 관참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최소 임금수준

표 3-5 관참은 일자리에 대한 최소 임금(소득) 수준

(단위 : %)

구분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17.2	32.8	27.8	7.6	14.6
성별					
남성	8.3	23.8	32.5	9.6	25.8
여성	25.4	41.2	23.5	5.8	4.2
연령					
20대	17.7	42.5	24.8	7.1	8.0
30대	12.4	36.4	32.6	6.2	12.4
40대	16.7	23.3	31.7	10.0	18.3
50대	21.4	26.2	23.3	6.8	22.3
60대	22.9	40.0	20.0	8.6	8.6
최종학력					
고졸 이하	38.6	32.5	16.9	6.0	6.0
대졸	13.8	35.0	29.2	8.0	14.0
대학원졸 이상	7.4	18.5	35.2	7.4	31.5
취업 유무					
취업자	10.3	27.8	33.8	8.4	19.7
미취업자	29.4	41.7	17.2	6.1	5.6

-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은 모두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적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으로 인식
- 전문가들의 경우 최소 적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43.9%로 가장 많고, 최대 적정 근로시간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61.4%로 가장 많음
- 최소 적정 근로시간 응답과 최대 적정 근로시간 응답을 각각 평균한 적정 근로시간은 34시간 이상~47시간 이하
- 일반시민들의 최소 적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63.6%로 가장 많고, 최대 적정 근로시간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60.4%로 가장 많음
- 최소 적정 근로시간 응답과 최대 적정 근로시간 응답을 각각 평균한 적정 근로시간은 38시간 이상 ~ 45시간 이하

표 3-6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최소·최대 적정 근로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문가	~ 이상	17.5	38.6	43.9	0.0	0.0	34
	~ 이하	0.0	1.8	61.4	31.6	5.3	47
일반시민	~ 이상	6.0	28.0	63.6	2.2	0.2	38
	~ 이하	0.2	7.2	60.4	28.6	3.6	45

-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종사자상 지위가 상용직이어야 한다고 대다수가 응답
-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상용직 응답비율은 각각 98.2%, 97.4% 수준
- 또한 정년연령은 평균적으로 전문가는 62세, 일반시민은 63세로 나타나 60대 초반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
- 전문가의 정년연령 응답비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이 50.9%로, 일반인은 65세 이상~70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음

표 3-7 관청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고용안정성 조건

(단위 : %, 세)

구분	종사상 지위			정년연령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6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평균 (연령)
전문가	98.2	1.8	0.0	12.3	50.9	31.6	5.3	0.0	62
일반인	97.4	2.6	0.0	8.8	38.0	42.4	9.2	1.6	63

- 전문가 및 일반시민 모두 관청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98.2%, 87.4%로 대다수를 차지
- 다만, 일반시민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비율이 9.4%로 전문가(1.8%)보다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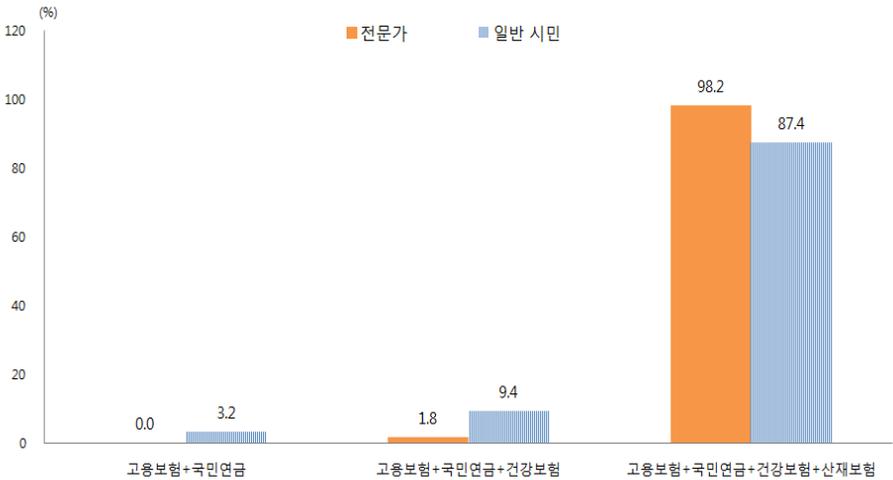


그림 3-5 관청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사회보험 여부

- 전문가 및 일반시민 모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은 보통 수준이 약 56%로 높았으나, 전문가에 비해 일반시민들에게서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이 좋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일반시민의 경우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이 좋거나 매우 좋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2%로 전문가 응답비율(26.4%)을 크게 상회
- 특히 일반시민 중에서도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이 좋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3.7%에 달하고, 연령별로는 50~60대 연령층에서 좋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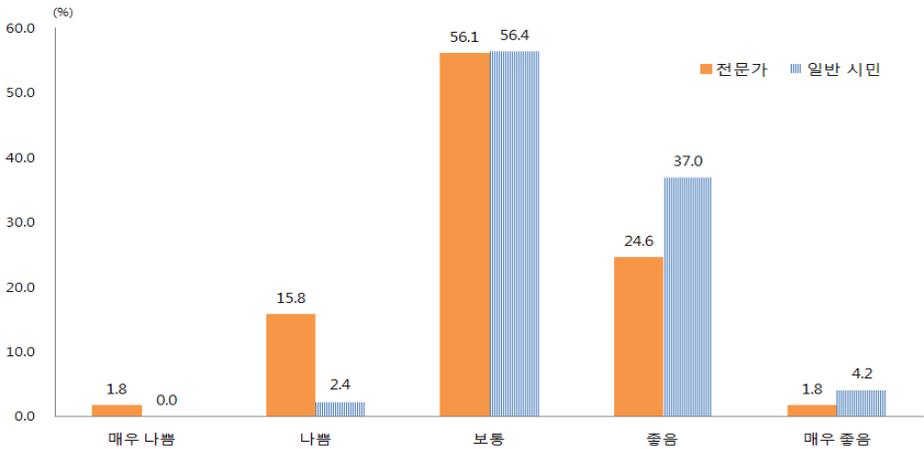


그림 3-6 관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 수준

표 3-8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관찮은 일자리 평균 수준

구분	전문가	일반시민
적정 임금수준	259만원	301만원
적정 근로시간	34시간 이상~47시간 이하	38시간 이상~45시간 이하
종사자 지위	상용직	상용직
정년 연령	62세	63세
사회보험	4대 보험	4대 보험
사회적 평판 및 인식 수준	보통	보통

### 2.3 관청은 일자리 주요 조건에 대한 동의 수준

- 관청은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월 평균 임금수준을 전국 중위임금 수준 (180만원)<sup>51</sup> 이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비율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에서 각각 59.7%, 48.0% 수준
-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이 보통,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에서 각각 40.4%, 52.0% 수준
-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경우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이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비율은 각각 26.4%, 16.8%
- 일반시민을 속성별로 보면, 남성, 대학원졸 이상, 취업자들보다는 여성, 고졸 이하와 대졸, 미취업자에서 월 평균 180만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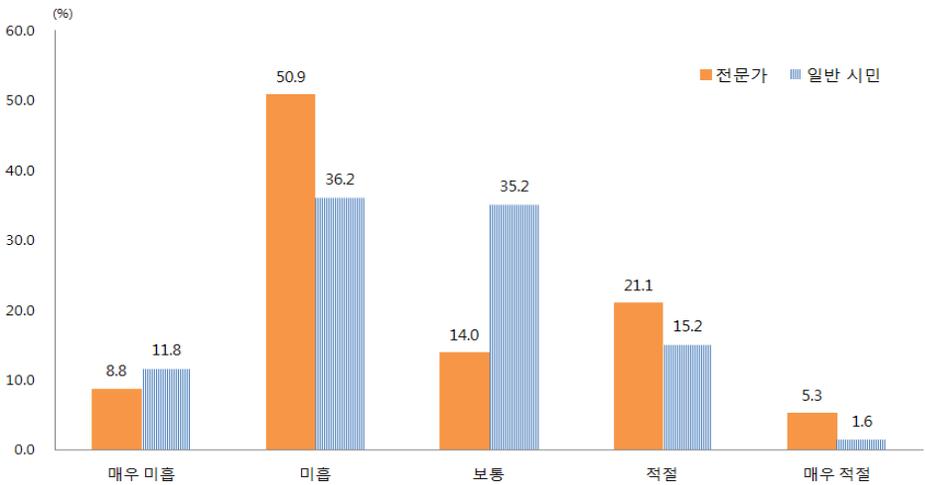


그림 3-7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에 대한 적절성

51 월 평균 임금 180만원은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수준이며,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102만원, 3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약 126만원이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관청은 일자리의 임금조건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임

표 3-9 월 평균 임금수준 180만원 이상에 대한 일반시민 응답비율

(단위 : %)

구분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체	11.8	36.2	35.2	15.2	1.6	
성별	남성	13.8	42.5	32.9	9.2	1.7
	여성	10.0	30.4	37.3	20.8	1.5
연령	20대	15.0	31.9	41.6	9.7	1.8
	30대	12.4	35.7	36.4	14.7	0.8
	40대	12.5	39.2	30.0	16.7	1.7
	50대	8.7	38.8	35.9	15.5	1.0
	60대	5.7	34.3	25.7	28.6	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3.6	37.3	38.6	18.1	2.4
	대졸	13.8	35.3	35.3	14.9	0.8
	대학원졸 이상	11.1	40.7	29.6	13.0	5.6
취업 유무	취업자	14.1	39.7	31.9	13.1	1.3
	미취업자	7.8	30.0	41.1	18.9	2.2

- 고용안정성을 상용직 여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78.9%, 54.4%로 가장 많음
-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각각 8.8%, 10.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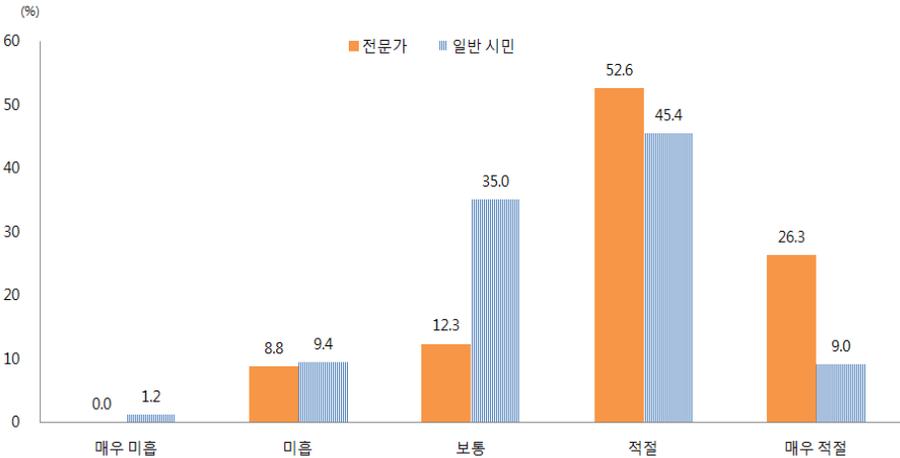


그림 3-8 상용직 여부에 대한 적절성

- 사회보험 여부를 4대 보험 가입여부로 보는 것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모두 적합 또는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각각 75.5%, 69.2%로 높음
-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비율은 전문가 5.3%, 일반시민 5.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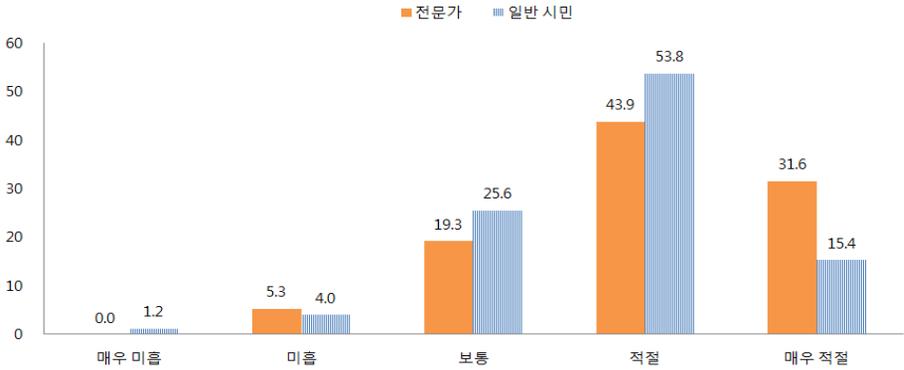


그림 3-9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적절성

- 주당 적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로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모두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40.4%, 53.8%로 높음
- 다만, 전문가 중에서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비율도 31.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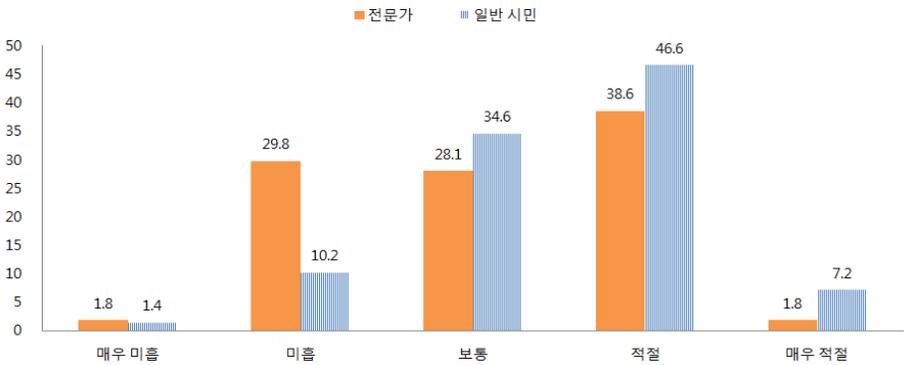


그림 3-10 주당 적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에 대한 적절성

- 사회·경제적 위세로 직업에 대한 평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40.4%, 일반시민 56.6%로 가장 많고, 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일반시민 각각 29.8%, 33.2%를 차지
- 다만, 일반시민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비율이 10.2%로 낮은 반면, 전문가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도 29.8%로 높은 편
- 특히 일반시민은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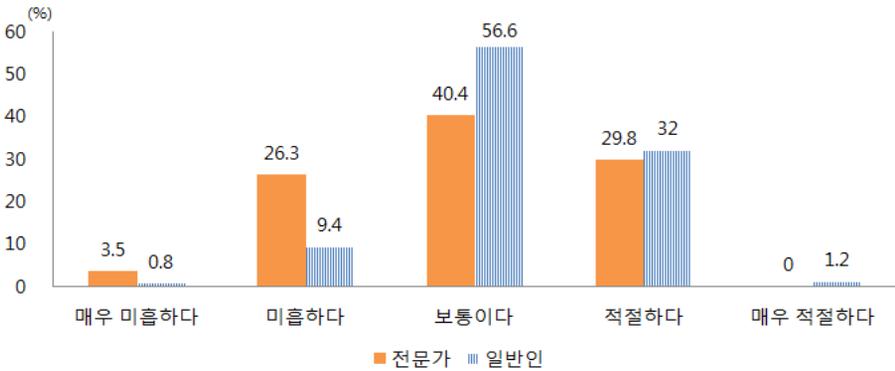


그림 3-11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에 대한 적절성

표 3-10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에 대한 일반시민 응답비율

구분		(단위 : %)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체		0.8	9.4	56.6	32.0	1.2
성별	남자	0.8	10.0	59.2	28.3	1.7
	여자	0.8	8.8	54.2	35.4	0.8
연령	20대	2.7	11.5	58.4	26.5	0.9
	30대	0.8	8.5	60.5	28.7	1.6
	40대	0.0	11.7	58.3	28.3	1.7
	50대	0.0	4.9	52.4	42.7	0.0
	60대	0.0	11.4	42.9	42.9	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	4.8	63.9	28.9	2.4
	대졸	1.1	9.9	56.5	31.7	0.8
	대학원졸 이상	0.0	13.0	46.3	38.9	1.9
취업 유무	취업자	0.3	9.4	56.3	32.5	1.6
	미취업자	1.7	9.4	57.2	31.1	0.6

## 3.1 AHP

- 관찮은 일자리를 선별하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험 유무,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 주요 5가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
- AHP는 가중치 산정법으로 관찮은 일자리의 5가지 주요 요인을 상호 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정
- 이를 위해서는 설문을 정확한 구간척도로 디자인한 후 설문결과에 기하평균을 내서 각 쌍대 비교값을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결과를 모아서 응답자료를 정규화한 후 주요 요인별로 중요도를 산출

**〈참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 AHP는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서 평가기준과 대안을 계층적인 구조로 파악하여 최적 대안, 즉 최적 가중치를 선택하는 방법
- AHP는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대안 및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중요도를 도출
-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의 중요도가 되는 쌍대비교 행렬의 고유벡터와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일관성 비율이라는 주요 특징을 가짐
- AHP를 활용한 가중치 산정은 일종의 행렬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5개 요소를 상호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정

- 주요 요인의 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전문가 57명의 응답결과를 기하평균을 내서 5×5 행렬화
- 5×5 쌍대비교 행렬에서 자신과의 비교는 1이 되고, 반대방향 비교는 역수화
- 주요 요인별 열에 대한 합계를 구한 후, 각 요인 값을 열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행렬의 행 합을 구하여 중요도를 산출
- 분석결과, 고용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임금, 적정 근로시간, 사회보험 유무, 직업의 사회적 평판 순으로 중요
- 임金的 중요도는 0.298, 고용안정성의 중요도는 0.345, 적정 근로시간의 중요도는 0.144, 사회보험 유무의 중요도는 0.140, 직업의 사회적 평판의 중요도는 0.072

표 3-11 요인별 상대평가 행렬

(단위 : 점)

구분	임금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사회보험 유무	사회적 평판
임금	1	0.878	2.292	2.163	3.690
고용안정성	1.139	1	2.561	2.718	4.149
적정 근로시간	0.436	0.390	1	1.082	2.282
사회보험 유무	0.462	0.368	0.924	1	2.292
사회적 평판	0.271	0.241	0.438	0.436	1
합계	3.309	2.877	7.216	7.399	13.412

표 3-12 요인별 상대평가 표준행렬

(단위 : 점)

구분	임금	고용안정성	적정근로시간	사회보험유무	사회적 평판	중요도
임금	0.302	0.305	0.318	0.292	0.275	0.298
고용안정성	0.344	0.348	0.355	0.367	0.309	0.345
적정 근로시간	0.132	0.136	0.139	0.146	0.170	0.144
사회보험 유무	0.140	0.128	0.128	0.135	0.171	0.140
사회적 평판	0.082	0.084	0.061	0.059	0.075	0.072
합계(Sj)	1.0	1.0	1.0	1.0	1.0	1.0

**일관성 분석**

-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통해 비교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하였는지를 검증
- 응답자가 논리적 모순을 유발하게 되면 CI값은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CI값이 0.1 미만이면 신뢰
- 일관성 검증 결과, 이 조사의 결과치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CI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평가 행렬에 요인별 중요도를 곱한 후 행의 값을 모두 더하여 새로운 팩터(factor) 행렬을 작성
- 새롭게 생성된 팩터 행렬에 팩터별 중요도를 나눈 후, 산출된 일관성 비율을 통해 CI 값을 계산
- $CI = 0.0053 < 0.1$ 로 이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표 3-13 일관성 검증 행렬**

(단위 : 점)

구분	임금	고용 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사회보험 유무	사회적 평판	중요도	factor
임금	0.302	0.305	0.318	0.292	0.275	0.298	1.50
고용안정성	0.344	0.348	0.355	0.367	0.309	0.345	1.74
적정 근로시간	0.132	0.136	0.139	0.146	0.170	0.144	0.73
사회보험 유무	0.140	0.128	0.128	0.135	0.171	0.140	0.70
사회적 평판	0.082	0.084	0.061	0.059	0.075	0.072	0.36

**표 3-14 일관성 비율**

(단위 : 점)

구분	factor	factor 중요도	일관성 비율
임금	1.50	0.298	5.030
고용안정성	1.74	0.345	5.033
적정 근로시간	0.73	0.144	5.020
사회보험 유무	0.70	0.140	5.014
사회적 평판	0.36	0.072	5.008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요

###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인식

- 중앙정부가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 정책적 노력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89.5%, 일반시민 61.2%
- 그러나 전문가에 비해 일반시민의 평가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정책적 노력이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는 10.5%로 적은 반면, 일반시민은 30.8%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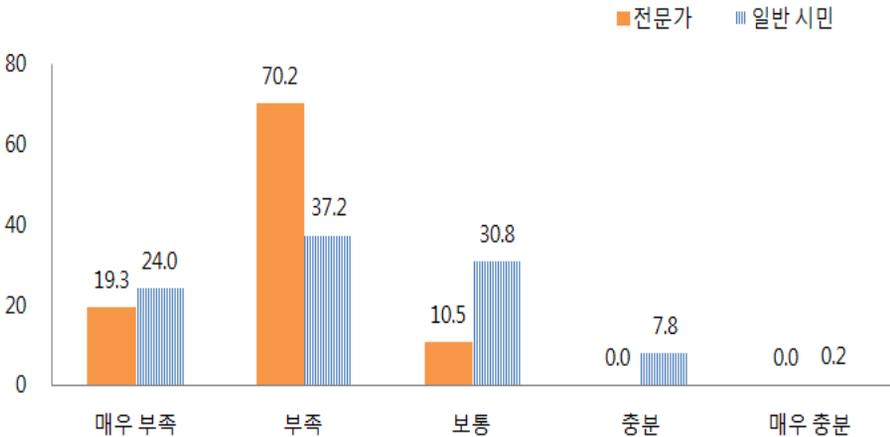


그림 3-12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 여부

- 서울시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일반시민은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편
- 정책적 노력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을 보면, 전문가 59.6%, 일반시민 48.2% 수준

- 전문가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보통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36.8%로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특히 일반시민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이 40.6%로 가장 높음
- 정책적 노력이 충분 또는 매우 충분하다는 의견도 11.2%로 중앙정부보다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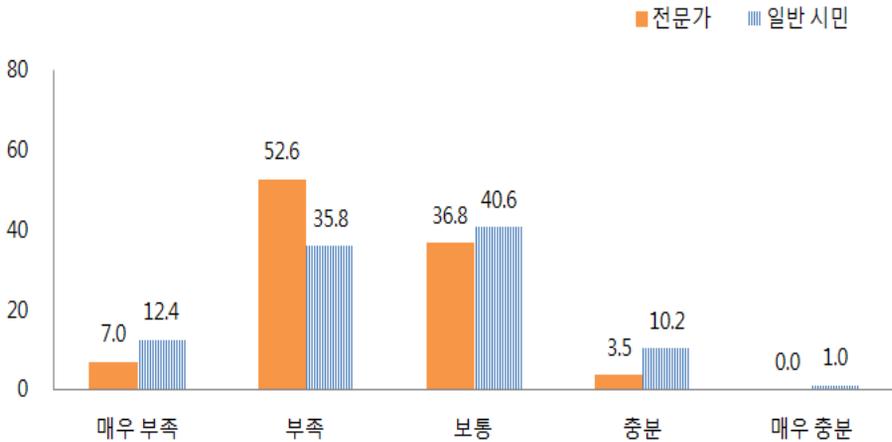


그림 3-13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여부

#### 4.2 향후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수요

- 전문가가 향후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적
-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의 1순위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35.1%로 가장 높음
- 그다음은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 강화(15.8%),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14.0%), 첨단 융복합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12.3%),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5.3%), 공공사회 서비스분야의 근로여건 개선(7.0%) 등의 순

- 일반시민의 관측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수요도 전문가와 유사
- 관측은 일자리 확대 정책의 1순위는 전문가와 동일하게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30.4%)
- 그다음은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 강화(21.6%), 근로자의 과잉 근로시간 단축 유도(10.0%),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8.4%),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여건 개선(8.2%),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7.0%) 등의 순
- 이러한 정책수요 결과는 양질 일자리 주요 요인 중 우선순위가 높았던 고용안정성 및 적절한 임금과 일맥상통
- 즉,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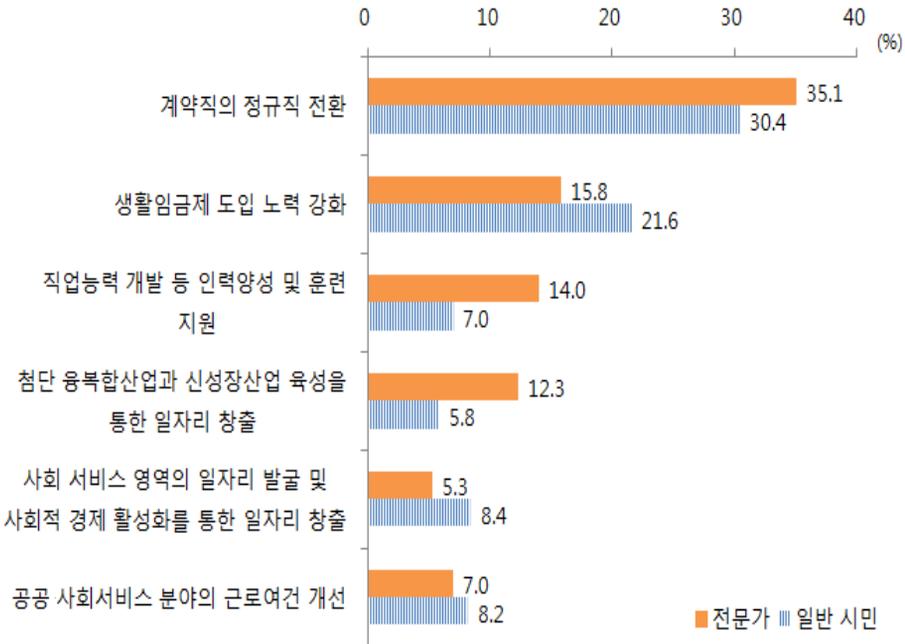


그림 3-14 향후 서울시 관측은 일자리 확대 정책의 1순위 사업

## IV 서울시 관찰은 일자리 실태 분석

- 1 일원적 관찰은 일자리 실태
- 2 다원적 관찰은 일자리 실태
- 3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추이

# IV 서울시 관참은 일자리 실태 분석

## 1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실태

### 1.1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규모와 추이

#### 1.1.1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규모

- 2013년 서울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2,761,5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적
- 2013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28.8%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은 경기(21.9%), 경남(6.5%), 부산(5.2%), 인천(5.0%) 등의 순으로 분포
- 특히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전국 내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55.7%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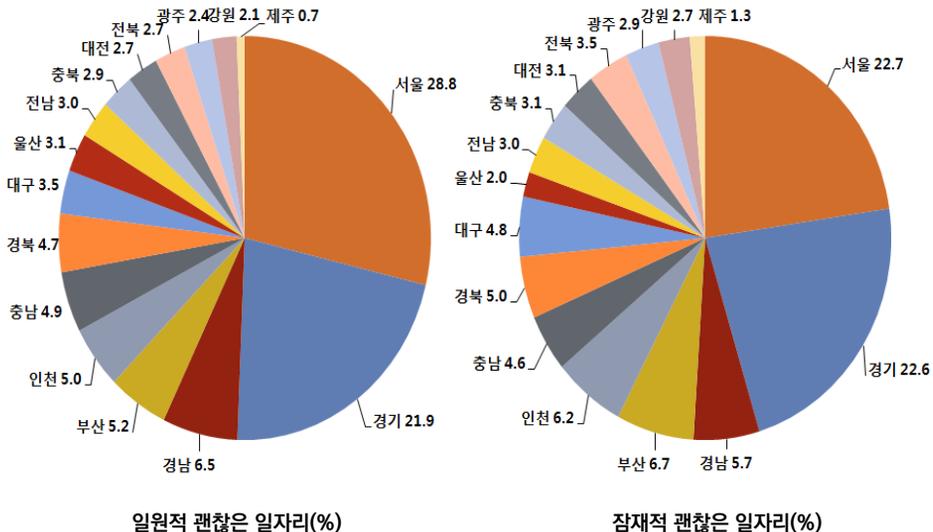


그림 4-1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13년 서울의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1,067,228명이며, 전국 내 비중이 22.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음
-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서울(22.7%), 경기(22.6%), 부산(6.7%), 인천(6.2%), 경남(5.7%)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관참은 일자리와 동일
-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약 51.5% 분포

표 4-1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시·도별 규모

(단위 : 명, %)

구분	일자리 수		시·도별 분포		시·도 내 비중	
	일원적	잠재적	일원적	잠재적	일원적	잠재적
전국	9,602,762	4,710,081	100	100	53.4	26.2
서울	2,761,551	1,067,228	28.8	22.7	60.1	23.2
경기	2,100,201	1,066,509	21.9	22.6	53.2	27.0
경남	627,010	268,719	6.5	5.7	56.0	24.0
부산	500,521	316,639	5.2	6.7	44.1	27.9
인천	483,847	294,341	5.0	6.2	50.9	30.9
충남	467,141	215,262	4.9	4.6	56.4	26.0
경북	449,594	233,767	4.7	5.0	49.9	25.9
대구	334,566	226,302	3.5	4.8	42.5	28.7
울산	296,797	93,514	3.1	2.0	65.3	20.6
전남	288,630	140,635	3.0	3.0	52.3	25.5
충북	274,767	146,649	2.9	3.1	51.1	27.3
대전	258,419	146,107	2.7	3.1	49.6	28.1
전북	256,383	166,723	2.7	3.5	45.7	29.7
광주	232,705	137,646	2.4	2.9	50.2	29.7
강원	203,800	127,456	2.1	2.7	44.1	27.6
제주	66,832	62,584	0.7	1.3	36.1	33.8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13년 각 시·도 내에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이 60.1%로 울산에 이어 2위 수준
- 2013년 각 시·도 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울산(65.3%), 서울(60.1%), 충남(56.4%), 경남(56.0%), 경기(53.2%) 등의 순
- 2013년 서울 내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3.2%이며,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합한 비중이 83.3%로 울산(85.9%)에 이어 2위 수준
- 즉, 서울시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83% 이상은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고,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보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서울의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180만원, 246만원 수준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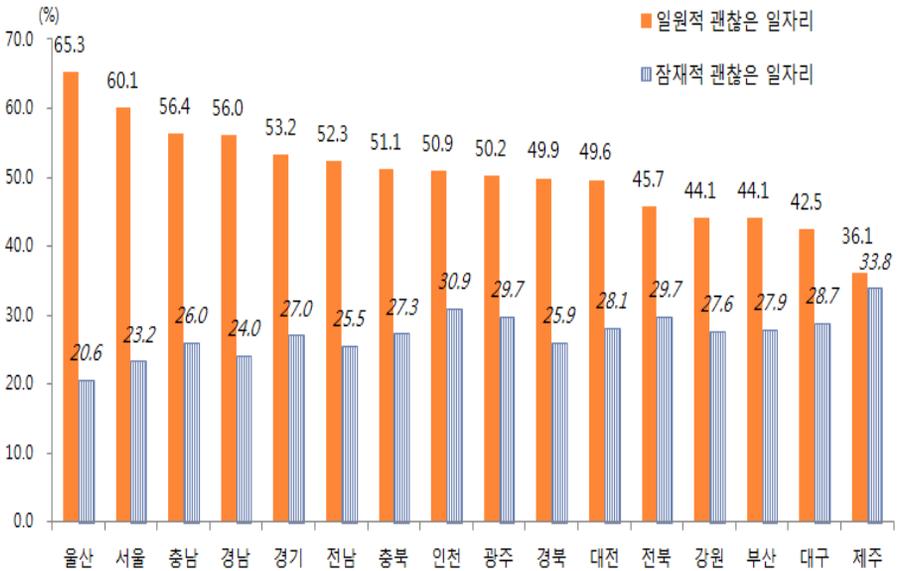


그림 4-2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시·도 내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52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선별 기준인 전국의 중위임금은 180만원, 전국의 평균임금은 217만원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추이

- 서울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2008년 2,320,585명에서 2013년 2,761,551명으로 연평균 3.5% 증가
- 서울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29% 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 28% 대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습
- 2013년 서울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p 확대
- 서울의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2008년 1,403,749명에서 2013년 1,067,228명으로 연평균 5.3% 감소
- 서울의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3.0%에서 2013년 22.7%로 0.3%p 축소
- 이에 비해 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는 2008년 308,710명에서 2013년 765,294명으로 연평균 19.9% 증가
- 이는 최저임금 이상~중위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최저임금 이하와 중위임금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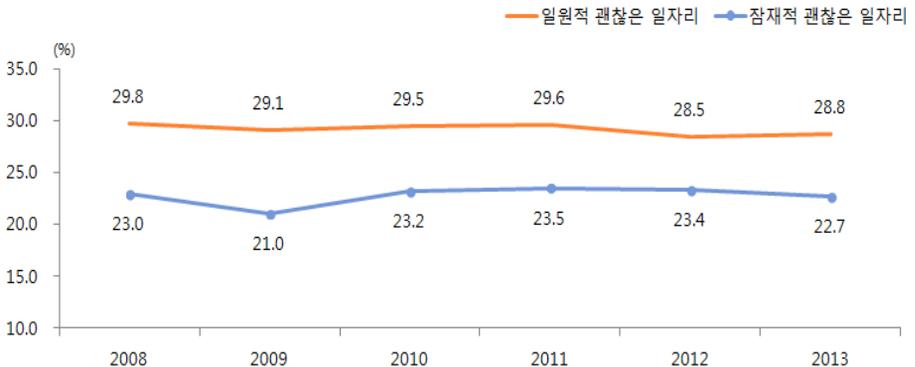


그림 4-3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서울 내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구성 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축소
- 서울 내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2008년 57.5%에서 2009년에 67.9%로 확대된 이후 다시 57% 내외로 하락했으나 2013년에 60.1%로 반등
- 반면, 서울 내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2008년 34.8%에서 2009년 20.9%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다시 30% 내외를 유지했으나, 2013년에 23.2%로 축소되는 등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역행하는 추세
- 서울 내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비중 추이는 전반적으로 전국과 유사한 패턴
- 다만,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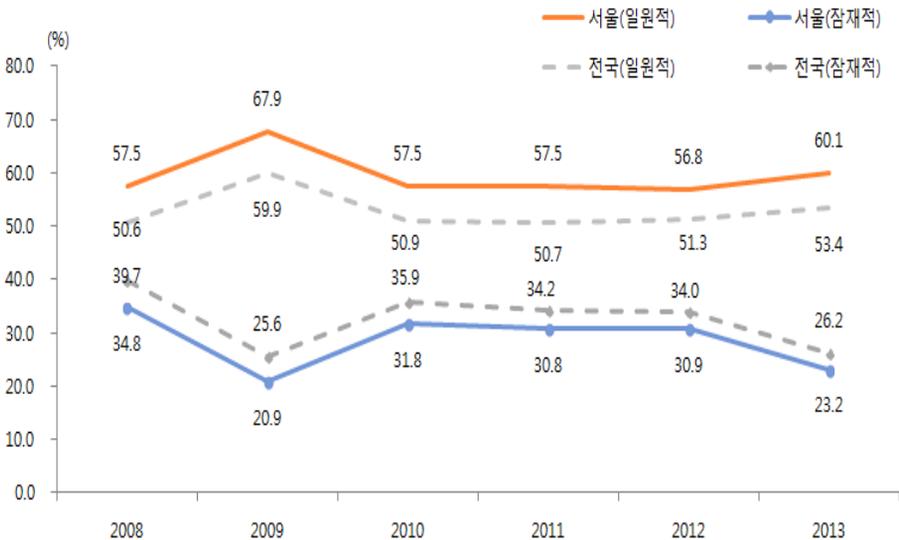


그림 4-4 서울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고용의 질 관련 특성

121 고용안정성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86.5%가 상용직이며, 11.8%는 임시직, 1.7%는 일용직
- 2013년 종사상 지위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 상용직 2,387,444명, 임시직 325,806명, 일용직 48,302명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상용직 비중은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임시직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용직 비중은 2010년 90.6%에서 2013년 86.5%까지 하락한 반면, 임시직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13년 11.8%로 확대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고, 그다음은 상용직이며, 일용직은 감소
- 2008~2013년 중 종사상 지위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상용직 3.1%, 임시직 8.1%, 일용직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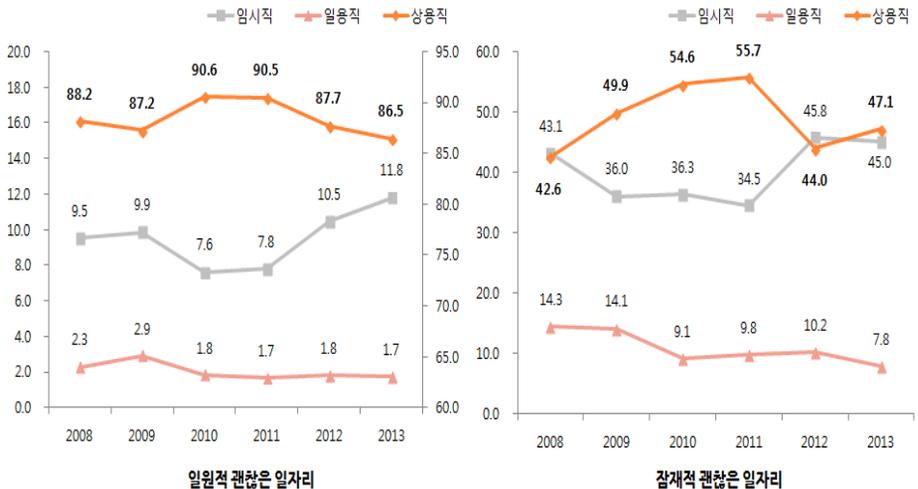


그림 4-5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이에 비해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47.1%만 상용직으로 구성
- 2013년 종사상 지위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 상용직 503,173명 (47.1%), 임시직 480,769명(45.0%), 일용직 83,286명(7.8%)
-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중 상용직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에 대폭 축소된 후 2013년에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임시직 비중과 유사한 수준
- 상용직 비중(%) : 2011년 55.7 → 2012년 44.0 → 2103년 47.1
- 임시직 비중(%) : 2011년 34.5 → 2012년 45.8 → 2103년 45.0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주로 일용직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은 임시직, 상용직 등의 순
- 2008~2013년 중 종사상 지위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상용직 -3.4%, 임시직 -4.5%, 일용직 -16.2%

표 4-2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8	2,046,967	220,674	52,945	597,745	604,574	201,431
2009	2,467,983	278,815	82,471	435,378	314,483	123,281
2010	2,251,983	189,388	45,614	751,683	500,215	124,628
2011	2,335,833	191,360	47,504	768,295	475,849	134,613
2012	2,267,060	270,458	46,705	618,859	643,601	144,135
2013	2,387,444	325,806	48,302	503,173	480,769	83,286
연평균 증가율	3.1	8.1	-1.8	-3.4	-4.5	-16.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근로시간

-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70% 이상은 적정 근로시간을 유지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15~49시간의 적정 근로시간을 가지는 비중은 73.3%이며, 그 외 범위의 일자리는 26.7%
- 주당 근로시간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 : 15~49시간 2,023,259명, 그 외 시간 738,293명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적정 근로시간을 가지는 일자리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적정 근로시간 일자리 비중은 2008년 대비 6.0%p 확대
- 2008~2013년 중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15~49시간 이하 일자리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그 외 시간 일자리는 연평균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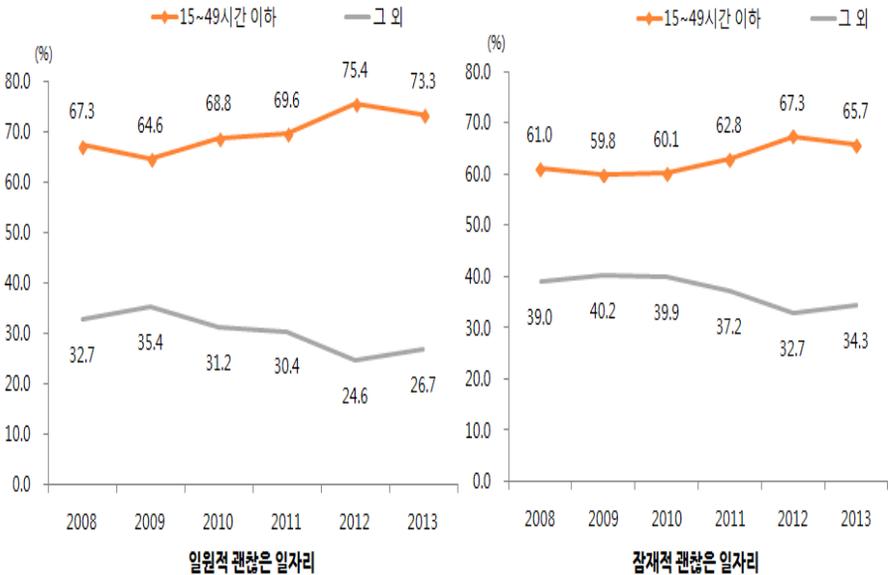


그림 4-6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근로시간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한편,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65.7%가 15~49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보유
- 2013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15~49시간 이하 주당 근로시간을 갖는 일자리는 65.7%, 그 외의 근로시간을 갖는 일자리가 34.3%
- 2013년 서울의 주당 근로시간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 15~49시간 701,184명, 그 외 시간 366,044명
- 2013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중 적정 근로시간 일자리 비중은 2008년 대비 4.7%p 확대되는 등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유사한 패턴
- 2008~2013년 중 서울의 근로시간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15~49시간 이하 -3.9%, 그 외 시간 -7.7%

표 4-3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근로시간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15시간~ 49시간 이하	그 외	15시간~ 49시간 이하	그 외
2008	1,561,710	758,875	855,949	547,800
2009	1,828,767	1,000,502	521,709	351,433
2010	1,710,358	776,628	826,659	549,867
2011	1,791,716	782,980	866,255	512,501
2012	1,949,645	634,578	946,341	460,253
2013	2,023,259	738,293	701,184	366,044
연평균 증가율	5.3	-0.5	-3.9	-7.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사회적 평판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80.5%가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한 표준화지수(Z-score)가 1 이상의 높은 사회·경제적 위세를 갖는 일자리도 41.4%를 차지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직업별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가 평균 이상인 일자리는 2,223,438명, 평균 이하인 일자리는 538,113명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갖는 직업비중은 소폭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갖는 직업비중은 2008년 대비 1.3%p 확대
- 2008~2013년 중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평균 이상 3.9%, 평균 이하 2.2%
- 반면,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43.9%만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갖는 직업으로 구성
-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달리 평균 이상을 갖는 직업도 표준화지수 0~0.5구간에 걸친 직업군이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중 직업별 사회·경제적 위세가 평균 이상인 일자리는 468,596명, 평균 이하인 일자리는 598,632명
- 2013년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가지는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008년에 비해 6.6%p 확대되었으나 그 규모는 축소
- 2008~2013년 중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평균 이상 -2.2%, 평균 이하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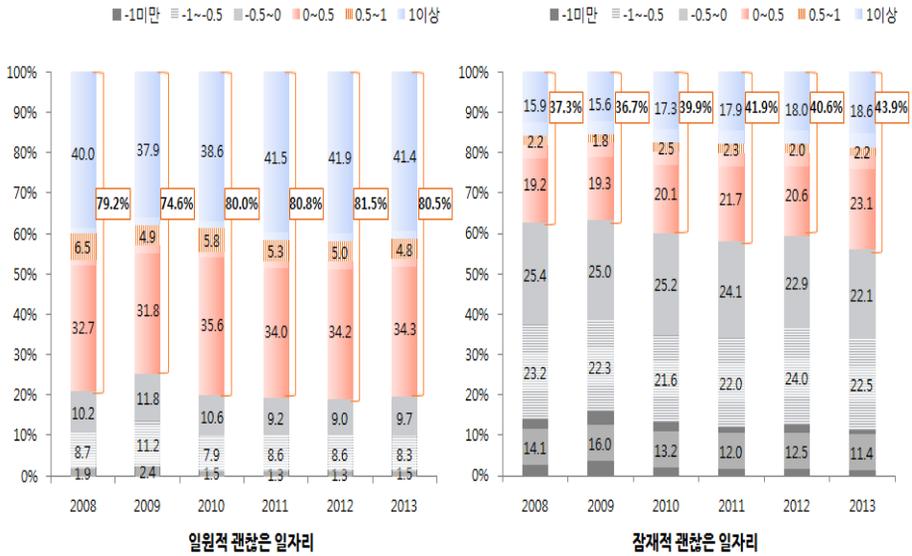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위세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4-4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위세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표준화지수 0 이상	표준화지수 0 이하	표준화지수 0 이상	표준화지수 0 이하
2008	1,837,879	482,707	523,208	880,541
2009	2,110,406	718,863	320,846	552,295
2010	1,990,700	496,286	549,517	827,010
2011	2,081,556	493,141	577,757	800,999
2012	2,095,701	488,521	570,899	835,695
2013	2,223,438	538,113	468,596	598,632
연평균 증가율	3.9	2.2	-2.2	-7.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131 연령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0~40대가 65.4%를 차지
-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20대 이하 16.9%, 30대 37.6%, 40대 27.8%, 50대 15.1%, 60대 이상 2.5%로 구성
- 2013년 연령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20대 이하 467,462, 30대 1,039,488, 40대 768,935, 50대 415, 773, 60대 이상 69,894
- 2008년 이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30대와 20대 이하에서는 축소된 반면, 40대, 50대에서는 확대
- 2013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30대와 20대 이하에서는 2008년에 비해 각각 1.7%p, 1.8%p 축소된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0.9%p, 2.6%p 확대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도 50대, 4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
- 2008~2013년 중 연령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20대 이하 1.5%, 30대 2.6%, 40대 4.2%, 50대 7.4%, 60대 이상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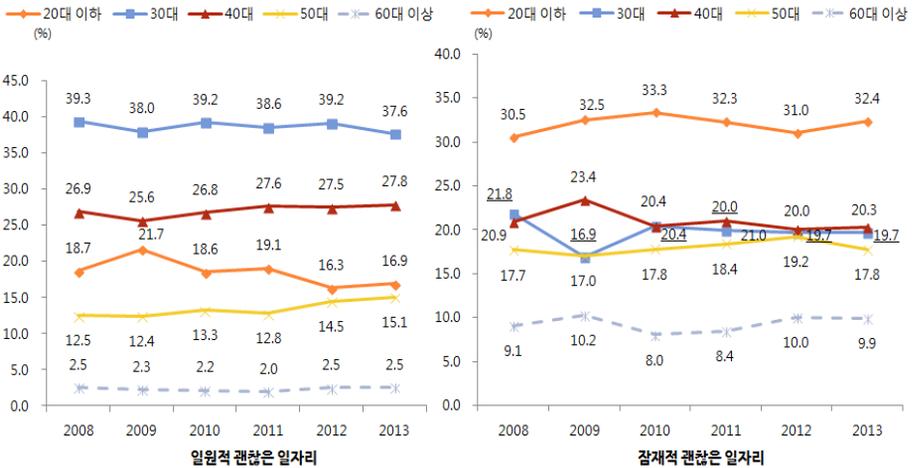


그림 4-8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반면,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20대 이하가 30% 이상을 차지
-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20대 이하 32.4%, 40대 20.3%, 30대 19.7%, 50대 17.8%, 60대 이상 9.9%로 구성
- 2013년 연령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수(명) : 20대 이하 345,428, 40대 216,224, 30대 209,848, 50대 189,554, 60대 이상 106,174
- 2013년 연령대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008년에 비해 2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확대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축소
- 2013년에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2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에서는 2008년에 비해 각각 1.8%p, 0.1%p, 0.9%p 확대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2.1%p, 0.7%p 축소
- 2008~2013년 중 연령대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하락세가 낮은 편

표 4-5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일 원 적	20대 이하	433,878	613,406	461,845	490,744	421,732	467,462	1.5
	30대	912,416	1,074,872	975,389	992,670	1,011,765	1,039,488	2.6
	40대	624,881	725,662	665,775	710,571	711,044	768,935	4.2
	50대	290,696	351,010	330,016	330,085	374,964	415,773	7.4
	60대 이상	58,714	64,319	53,962	50,627	64,718	69,894	3.5
잠 재 적	20대 이하	428,516	283,748	458,897	445,109	436,224	345,428	-4.2
	30대	305,991	147,579	281,151	275,342	276,897	209,848	-7.3
	40대	293,708	204,012	280,863	288,853	281,993	216,224	-5.9
	50대	248,347	148,416	245,033	253,358	270,536	189,554	-5.3
	60대 이상	127,188	89,386	110,583	116,094	140,944	106,174	-3.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성별 특성

-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6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남성 68.5%, 여성 31.5%로 구성
- 2013년 서울의 성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남성 1,891,100, 여성 870,451
- 2008년 이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성별 구성은 남성 위주이지만, 남녀 간 비중격차는 감소하는 추세
- 2013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여성 일자리는 2008년 대비 2.8%p 확대되어 남녀 간 비중격차가 2008년 42.6%p에서 2013년 37.0%p로 축소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도 남성보다는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증가
- 2008~2013년 중 성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남성 2.7%, 여성 5.5%
- 반면,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
-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여성 60.5%, 남성 39.5%
- 2013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남성 421,125명, 여성 646,103명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성별 구성은 관참은 일자리에 비해 변화 폭이 적은 편
-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남녀 간 비중격차는 2008년 -21.6%p에서 2013년 -21.0%p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남녀 모두 유사한 하락세 기록
- 2008~2013년 중 서울의 성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남성 -5.2%, 여성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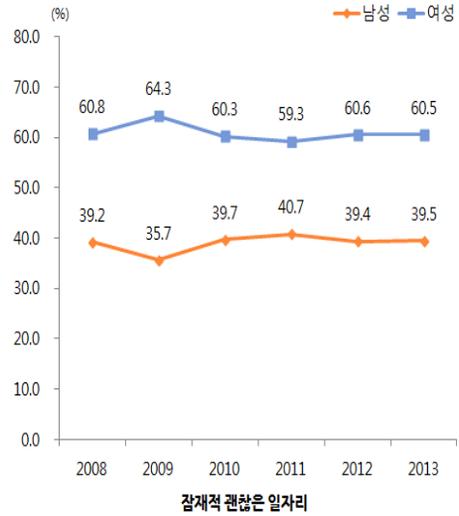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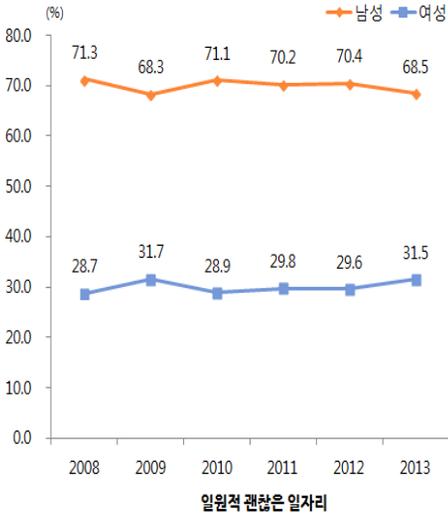


그림 4-9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성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4-6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성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1,654,503	666,083	550,871	852,878
2009	1,933,104	896,165	311,276	561,865
2010	1,767,714	719,271	546,778	829,748
2011	1,808,336	766,361	561,748	817,009
2012	1,820,293	763,930	553,934	852,660
2013	1,891,100	870,451	421,125	646,103
연평균 증가율	2.7	5.5	-5.2	-5.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학력별 특성

-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78% 이상을 대졸 이상이 차지
- 2013년 서울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대졸 이상이 78.6%이고, 고졸이 18.9%, 중졸이 1.9%, 초졸 이하가 0.7%
- 2013년 학력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대졸 이상 2,169,619, 고졸 520,785, 중졸 51,525, 초졸 이하 19,623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구성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대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08년 대비 2013년 학력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비중 변화 : 대졸 이상 2.9%p, 고졸 -2.3%p, 중졸 -0.2%p, 초졸 이하 -0.3%p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증가는 대졸 이상이 주도
- 2008~2013년 중 학력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대졸 이상 4.3%, 고졸 1.1%, 중졸 1.4%, 초졸 이하 -4.0%
- 반면,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는 40% 이상을 고졸 근로자가 차지
- 2013년 서울의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46.8%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대졸 이상(38.8%), 중졸(9.8%), 초졸 이하(4.6%)의 순으로 구성
- 2013년 학력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대졸 이상 413,779, 고졸 499,683, 중졸 105,016, 초졸 이하 48,751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구성 추이를 보면, 대졸 이상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주로 중졸 이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2008~2013년 중 학력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대졸 이상 -4.1%, 고졸 -4.3%, 중졸 -9.4%, 초졸 이하 -13.0%
-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모두에서 대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고학력 근로자들의 구직난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근로자들의 경쟁력 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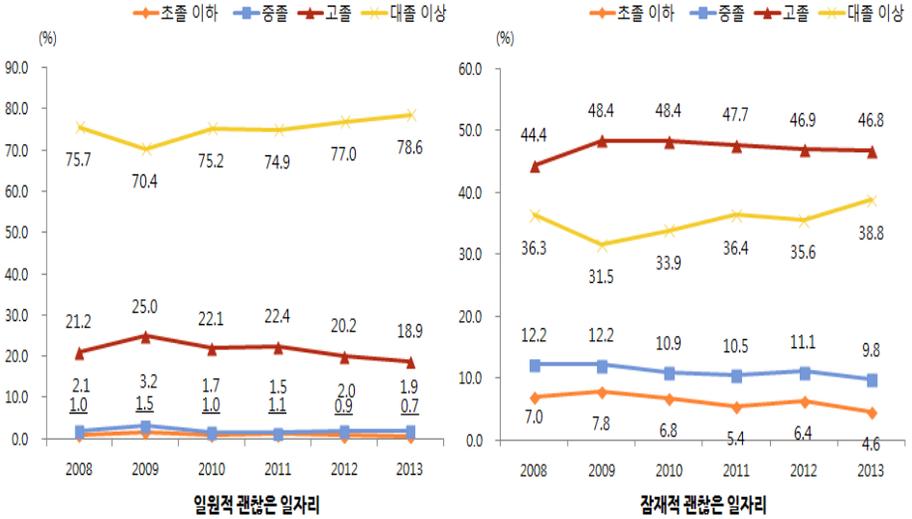


그림 4-10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4-7 일원적·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일원적	초졸 이하	24,100	42,966	24,333	29,149	22,102	19,623	-4.0
	중졸	48,162	89,596	43,129	38,087	51,648	51,525	1.4
	고졸	492,033	705,942	548,687	577,794	521,360	520,785	1.1
	대졸 이상	1,756,291	1,990,765	1,870,837	1,929,667	1,989,114	2,169,619	4.3
잠재적	초졸 이하	97,869	68,538	93,062	74,982	89,785	48,751	-13.0
	중졸	171,900	106,440	150,710	144,620	156,205	105,016	-9.4
	고졸	623,753	422,789	666,035	657,909	659,756	499,683	-4.3
	대졸 이상	510,228	275,374	466,721	501,245	500,848	413,779	-4.1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산업별 특성

1.4.1 산업 대분류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대분류 비중 기준으로 상위 5대 산업에 55.9% 분포
- 대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은 도·소매업(13.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4%), 금융 및 보험업(9.7%), 건설업(7.6%) 등의 순
- 상위 5대 산업의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 수(명) : 도·소매업 380,18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9,88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3,714, 금융 및 보험업 269,213, 건설업 209,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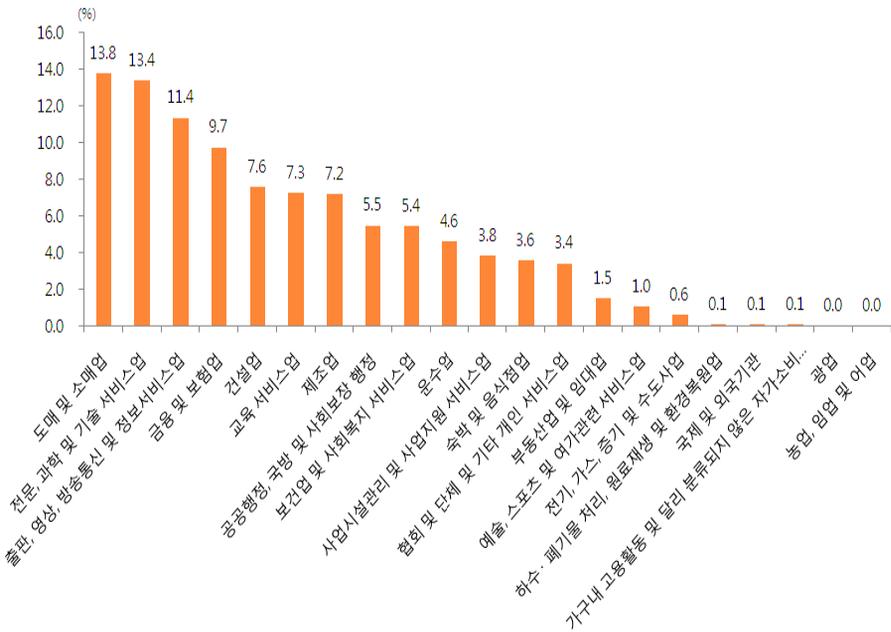


그림 4-11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표 4-8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일자리 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311,929	13.4	394,850	14.0	314,896	12.7	331,583	12.9	390,032	15.1	380,183	13.8	4.0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7,199	10.2	273,547	9.7	282,649	11.4	305,565	11.9	348,050	13.5	369,881	13.4	9.3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1,215	10.0	282,793	10.0	286,645	11.5	293,602	11.4	314,158	12.2	313,714	11.4	6.3	1.4
금융 및 보험업	235,705	10.2	260,150	9.2	240,572	9.7	250,331	9.7	233,376	9.0	269,213	9.7	2.7	-0.4
건설업	203,655	8.8	234,491	8.3	204,239	8.2	203,733	7.9	190,573	7.4	209,376	7.6	0.6	-1.2
교육 서비스업	196,600	8.5	238,192	8.4	218,865	8.8	196,119	7.6	178,885	6.9	200,433	7.3	0.4	-1.2
제조업	256,160	11.0	299,824	10.6	237,150	9.5	250,838	9.7	195,239	7.6	198,872	7.2	-4.9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3,578	5.8	155,043	5.5	143,232	5.8	140,972	5.5	136,164	5.3	151,028	5.5	2.5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455	4.7	136,920	4.8	111,449	4.5	130,779	5.1	125,126	4.8	150,415	5.4	6.6	0.7
운수업	109,562	4.7	145,378	5.1	118,715	4.8	118,967	4.6	118,578	4.6	127,338	4.6	3.1	-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332	2.9	92,118	3.3	80,473	3.2	95,462	3.7	101,664	3.9	106,065	3.8	9.2	0.9
숙박 및 음식점업	70,457	3.0	122,759	4.3	82,946	3.3	82,682	3.2	80,319	3.1	98,684	3.6	7.0	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2,030	3.1	92,010	3.3	77,405	3.1	81,658	3.2	91,766	3.6	93,847	3.4	5.4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697	1.8	55,186	2.0	42,347	1.7	46,867	1.8	37,182	1.4	40,847	1.5	-0.9	-0.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17> 참조

- 2008년 이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대분류 산업 중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확대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2%에서 2013년 13.4%로 3.2%p 확대
  - 또한 2008~2013년 중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도 가구 내 고용활동·자가소비 생산활동(18.2%)을 제외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9.3%로 대분류 산업 중 가장 높은 편
- 한편,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도 대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에 56.8%가 분포
  - 상위 5대 산업은 도·소매업(17.8%), 숙박 및 음식점업(1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2%), 제조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0%) 등의 순
  - 상위 5대 산업의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수(명) : 도·소매업 190,132, 숙박 및 음식점업 121,6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9,460, 제조업 89,8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5,082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비교할 때, 도·소매업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도 제1의 산업으로 임금분포 구간이 매우 넓음을 시사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는 10위권 밖이었으나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는 10위권 내 산업<sup>53,54</sup>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확대되고, 일자리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가장 많이 증가

53 즉, 위의 산업의 일자리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임금수준(전국 중위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

54 반면,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 2, 3위이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는 각각 9, 10위로 상대적으로 임금분포가 중위임금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 2008년 대비 2013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산업별 비중 변화 :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p, 보건업 2.5%p 등의 순
- 2008~2013년 중 주요 대분류 산업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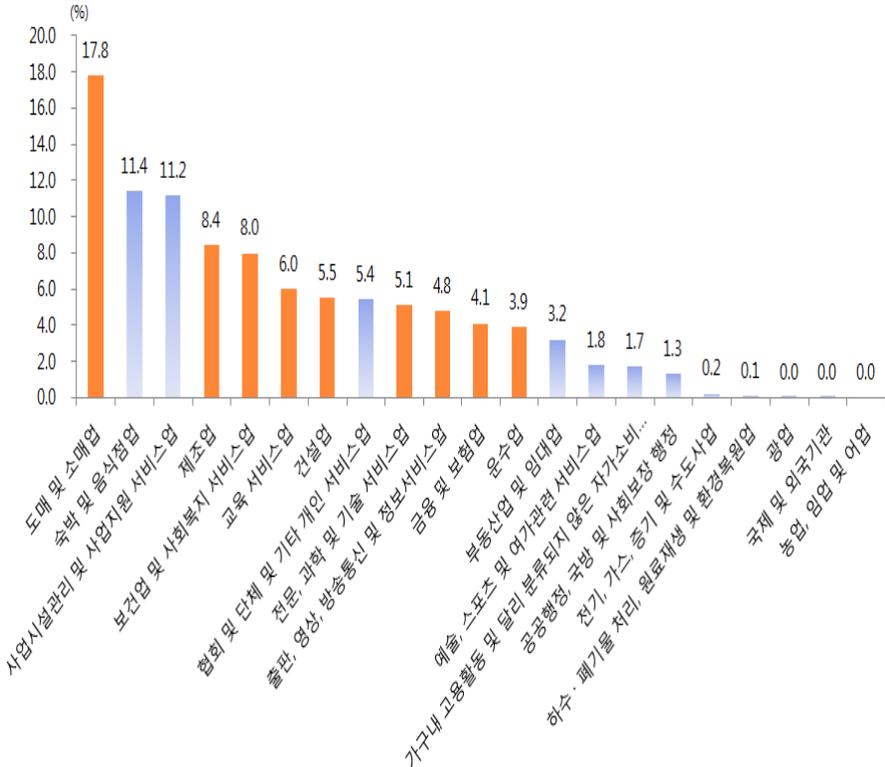


그림 4-12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굵은 색 그래프는 2013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도 비중 측면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산업

표 4-9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일자리 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252,813	18.0	150,310	17.2	243,099	17.7	232,994	16.9	247,369	17.6	190,132	17.8	-5.5	-0.2
숙박 및 음식점업	179,035	12.8	119,172	13.6	164,282	11.9	168,915	12.3	161,009	11.4	121,605	11.4	-7.4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116,089	8.3	83,715	9.6	134,424	9.8	143,000	10.4	145,897	10.4	119,460	11.2	0.6	2.9
제조업	155,287	11.1	88,675	10.2	146,521	10.6	147,462	10.7	139,612	9.9	89,858	8.4	-10.4	-2.6
보건업 및 사회복 지 서비스업	76,462	5.4	58,976	6.8	99,681	7.2	101,304	7.3	111,527	7.9	85,082	8.0	2.2	2.5
교육 서비스업	94,417	6.7	56,317	6.4	87,827	6.4	93,624	6.8	92,857	6.6	64,266	6.0	-7.4	-0.7
건설업	114,444	8.2	49,328	5.6	81,409	5.9	76,305	5.5	79,887	5.7	58,709	5.5	-12.5	-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 스업	67,999	4.8	40,319	4.6	76,713	5.6	75,185	5.5	79,659	5.7	57,819	5.4	-3.2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213	4.3	35,499	4.1	63,821	4.6	64,795	4.7	60,338	4.3	54,735	5.1	-1.9	0.8
출판, 영상,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	58,543	4.2	37,510	4.3	56,512	4.1	57,291	4.2	51,901	3.7	51,074	4.8	-2.7	0.6
금융 및 보험업	48,363	3.4	25,580	2.9	54,092	3.9	55,310	4.0	55,605	4.0	43,681	4.1	-2.0	0.6
운수업	57,779	4.1	33,483	3.8	51,084	3.7	56,028	4.1	55,019	3.9	41,689	3.9	-6.3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527	4.4	35,979	4.1	53,681	3.9	47,884	3.5	48,619	3.5	34,275	3.2	-11.0	-1.2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8,004	1.3	16,195	1.9	23,822	1.7	18,002	1.3	24,658	1.8	18,980	1.8	1.1	0.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18> 참조

### 산업 중분류별 특성

- 산업 중분류 비중 기준으로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제1의 산업은 전문서비스업
- 중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8.2%), 도매 및 상품중개업(8.0%), 교육 서비스업(7.3%), 출판업(6.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5%) 등<sup>55</sup>
- 상위 5대 산업의 일자리 수(명) : 전문서비스업 227,303, 도매 및 상품중개업 221,380, 교육 서비스업 200,433, 출판업 169,93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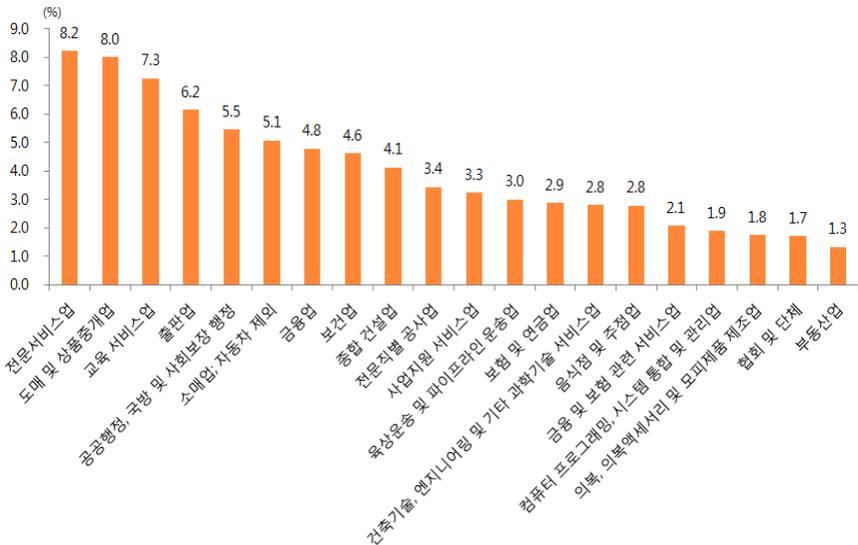


그림 4-13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상위 20대 산업)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sup>55</sup>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대부분 기준 비중으로 2위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이 중분류 기준 비중으로는 1위 산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기준 비중으로 1위인 도·소매업 중에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2위, 소매업이 6위를 차지

표 4-10 서울시 일원적 관할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일자리 수	비중												
전문서비스업	119,134	5.1	137,052	4.8	147,500	5.9	170,383	6.6	213,878	8.3	227,303	8.2	13.8	3.1
도매 상품중개업	177,762	7.7	205,240	7.3	174,557	7.0	199,515	7.7	238,462	9.2	221,380	8.0	4.5	0.4
교육 서비스업	196,600	8.5	238,192	8.4	218,865	8.8	196,119	7.6	178,885	6.9	200,433	7.3	0.4	-1.2
출판업	104,159	4.5	134,786	4.8	131,337	5.3	147,746	5.7	163,520	6.3	169,931	6.2	10.3	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3,578	5.8	155,043	5.5	143,232	5.8	140,972	5.5	136,164	5.3	151,028	5.5	2.5	-0.3
소매업	118,013	5.1	167,027	5.9	121,460	4.9	113,639	4.4	127,694	4.9	140,180	5.1	3.5	0.0
금융업	109,467	4.7	127,408	4.5	111,596	4.5	112,489	4.4	106,079	4.1	132,286	4.8	3.9	0.1
보건업	97,990	4.2	119,783	4.2	98,559	4.0	117,931	4.6	107,467	4.2	127,617	4.6	5.4	0.4
종합 건설업	112,938	4.9	128,666	4.5	113,178	4.6	105,693	4.1	102,377	4.0	114,300	4.1	0.2	-0.7
전문직별 공사업	90,717	3.9	105,825	3.7	91,061	3.7	98,040	3.8	88,196	3.4	95,076	3.4	0.9	-0.5
사업지원 서비스업	55,811	2.4	74,723	2.6	65,440	2.6	77,782	3.0	81,144	3.1	89,800	3.3	10.0	0.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3,805	3.2	106,713	3.8	75,778	3.0	76,872	3.0	75,038	2.9	83,093	3.0	2.4	-0.2
보험 및 연금업	82,269	3.5	83,196	2.9	68,707	2.8	78,881	3.1	75,497	2.9	79,582	2.9	-0.7	-0.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8,982	3.0	78,970	2.8	80,897	3.3	72,468	2.8	76,947	3.0	77,269	2.8	2.3	-0.2
음식점 및 주점업	53,137	2.3	98,888	3.5	60,081	2.4	60,361	2.3	60,378	2.3	77,181	2.8	7.8	0.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19> 참조

- 2008년 이후 상위 20대 중분류 산업 기준으로 볼 때,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는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에서 비중과 일자리 수가 크게 확대
- 2008년 대비 2013년 중분류 산업별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 비중 변화 : 전문서비스업(3.1%p), 출판업(1.7%p), 사업지원 서비스업(0.8%p), 음식점 및 주점업(0.5%p), 도매 및 상품중개업(0.4%p) 등의 순
- 2008~2013년 중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전문서비스업 13.8%, 출판업 10.3%,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 음식점 및 주점업 7.8%, 보건업 5.4% 등<sup>56</sup>
- 한편,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장은 일자리는 산업 중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에 43.7%가 분포
- 중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은 소매업(11.7%), 음식점 및 주점업(10.5%), 사업지원 서비스업(9.8%), 교육서비스업(6.0%), 도매 및 상품중개업(5.6%) 등<sup>57</sup>
- 상위 5대 산업의 일자리 수(명) : 소매업 125,143, 음식점 및 주점업 112,102, 사업지원 서비스업 104,984, 교육서비스업 64,26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9,939 등

56 주요 중분류 산업 중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보건업 등은 대분류별 분석에서도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 비중 및 일자리 수 증가가 높았던 산업임, 즉, 이 산업들은 이들이 속한 상위 분류의 관장은 일자리를 주도한 주요 하위분류 산업

57 2013년 서울시 산업 중분류별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와 비교할 때,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잠재적 관장은 일자리에서도 비중이 높은 순위에 집계됨. 반면,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 비중 순위 1위, 4위였던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은 잠재적 관장은 일자리에서는 각각 12위, 15위에 불과해 대다수 근로자가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 구간에 분포함을 시사함. 실제로 2013년 서울시 전문서비스업과 출판업 근로자의 85.4%, 86.1%는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 임금구간에 분포함. 또한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에서 10위권 밖이었으나 잠재적 관장은 일자리에서는 2위, 3위 등 상위에 집계되어 이들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대부분 전국 중위임금 이하라는 것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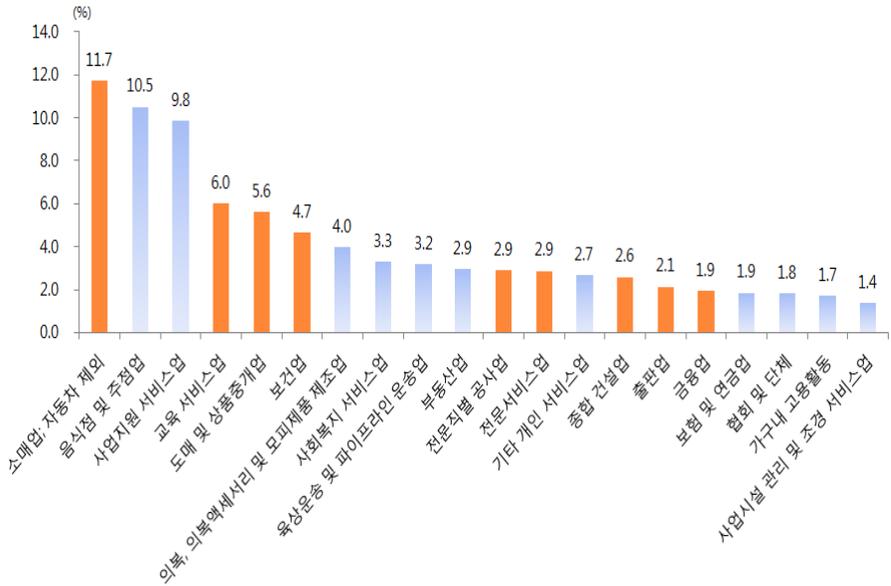


그림 4-14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굵은 색 그래프는 2013년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도 비중 측면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산업

- 2008년 이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중분류 산업 기준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및 일자리 수 증가가 큰 편
- 2008년 대비 2013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 변화 : 사업지원 서비스업 2.5%p, 사회복지 서비스업 1.6%p, 보건업 0.9%p, 도매 및 상품중개업 0.6%p, 전문서비스업 0.5%p 등
- 2008~2013년 중 주요 중분류 산업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업지원 서비스업 0.5%, 보건업 -1.3%, 전문서비스업 -1.4%, 출판업 -1.4% 등
- 특히 주요 중분류 산업 중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수 증가율은 다른 주요 산업에 비해 매우 높아 임금수준이 아직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 비해 낮지만 시장수요가 확대되는 산업임을 시사

표 4-11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증감비
	일자리수	비중												
소매업	177,866	12.7	115,688	13.2	177,338	12.9	159,192	11.5	169,447	12	125,143	11.7	-6.8	-0.9
음식점 및 주점업	173,567	12.4	112,548	12.9	152,355	11.1	157,267	11.4	153,735	10.9	112,102	10.5	-8.4	-1.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552	7.3	76,052	8.7	115,240	8.4	121,973	8.8	127,862	9.1	104,984	9.8	0.5	2.5
교육 서비스업	94,417	6.7	56,317	6.4	87,827	6.4	93,624	6.8	92,857	6.6	64,266	6.0	-7.4	-0.7
도매 상품중개업	70,061	5.0	32,631	3.7	60,758	4.4	68,050	4.9	69,902	5.0	59,939	5.6	-3.1	0.6
보건업	53,160	3.8	30,381	3.5	58,426	4.2	58,090	4.2	60,226	4.3	49,770	4.7	-1.3	0.9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9,309	4.9	41,896	4.8	63,766	4.6	68,807	5.0	71,026	5.0	42,322	4.0	-9.4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23,302	1.7	28,595	3.3	41,255	3.0	43,214	3.1	51,301	3.6	35,311	3.3	8.7	1.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035	3.7	27,631	3.2	44,291	3.2	45,595	3.3	43,436	3.1	33,968	3.2	-8.2	-0.5
부동산업	59,965	4.3	33,212	3.8	49,064	3.6	44,580	3.2	44,644	3.2	31,363	2.9	-12.2	-1.3
전문직별 공사업	64,933	4.6	29,087	3.3	51,837	3.8	47,841	3.5	44,881	3.2	31,058	2.9	-13.7	-1.7
전문서비스업	32,910	2.3	18,849	2.2	32,012	2.3	36,255	2.6	34,852	2.5	30,719	2.9	-1.4	0.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891	2.2	19,289	2.2	34,928	2.5	31,879	2.3	46,467	3.3	28,348	2.7	-1.7	0.5
종합 건설업	49,511	3.5	20,241	2.3	29,571	2.1	28,464	2.1	35,006	2.5	27,651	2.6	-11.0	-0.9
출판업	24,393	1.7	12,100	1.4	23,112	1.7	21,152	1.5	23,935	1.7	22,712	2.1	-1.4	0.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20> 참조

## 151 직업 대분류 특성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70.9%를 차지하는 등 직업별 편차가 큰 편
- 2013년 서울시의 직업별로 본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7.3%, 사무 종사자가 33.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판매종사자(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0%), 서비스 종사자(5.2%) 등
- 대분류 직업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31,216, 사무 종사자 927,615, 판매 종사자 200,6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558, 서비스 종사자 144,532 등의 순
- 2008년 이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비중 확대가 특징
- 2008년 대비 2013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대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 : 사무 종사자 1.5%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p, 서비스 종사자 0.6%p, 관리자 0.5%p 등
- 2008~2013년 중 대분류 직업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 관리자 6.3%, 서비스 종사자 6.0%, 사무 종사자 4.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 등
- 반면,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3대 직업은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구성되며,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에 비해 직업별 편차가 작은 편
- 2013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의 직업별 구성은 사무 종사자 22.4%, 단순노무 종사자 18.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 판매 종사자 13.3%, 서비스 종사자 12.9% 등의 순
- 대분류 직업별 잠재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사무 종사자 238,968, 단순노무 종사자 200,28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4,142, 판매 종사자 141,583, 서비스 종사자 144,532 등의 순

- 특히 단순 노무 종사자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서 9개 대분류 직업 중 비중이 8위였으나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에서는 비중이 2위 수준
- 2008년 대비 2013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변화를 대분류 직업 별로 보면,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 확대가 큰 편
- 2008년 대비 2013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는 대분류 직업별로 모두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의 하락세가 적은 편
- 2008~2013년 중 대분류 직업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사무 종사자 -2.2%, 관리자 -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7%, 서비스 종사자 -5.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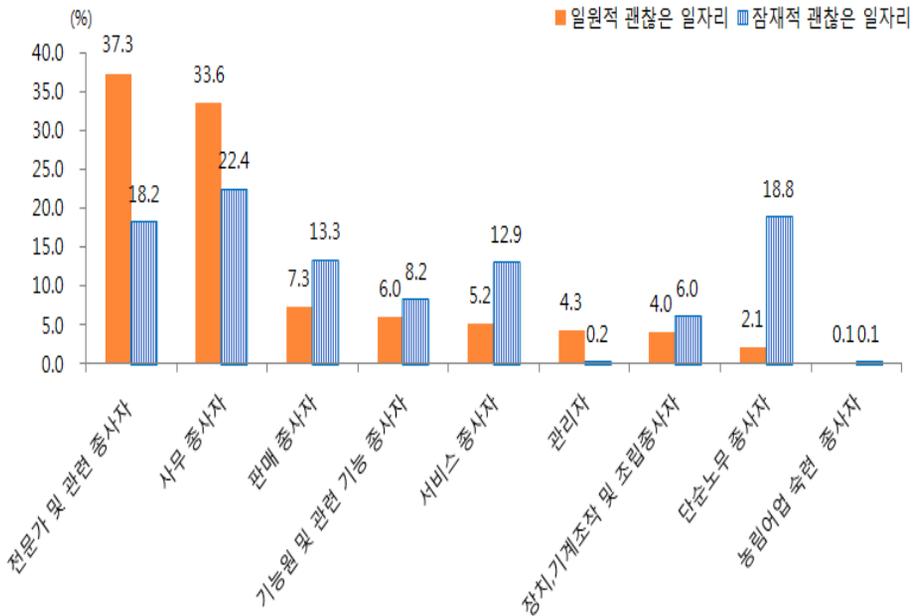


그림 4-15 2013년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표 4-12 서울시 일원적·잠재적 관청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40,934	987,939	885,439	956,522	958,933	1,031,216	4.2
사무 종사자	745,015	877,412	871,170	865,542	875,073	927,615	4.5
판매 종사자	217,630	252,518	217,892	188,995	178,032	200,600	-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9,341	212,587	171,894	175,696	162,292	165,558	0.8
서비스 종사자	108,100	165,807	127,480	121,133	123,236	144,532	6.0
관리자	87,554	83,231	61,613	106,500	123,222	118,660	6.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170	135,982	94,281	100,530	102,485	111,461	2.4
단순노무 종사자	61,703	112,439	55,285	58,579	59,047	59,114	-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37	1,353	1,932	1,199	1,902	2,796	19.7
사무 종사자	267,218	166,658	272,992	296,655	285,001	238,968	-2.2
단순노무 종사자	294,676	207,193	265,285	244,822	278,674	200,285	-7.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6,049	131,246	231,135	236,767	245,953	194,142	-2.1
판매 종사자	204,031	125,966	214,718	188,222	193,036	141,583	-7.0
서비스 종사자	180,069	119,169	169,381	182,727	188,469	137,913	-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6,594	74,570	139,488	147,881	141,707	87,382	-11.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1,104	46,786	79,866	76,759	69,945	63,814	-4.7
관리자	2,411	1,555	854	1,612	1,945	1,953	-4.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97	-	2,808	3,311	1,863	1,189	-5.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1.5.2 직업 중분류별 특성

-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를 51개 직업 중분류별로 보면, 1/4 이상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으로 구성

- 2013년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6.3%,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7.1%,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6.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6% 등의 순
- 2013년 중분류 직업별 관청은 일자리 수(명)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725,267,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95,020,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179,668,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55,37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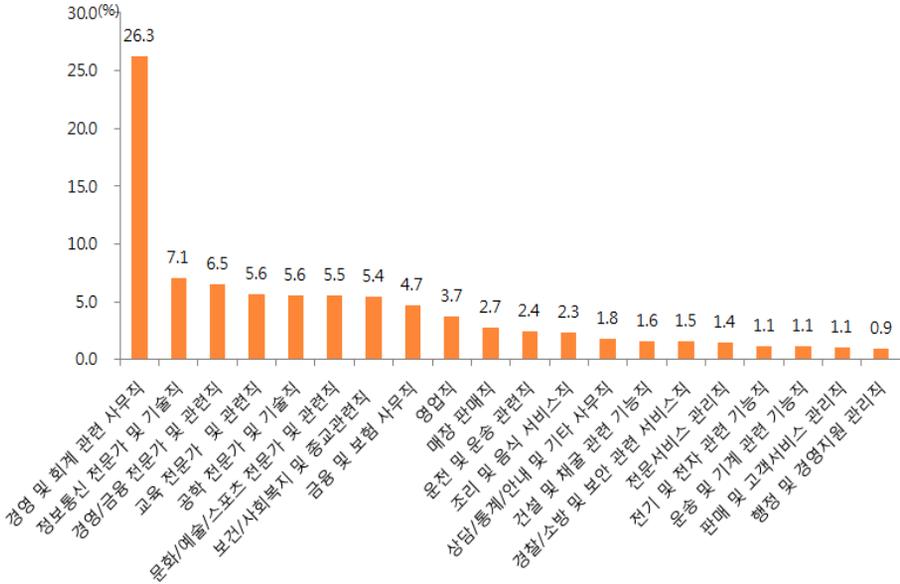


그림 4-16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08년 대비 2013년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를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비중 확대가 가장 큰 편
- 2008년 대비 2013년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1.4%p),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1.0%p),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0.7%p) 등의 순

- 2008년 이후 중분류 직업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는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직 등의 증가세가 높은 편
- 2008~2013년 중 주요 중분류 직업별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1.3%,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7.5%,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6.6% 등

표 4-13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77,678	680,631	691,922	661,994	696,764	725,267	4.7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41,651	165,846	164,428	201,287	198,499	195,020	6.6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135,107	180,677	142,365	169,008	192,393	179,668	5.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60,089	185,532	159,168	148,888	131,698	155,373	-0.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44,901	141,612	147,775	145,985	144,069	153,945	1.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11,001	131,818	125,215	127,320	130,503	151,749	6.5
보건/사회복지 종교 관련직	109,948	136,291	111,223	123,370	117,802	149,751	6.4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05,120	129,038	113,693	128,175	101,224	128,917	4.2
영업직	129,084	116,826	132,533	112,480	98,663	103,160	-4.4
매장 판매직	71,009	104,423	65,443	59,351	61,135	75,598	1.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7,003	81,778	54,801	62,077	65,152	67,008	3.3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0,395	80,971	55,602	49,664	50,806	63,656	4.8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40,755	44,345	39,894	44,940	44,963	49,902	4.1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43,184	53,902	37,408	45,715	45,321	44,460	0.6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5,291	44,998	39,944	40,511	39,810	42,787	3.9
전문서비스 관리직	30,849	31,291	23,319	29,561	35,970	39,355	5.0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0,253	33,751	37,885	32,516	32,052	31,234	0.6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2,719	36,470	35,353	39,074	29,634	31,170	-1.0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0,653	22,186	11,578	23,939	30,552	29,614	7.5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4,245	7,582	7,027	30,556	28,659	24,358	11.3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직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21> 참조

- 중분류 직업별로 본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편중된 구조
- 2013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6.1%, 매장 판매직 8.9%,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8%,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6.9% 등의 순
- 2013년 중분류 직업별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수(명)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72,300, 매장 판매직 94,65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3,620,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74,114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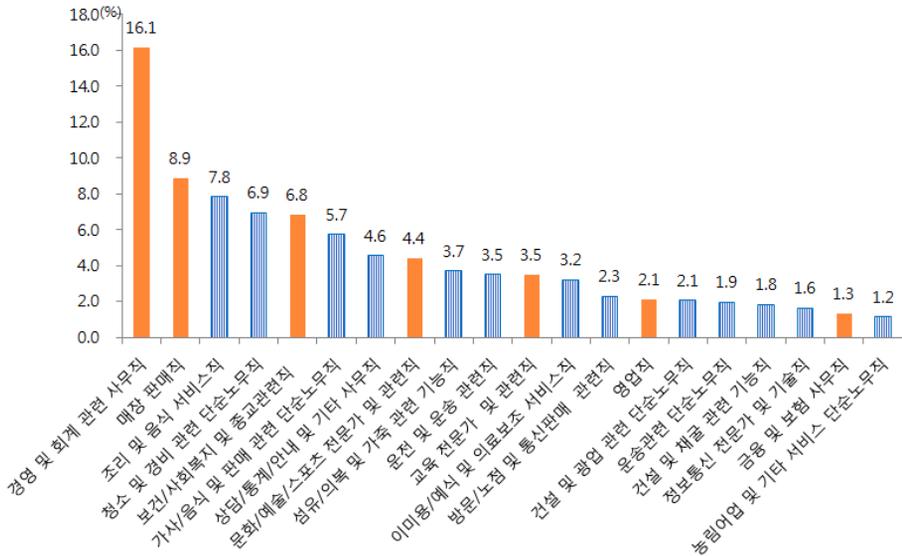


그림 4-17 2013년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08년 대비 2013년 주요 중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를 보면,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 중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과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비중 확대가 큰 편

- 2008년 대비 2013년 주요 중분류 직업별 잠재적 편차는 일자리 비중 변화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3%p,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1%p,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1.3%p 등
- 2008년 이후 주요 중분류 직업별 잠재적 편차는 일자리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에서 많이 발생
- 2008~2013년 중 주요 중분류 직업별 잠재적 편차는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4.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9%,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2.5% 등

표 4-14 서울시 잠재적 편차는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구분							연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97,173	127,287	210,157	214,158	196,556	172,300	-2.7
매장 판매직	142,128	88,625	147,929	126,349	132,513	94,657	-7.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35,964	82,719	110,526	123,900	114,276	83,620	-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15,177	86,416	106,822	94,886	109,556	74,114	-8.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3,128	45,586	87,874	78,351	90,179	72,713	2.9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73,570	53,183	68,040	60,253	85,166	61,141	-3.6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46,314	28,794	40,247	50,572	61,038	48,565	1.0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225	26,292	48,029	47,422	53,680	47,372	0.9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63,142	34,361	56,283	59,823	64,061	39,445	-9.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217	24,715	42,962	45,224	38,956	37,543	-7.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62,666	32,789	55,240	59,221	57,911	36,982	-10.0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30,404	24,098	37,134	39,026	54,260	34,368	2.5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1,430	21,735	32,877	30,422	32,603	24,640	-4.8
영업직	30,473	15,606	33,912	31,451	27,920	22,287	-6.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40,860	25,157	34,216	30,953	29,368	21,938	-11.7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28,794	17,987	23,632	25,828	25,221	20,780	-6.3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42,743	16,915	28,457	34,742	37,935	19,624	-14.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847	6,061	12,471	16,555	18,337	17,494	4.8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8,359	6,969	15,259	23,210	21,875	14,337	-4.8
농림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7,331	11,284	15,813	17,825	15,223	12,338	-6.6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직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22> 참조

## 2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실태

### 2.1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규모와 추이

#### 2.1.1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규모

- 2013년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는 1,613,689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각 시·도 내 비중도 서울이 가장 큰 편
- 전국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5.1%가 서울에 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만 60.2% 분포
- 2013년 전국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서울(35.1%), 경기(20.6%), 경남(5.3%), 부산(4.8%), 인천(4.5%) 등의 순으로 분포
- 임금기준의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보다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을 감안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서울 집중도가 높음
-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은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28.8%)을 6.3%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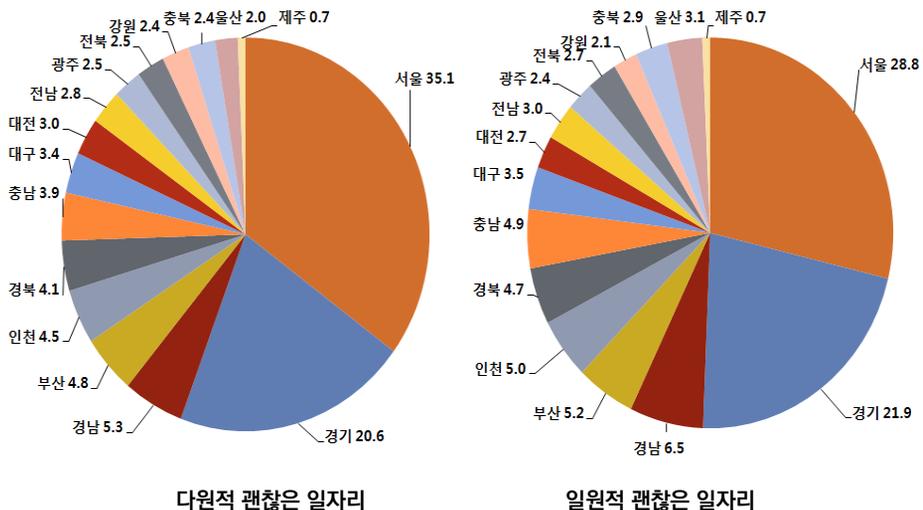


그림 4-18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표 4-15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시·도별 규모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수		시·도별 분포		시·도 내 비중	
	다원적	일원적	다원적	일원적	다원적	일원적
전국	4,595,280	9,602,762	100.0	100.0	25.5	53.4
서울특별시	1,613,698	2,761,551	35.1	28.8	35.1	60.1
경기도	947,082	2,100,201	20.6	21.9	24.0	53.2
경상남도	245,057	627,010	5.3	6.5	21.9	56.0
부산광역시	221,732	500,521	4.8	5.2	19.5	44.1
인천광역시	206,260	483,847	4.5	5.0	21.7	50.9
경상북도	189,815	449,594	4.1	4.7	21.0	49.9
충청남도	179,682	467,141	3.9	4.9	21.7	56.4
대구광역시	154,126	334,566	3.4	3.5	19.6	42.5
대전광역시	139,330	258,419	3.0	2.7	26.7	49.6
전라남도	130,072	288,630	2.8	3.0	23.6	52.3
광주광역시	114,601	232,705	2.5	2.4	24.7	50.2
전라북도	112,971	256,383	2.5	2.7	20.1	45.7
강원도	109,855	203,800	2.4	2.1	23.8	44.1
충청북도	108,744	274,767	2.4	2.9	20.2	51.1
울산광역시	91,119	296,797	2.0	3.1	20.0	65.3
제주특별자치도	31,137	66,832	0.7	0.7	16.8	36.1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13년 각 시·도 내에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35.1%로 가장 큰 편
- 2013년 각 시·도 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35.1%), 대전(26.7%), 광주(24.7%), 경기(24.0%), 강원(23.8%) 등의 순으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순위와 차별적
- 일원적 개념과 다원적 개념 간 일자리 비중 차이가 큰 시·도를 보면, 울산이 45.3%p로 가장 크고, 그다음이 충남(34.7%p), 경남(34.1%p), 충북(30.9%p), 경기(29.2%p) 등의 순
- 이는 임금이 고용의 질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지만, 임금이 높다고 고용안정성, 일과 삶의 조화, 사회적 평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자리 질의 수준이 동일하게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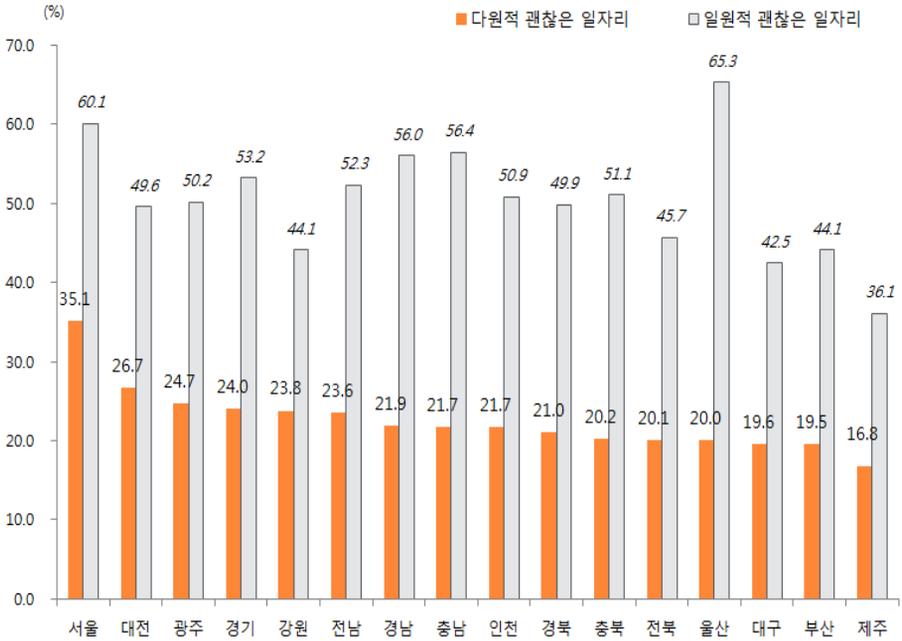


그림 4-19 2013년 다원적·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의 시·도 내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1.2 다원적 관장은 일자리 추이

- 서울의 다원적 관장은 일자리는 2008년 1,245,098명에서 2013년에는 1,613,698명으로 연평균 5.3% 증가
- 서울의 다원적 관장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에는 34.8%이었으나 2013년에는 35.1%로 0.3%p 확대
- 서울의 다원적 관장은 일자리 수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속도는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에 비해 빠른 편
- 일원적 관장은 일자리의 경우 2013년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대비 1.0%p 하락했고, 일자리 수는 2008~2013년 중 연평균 3.5% 증가에 그침
- 이는 임금 이외의 고용안정성 등 다원적 관장은 일자리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들의 서울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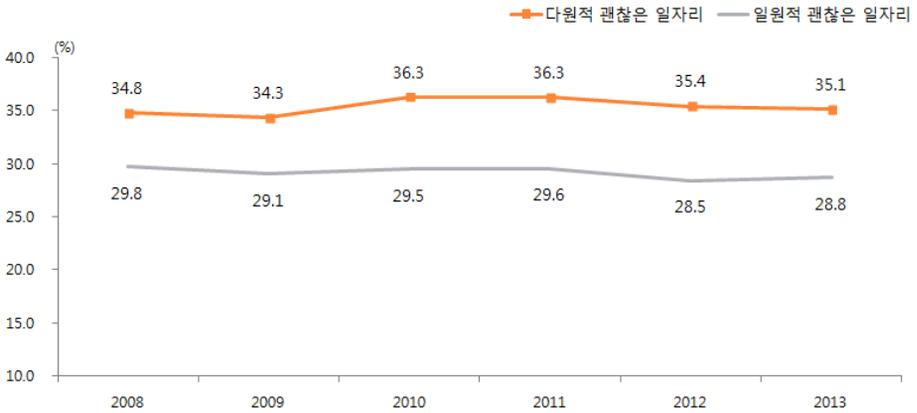


그림 4-20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008년 이후 서울에서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8~2013년 중 서울시 전체 일자리 중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평균 비중은 33.2%로 전국 평균(24.3%) 수준을 8.9%p 상회
- 이는 2008~2013년 중 서울시 전체 일자리 중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평균 비중(59.6%)과 전국 평균 비중(52.8%) 간 차이(6.8%p)를 웃도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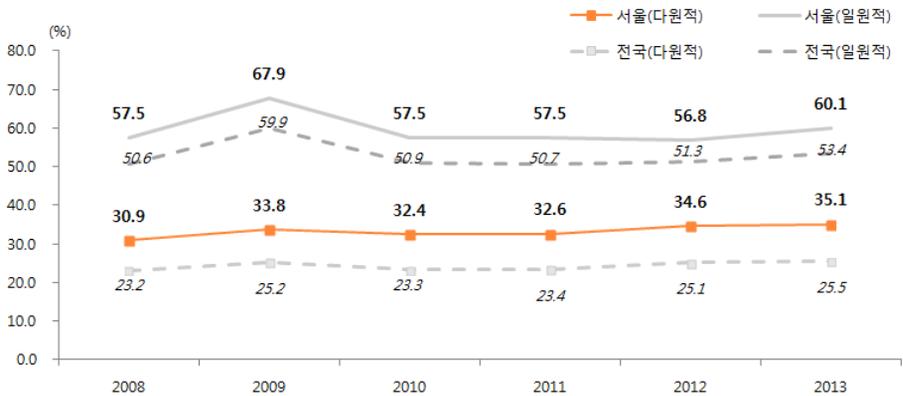


그림 4-21 서울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다원적·일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2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구성요인 분해

### 2.2.1 분석 개요

-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의 구성요인 중 시·도별로 어느 요인이 강하고 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인별로 비교 분석할 필요
-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 고용의 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로 합성적 성격을 보유
- 그러므로 이들 구성요인 중 어느 요인이 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요인별로 다시 분해할 필요
- 이를 위해 2013년 전국 및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조건별로 각 시·도 내 비중을 산출한 후 각 시·도의 수준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후 이를 유형화

### 2.2.2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구성요인 분해

-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의 구성요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서울은 모든 구성요인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임금기준(전국 중위임금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0.1%로 전국 평균(53.4%) 수준을 6.7%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상용직)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5.2%로 전국 평균(63.8%)을 1.4%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근로시간(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71.3%로 전국 평균(71.2%) 수준을 0.1%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사회·경제적 위세(직업분류 중분류별 표준화지수 0 이상)를 충족하는 일자리는 62.5%로 전국 평균(49.2%) 수준을 13.3%p 상회



그림 4-22 2013년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의 구성요인별 시·도 내 비중과 전국 평균 간 편차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13년 서울의 일자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 사회·경제적 위세,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우세
- 사회·경제적 위세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내 일자리 비중은 서울이 1위, 대전이 2위 수준이며,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
-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내 일자리 비중은 서울이 울산에 이어 2위
- 서울, 울산, 충남,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
- 고용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내 일자리 비중은 16개 시·도 중 울산이 1위이며, 서울은 충남, 경남, 충북 등에 이어 5위 수준
- 제주, 부산, 대구, 인천, 전남, 전북, 광주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
-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내 일자리 비중은 16개 시·도 중 서울이 12위 수준
- 대구, 인천, 충남, 경기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

표 4-16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인별 시·도내 비중

(단위 : %)

구분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
전국	53.4	63.8	71.2	49.2
서울	60.1	65.2	71.3	62.5
부산	44.1	56.1	72.3	42.1
대구	42.5	56.3	67.2	43.4
인천	50.9	59.1	67.7	43.5
광주	50.2	63.6	76.5	47.9
대전	49.6	63.9	73.4	51.9
울산	65.3	70.9	72.6	38.9
경기	53.2	64.3	69.9	48.1
강원	44.1	64.2	74.6	44.1
충북	51.1	65.8	72.4	42.3
충남	56.4	70.3	68.6	41.8
전북	45.7	61.3	73.4	42.9
전남	52.3	61.1	75.9	44.6
경북	49.9	63.9	72.0	42.3
경남	56.0	69.3	72.2	42.0
제주	36.1	52.6	73.5	38.8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음영이 표시된 부분은 시·도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이 전국 평균 이상임을 의미

### 2.2.3 관찮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따른 시·도별 유형

- 16개 시·도 내 일자리를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 등에 따라 전국 평균과 비교분석한 결과 8가지 유형이 도출
- 유형1 :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
- 서울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이 유형에 속하여 고용의 질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다양한 요소를 만족시키는 지역

- 특히 구성요소별로 볼 때,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사회·경제적 위세가 매우 강하고 그다음은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
- o 유형2 :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사회·경제적 위세만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유형 1과 거의 유사
- 16개 시·도 중 울산과 경남이 이 유형에 해당
- 특히 울산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임금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양호한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위세는 상대적 열위
- o 유형3 : 임금과 고용안정성은 전국 평균을 웃도나, 근로시간과 사회·경제적 위세는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3에 해당하는 지역은 충남
- 충남의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는 일자리 비중은 16개 시·도 중 2위
- o 유형4 :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는 전국 평균을 웃도나, 임금은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4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
- 대전은 서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세 기준을 만족하는 일자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지만, 임금 기준을 만족하는 일자리 비중은 49.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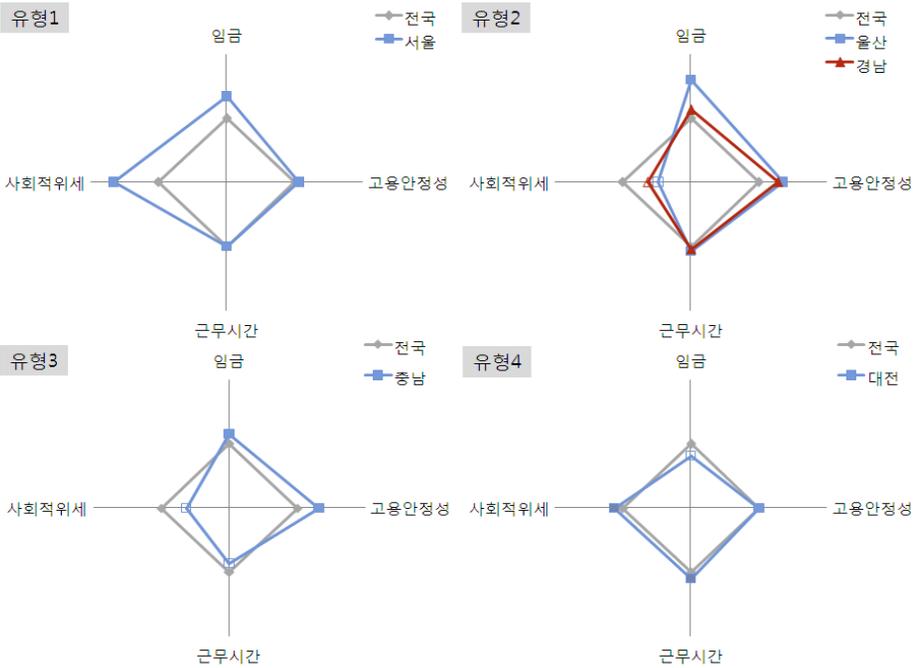


그림 4-23 관참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따른 시·도별 유형(1~4)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유형5 : 고용안정성과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을 웃도나, 임금과 사회·경제적 위세는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5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북,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
  - 경북, 강원, 충북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지만, 임금 측면에서 강원은 경북과 충북에 비해서도 열위한 편
  - 강원 일자리 중 임금수준을 만족하는 일자리는 44.1%로 전국 평균을 9.2%p 하회(16개 시·도 중 13위)
  - 반면, 충북과 경북의 일자리 중 임금수준을 만족하는 일자리 비중은 각각 51.1%, 49.9%로 전국 평균을 2.3%p, 3.5%p 하회
- 유형6 : 고용안정성만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임금,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는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6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로, 고용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그 격차는 미미하여 전국 평균과 매우 유사
- o 유형7 : 근로시간만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경제적 위세는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7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주,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 특히 제주는 임금(전국 평균 17.2%p 하회), 사회·경제적 위세(전국 평균 10.4%p 하회), 고용안정성(전국 평균 11.2%p 하회) 등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
- o 유형8 :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경제적 위세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
- 유형8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구, 인천 등 2개 지역
- 특히 대구의 일자리 중 임금기준을 만족하는 일자리 비중은 42.5%로 전국 평균 수준을 10.9%p 하회(16개 시·도 중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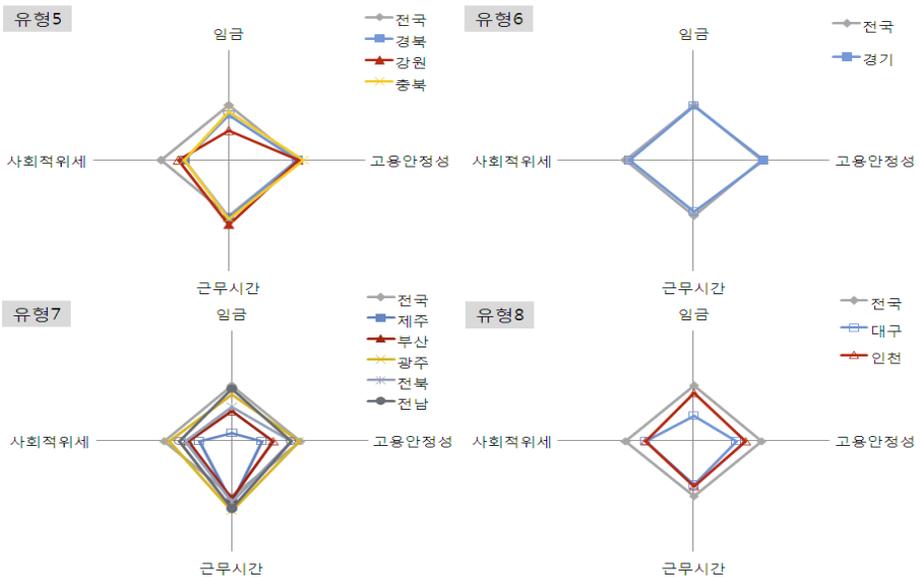


그림 4-24 관참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따른 시·도별 유형(5~8)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3.1 연령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0~40대가 67.4%를 차지
-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0대 40.1%, 40대 27.3%, 20대 이하 17.5%, 50대 13.2%, 60대 이상 1.9% 등의 순으로 구성
- 2013년 연령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20대 이하 282,093, 30대 646,647, 40대 441,173, 50대 212,416, 60대 이상 31,370
-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 순위는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동일하지만, 30대와 40대로의 연령대 편중이 더욱 심화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30대(37.6%)와 40대(27.8%)가 55.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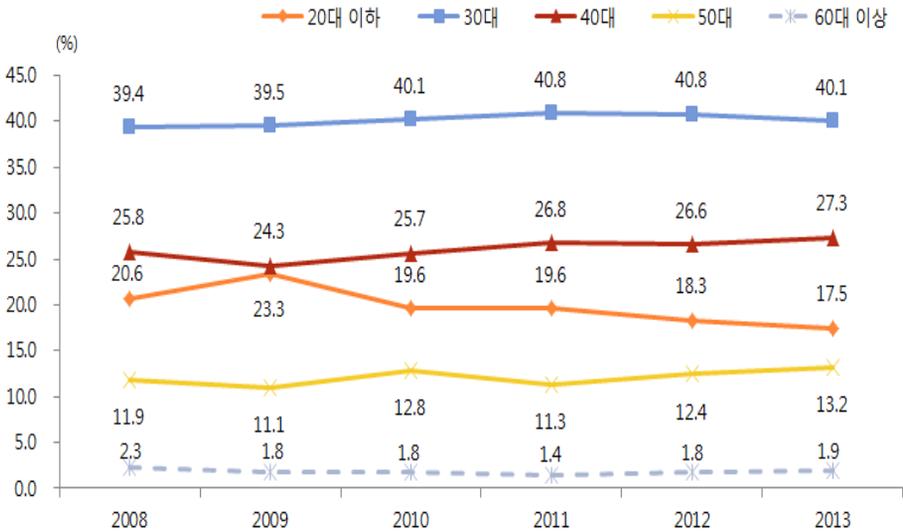


그림 4-25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008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축소된 반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확대되는 추세
- 2008년 대비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40대(1.5%p), 50대(1.3%p), 30대(0.7%p) 순으로 확대
- 반면, 같은 기간 중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각각 3.1%p, 0.4%p 축소
- 2008년 이후 연령별로 본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주로 30대, 40대 및 50대가 주도
- 2008~2013년 중 서울의 연령대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은 50대(7.5%), 40대(6.5%), 30대(5.7%), 20대 이하(1.9%), 60대 이상(1.6%) 등의 순

표 4-17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대별 규모 추이

구분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20대 이하	256,749	328,205	274,588	286,382	288,962	282,093	1.9
30대	490,129	556,445	562,900	595,371	642,959	646,647	5.7
40대	321,594	490,129	359,708	390,958	419,348	441,173	6.5
50대	147,664	342,349	179,446	165,495	196,101	212,416	7.5
60대 이상	28,961	321,594	25,406	20,051	28,856	31,370	1.6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3.2 성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남성 63.9%, 여성 36.1%로 구성
- 성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남성 1,031,665, 여성 582,033

- 성별로 본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별 비중차이가 적은 편
- 2013년 서울시 관찮은 일자리 성별 비중격차(남성-여성) :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37.0%p,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27.8%p
- 2008년 이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 증가세가 큰 편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여성 일자리 비중은 2008년 대비 2.4%p 확대(남성 일자리 비중은 2.4%p 축소)
- 2008~2013년 중 성별로 본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6.7%로 남성(4.6%)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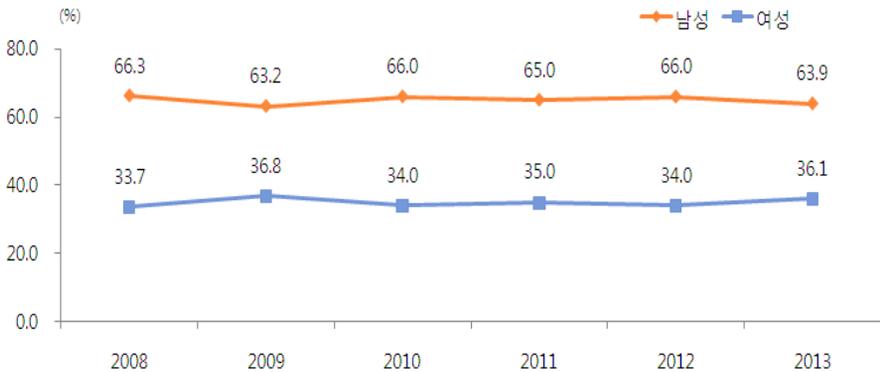


그림 4-26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성별 비중 추이

자료 : 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4-18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성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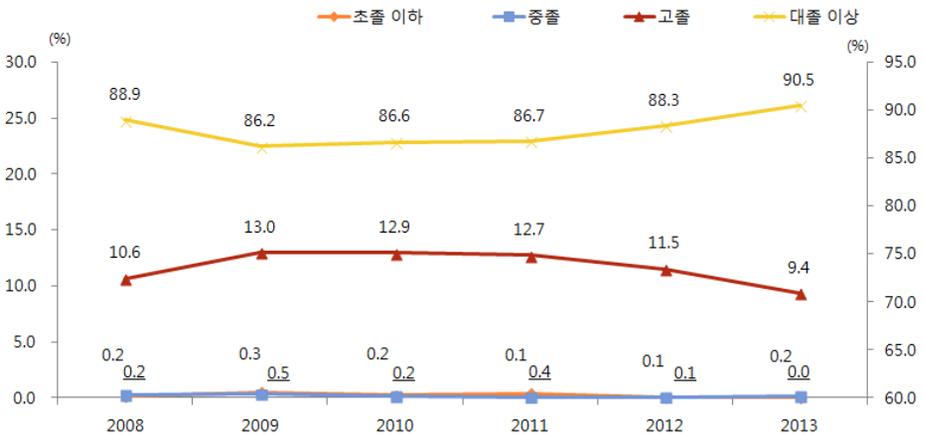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남성	824,882	889,661	925,139	948,134	1,039,663	1,031,665	4.6
여성	420,216	518,044	476,908	510,124	536,563	582,033	6.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학력별 특성**

-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90% 이상을 대졸 이상이 차지
- 2013년 학력별로 본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대졸 이상 90.5%, 고졸 9.4%, 중졸 0.2%, 초졸 이하 0.0%로 구성
- 2013년 학력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대졸 이상 1,459,720, 고졸 150,898, 중졸 2,620, 초졸 이하 460
- 서울의 학력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비중은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에 비해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에 비해 대졸 이상 비중이 9.9%p 높고, 고졸 비중은 10.0%p 낮음
- 이는 고학력자의 일자리 경쟁력이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사회·경제적 위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
-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08년 대비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학력별 비중 증감 : 대졸 이상 1.5%p, 고졸 -1.3%p, 중졸 -0.1%p, 초졸 이하 -0.2%p



**그림 4-27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비중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008년 이후 학력별로 본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는 대졸 이상과 고졸을 제외하고는 하락했는데, 특히 대졸 이상의 증가세가 높은 편
- 2008~2013년 중 학력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 연평균 증가율 : 대졸 이상 5.7%, 고졸 2.6%, 중졸 -2.2%, 초졸 이하 -27.2%

표 4-19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규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 명, %)
							연평균 증가율
초졸 이하	2,255	7,379	3,357	6,117	893	460	-27.2
중졸	2,930	4,509	2,550	1,507	1,453	2,620	-2.2
고졸	132,573	182,495	181,337	185,617	181,386	150,898	2.6
대졸 이상	1,107,340	1,213,321	1,214,803	1,265,017	1,392,495	1,459,720	5.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4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산업별 특성

### 2.4.1 산업 대분류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대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에 62.8% 분포
- 2013년 대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3.5%), 도·소매업(12.3%), 금융 및 보험업(11.2%), 교육서비스업(8.7%)
- 상위 5대 산업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4,61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8,336, 도·소매업 198,811, 금융 및 보험업 181,319, 교육서비스업 140,718
- 특히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비교하여 도·소매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은 확대

- 도·소매업은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선 상위 5대 산업 중 1위였으나 3위로 하락했고, 2위였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위로 부상했으며, 5위였던 건설업이 탈락한 반면, 교육서비스업이 5위로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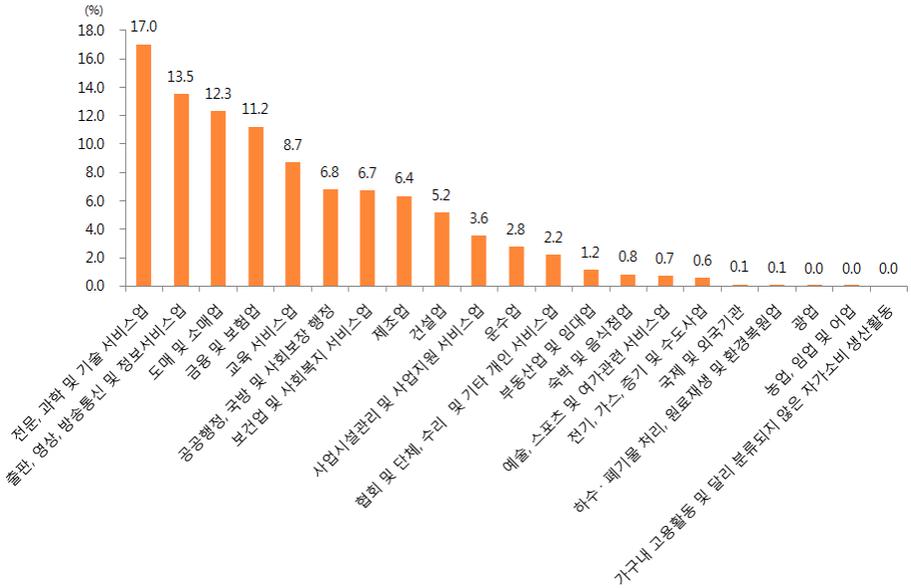


그림 4-28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08년 이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대분류 산업 중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확대
- 2013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에선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대비 4.0%p 확대되고, 그다음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2.4%p 확대
- 2008~2013년 중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5%) 등의 순

표 4-20 서울시 다원적 관함은 일자리의 주요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일자리 수	비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1,914	13.0	179,036	12.7	201,553	14.4	222,204	15.2	262,034	16.6	274,619	17.0	11.1	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8,634	11.1	175,245	12.4	190,520	13.6	203,393	13.9	229,440	14.6	218,336	13.5	9.5	2.4
도매 및 소매업	139,376	11.2	166,039	11.8	145,968	10.4	172,001	11.8	224,026	14.2	198,811	12.3	7.4	1.1
금융 및 보험업	142,933	11.5	162,144	11.5	158,977	11.3	152,099	10.4	153,577	9.7	181,319	11.2	4.9	-0.2
교육 서비스업	141,911	11.4	168,316	12.0	159,261	11.4	141,120	9.7	131,777	8.4	140,728	8.7	-0.2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039	8.2	108,727	7.7	98,518	7.0	99,059	6.8	103,766	6.6	109,548	6.8	1.4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582	6.2	86,538	6.1	79,324	5.7	88,536	6.1	97,109	6.2	108,648	6.7	7.2	0.6
제조업	125,376	10.1	122,023	8.7	116,221	8.3	122,186	8.4	108,219	6.9	102,527	6.4	-3.9	-3.7
건설업	75,146	6.0	77,718	5.5	78,783	5.6	73,476	5.0	77,801	4.9	83,881	5.2	2.2	-0.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594	2.6	38,065	2.7	40,245	2.9	47,835	3.3	57,532	3.7	57,424	3.6	12.0	0.9
운수업	35,359	2.8	36,995	2.6	45,292	3.2	44,697	3.1	42,582	2.7	44,435	2.8	4.7	-0.1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4,132	1.9	28,910	2.1	28,984	2.1	29,722	2.0	34,066	2.2	35,750	2.2	8.2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782	1.3	24,005	1.7	22,492	1.6	25,862	1.8	22,397	1.4	18,827	1.2	2.3	-0.2
숙박 및 음식점업	9,634	0.8	11,748	0.8	10,664	0.8	11,166	0.8	10,055	0.6	13,461	0.8	6.9	0.1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23> 참조

산업 중분류별 특성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산업 중분류별 비중 기준으로 제1의 산업은 전문서비스업
- 중분류 비중 기준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9.0%), 교육 서비스업(8.7%), 출판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8%) 등
- 2008년 이후 중분류 산업 기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전문서비스업과 출판업 등에서 비중과 일자리 수가 크게 확대
- 2008년 대비 2013년의 중분류 산업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 변화 : 전문서비스업 4.1%p, 출판업 2.4%p, 사업지원 서비스업 0.8%p, 도매 및 상품중개업 0.8%p, 소매업 0.4%p 등
- 2008~2013년 중 중분류 산업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전문서비스업 15.9%, 출판업 13.7%,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 소매업 8.7%, 협회 및 단체 8.3%, 도매 및 상품중개업 7.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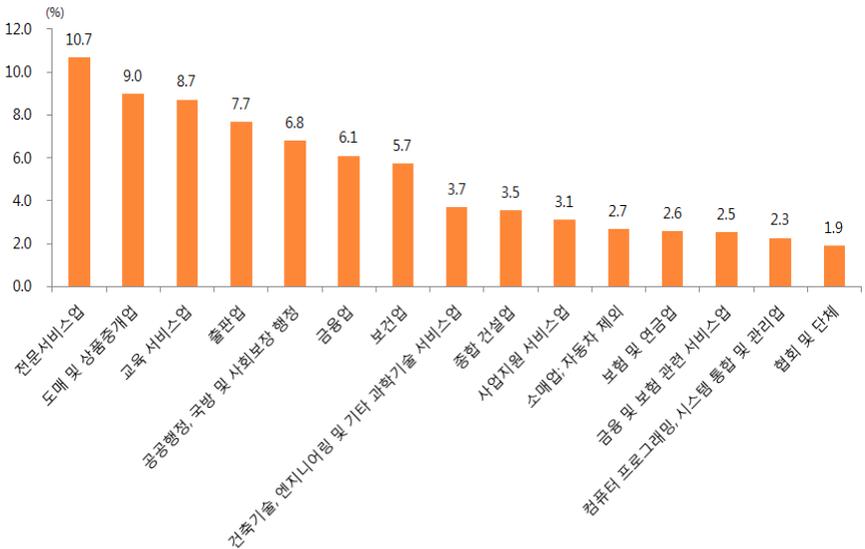


그림 4-29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상위 15대 산업)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표 4-21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주요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전문서비스업	82,293	6.6	93,829	6.7	109,228	7.8	124,583	8.5	159,283	10.1	172,198	10.7	15.9	4.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1,451	8.1	118,310	8.4	101,445	7.2	121,553	8.3	162,100	10.3	145,016	9.0	7.4	0.8
교육 서비스업	141,911	11.4	168,316	12.0	159,261	11.4	141,120	9.7	131,777	8.4	140,728	8.7	-0.2	-2.7
출판업	65,187	5.2	83,558	5.9	90,121	6.4	105,060	7.2	128,167	8.1	123,812	7.7	13.7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039	8.2	108,727	7.7	98,518	7.0	99,059	6.8	103,766	6.6	109,548	6.8	1.4	-1.4
금융업	74,835	6.0	88,010	6.3	79,011	5.6	72,820	5.0	81,633	5.2	98,357	6.1	5.6	0.1
보건업	68,006	5.5	78,174	5.6	69,574	5.0	79,547	5.5	83,190	5.3	92,640	5.7	6.4	0.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49,099	3.9	51,787	3.7	57,784	4.1	51,914	3.6	62,607	4.0	59,579	3.7	3.9	-0.3
종합 건설업	52,171	4.2	59,082	4.2	57,559	4.1	50,150	3.4	52,331	3.3	57,100	3.5	1.8	-0.7
사업지원 서비스업	28,533	2.3	32,040	2.3	33,806	2.4	39,086	2.7	47,772	3.0	50,488	3.1	12.1	0.8
소매업	28,354	2.3	35,429	2.5	32,874	2.3	38,297	2.6	47,749	3.0	42,944	2.7	8.7	0.4
보험 및 연금업	40,529	3.3	45,995	3.3	39,674	2.8	44,432	3.0	37,177	2.4	41,867	2.6	0.7	-0.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7,569	2.2	28,139	2.0	40,292	2.9	34,847	2.4	34,768	2.2	41,095	2.5	8.3	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31,641	2.5	31,049	2.2	38,134	2.7	42,269	2.9	38,804	2.5	36,658	2.3	3.0	-0.3
협회 및 단체	20,651	1.7	24,922	1.8	24,636	1.8	24,340	1.7	29,111	1.8	30,780	1.9	8.3	0.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주 : 기타 산업의 일자리 수와 비중은 <부록 표 24> 참조

## 2.5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직업별 특성

### 2.5.1 직업 대분류별 특성

-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89.8%를 차지
- 2013년 대분류 직업별로는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9%, 사무 종사자 44.9%, 관리자 5.5% 등의 순으로 구성
- 2013년 대분류 직업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24,884, 사무 종사자 723,819, 관리자 89,025 등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비교해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관리자 등의 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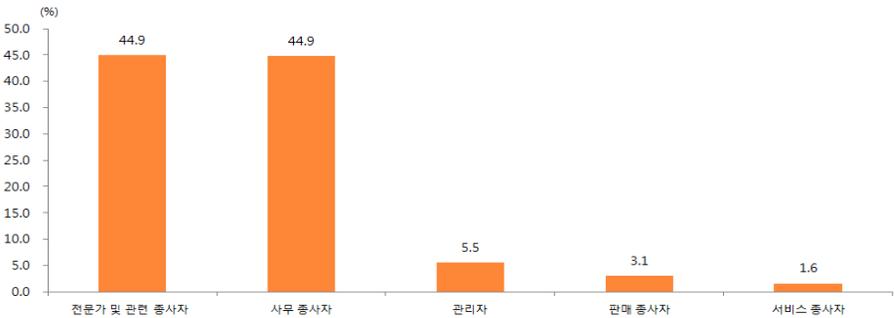


그림 4-30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08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 확대와 일자리 증가가 특징
- 2008년 대비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대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 : 사무종사자 1.1%p, 관리자 0.7%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4%p, 서비스 종사자 -0.3%p, 판매 종사자 -2.0%p 등

- 2008년 이후 대분류 직업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는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에서 대폭 증가
- 2008~2013년 중 대분류 직업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관리자 8.2%, 사무 종사자 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 서비스 종사자 2.0% 등

표 4-22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직업 대분류별 규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54,398	638,223	607,755	658,319	712,081	724,884	5.5
사무 종사자	544,419	630,765	658,406	644,349	700,392	723,819	5.9
관리자	59,905	56,379	42,630	74,626	90,747	89,025	8.2
판매 종사자	62,842	57,269	73,115	55,087	48,157	49,952	-4.5
서비스 종사자	23,533	25,069	20,142	25,877	24,849	26,018	2.0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2.5.2 직업 중분류별 특성

-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를 중분류 직업별로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35.1%가 분포
-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5.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8.5% 등의 순
- 2013년 중분류 직업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수(명)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67,09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6,725 등
-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상위 5대 직군은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동일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위세를 고려하지 않아 중분류 직업 전체<sup>58</sup>가 포함

<sup>58</sup>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에서는 직업 중분류별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에 따라 총 51개 중분류 중 19개 중분류, 9개 대분류 중 5대 대분류 직업만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를 구성

- 그러나 직업이 세분화될수록 사회·경제적 위세를 만족하는 직업이 임  
금기준을 만족하는 직업의 분포가 유사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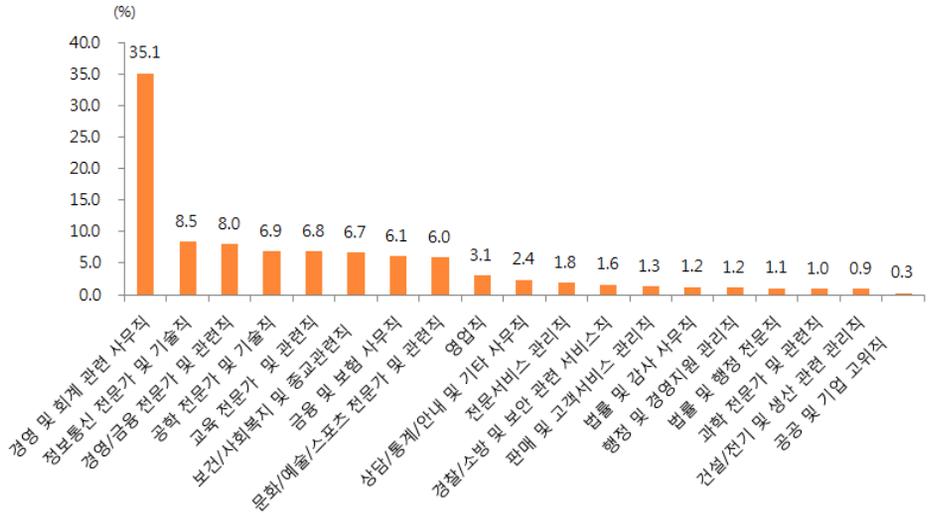


그림 4-31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주요 직업 중분류별 비중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 2008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를 직업별로 보면,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비중 확대가 가장 크고,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
- 2008년 대비 2013년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 변화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1.4%p),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1.2%p),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0.9%p),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0.9%p),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0.5%p) 등의 순
- 2008~2013년 중 중분류 직업별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0.8%,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9.1%,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9.0%,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8.7% 등의 순

표 4-23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426,935	487,697	528,405	501,967	561,925	567,091	5.8
정보통신 전문가 기술직	88,300	101,923	112,291	144,835	150,097	136,725	9.1
경영/금융 전문가 관련직	85,020	116,550	99,669	113,563	141,806	128,913	8.7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98,741	90,624	98,392	101,968	110,121	111,597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15,555	131,369	114,938	106,026	95,565	110,130	-1.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7,621	90,066	77,459	83,939	92,220	108,335	6.9
금융 및 보험 사무직	75,649	93,376	81,343	88,179	78,913	98,559	5.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62,534	76,234	78,013	79,138	92,932	96,033	9.0
영업직	62,842	57,269	73,115	55,087	48,157	49,952	-4.5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25,561	31,043	28,316	29,661	33,064	38,431	8.5
전문서비스 관리직	22,622	22,094	17,199	22,729	25,958	29,845	5.7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3,533	25,069	20,142	25,877	24,849	26,018	2.0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12,828	15,610	8,424	15,099	21,617	21,454	10.8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6,275	18,649	20,342	24,542	26,490	19,739	3.9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011	5,503	5,337	22,468	22,864	18,890	13.5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5,297	15,604	14,324	12,672	15,043	17,008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1,331	15,852	12,669	16,179	14,297	16,142	7.3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0,526	11,149	10,077	9,735	13,734	14,620	6.8
공공 및 기업 고위직	3,918	2,024	1,593	4,596	6,573	4,216	1.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3.1 작성 목적 및 방법

## 3.1.1 작성 목적

- 지금까지 살펴본 괜찮은 일자리 분석은 괜찮은 일자리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에 대한 파악
-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 분석을 통한 접근법은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총량과 변화, 미시적인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
- 반면, 질적 강도의 차이를 감안한 일자리 질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
- 괜찮은 일자리 수의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의 총량 변화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각 구성요인의 중요도 및 수준 차이를 무시한 방식으로 일종의 무가중치 방식과 유사한 접근법
- 만일 근로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보수, 고용안정성 등 구성요인별로 중요도를 달리하고, 수준차이가 크다면 이를 반영해 일자리 질의 강도를 파악할 필요
- 따라서 횡단면·시계열적으로 일자리 질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괜찮은 일자리 분석에서 사용된 구성요인을 이용하여 일자리 질 지수(Quality of Employment Index)를 작성할 필요
- 즉,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해 일자리 질에 대한 합성지수를 산출

## 3.1.2 작성 방법

- 일자리 질의 합성지수 산출을 위한 구성변수는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인과 동일하게 설정한 후 지표 간 측정 단위를 조정
- 괜찮은 일자리 분석에서 사용된 구성요인은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

-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월평균임금에 자연대수를 취한 후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sup>59</sup>
- 고용안정성은 상용직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상용직은 1, 계약직 및 임시직은 0의 값을 부여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에 1을, 그 외는 0의 값을 부여
-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직업 중분류 기준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
- o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측정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sup>60</sup>
- 57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수행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각 측정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
  - AHP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는 임금 0.298, 고용안정성 0.345, 근로시간 0.144, 사회보험 유무 0.140, 사회적 평판 0.072
  - 이는 일자리 질 평가에서 고용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임금, 근로시간 적정성, 사회보험 유무, 사회적 평판 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용안정성이 사회적 평판보다 5배 더 중요하다는 논리비교도 가능

---

59 임금  $(w) = \frac{\ln w - \min(\ln w)}{\max(\ln w) - \min(\ln w)}$ ,  $\ln w$ 는 월평균 임금의 자연대수 값

60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4가지가 가능함. 첫 번째는 '무가중치 방식'으로 구성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임. 두 번째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가중치를 선정하는 방법임. 세 번째는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에 대한 잠재변수로서 도구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일자리 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특성을 특성함수 형태로 파악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후 회귀계수 값을 가중치로 활용하는 방식임. 네 번째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방식'으로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측정변수의 총 변량에 대한 개별변수 분산의 상대적 비율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임.

- 자료집합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인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 4개 변수에 구해진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회보험 유무는 상수항으로 처리하여 일자리 질 지수를 계산
- 일자리 질 지수(QEI) 산출을 위한 최종 합성지수 식은 다음과 같음 :  

$$QEI_{ti} = 14.03 + 29.85 W_{ti} + 34.47 S_{ti} + 14.45 H_{ti} + 7.20 J_{ti}$$
- 단,  $QEI_{ti} = t$ 년도  $i$ 지역의 일자리 질 지수로 지역별 평균 점수,  $W_{ti} = t$ 년도  $i$ 지역 일자리의 임금,  $S_{ti} = t$ 년도  $i$ 지역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H_{ti} = t$ 년도  $i$ 지역 일자리의 근로시간,  $J_{ti} = t$ 년도  $i$ 지역 일자리 직업의 사회적 평판

표 4-24 일자리 질 지수 작성의 분석 변수와 가중치

변수	가중치	측정내용	활용 방식
임금(W)	29.9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에 자연대수를 취한 후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
고용안정성(S)	34.5	정규직 여부	상용직=1, 계약직과 임시직=0
근로시간(H)	14.5	주당 근로시간	주당 15시간~49시간 이하=1, 그 외는 0 값을 부여
사회적 평판(J)	7.2	직업	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를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
사회 보험(I)	14.0	사회보험 적용 여부	상수 처리

### 3.2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산출 결과

#### 3.2.1 서울시 일자리 질 지수 추이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전반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2013년 서울의 자리 질 지수는 70.1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1.5p 상회
- 2013년 전국 평균의 일자리 질 지수는 68.6 수준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67.0에서 2009년 70.9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대비 약 3p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0.1p 하락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하고, 전국은 연평균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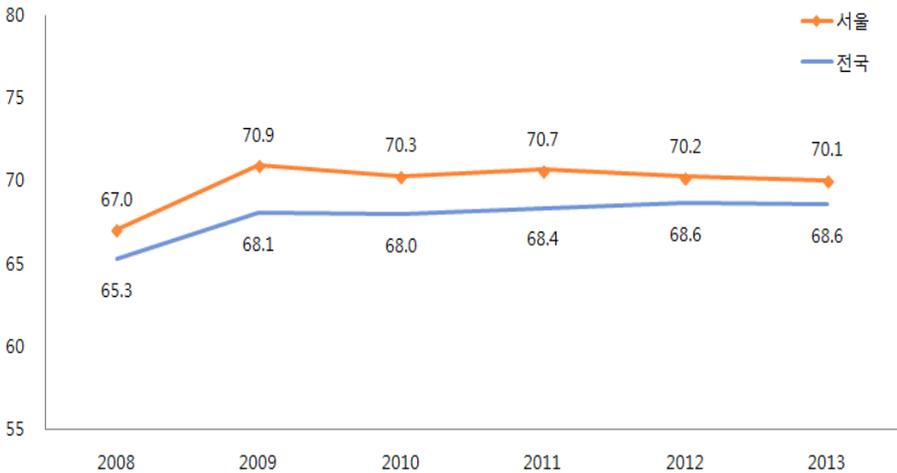


그림 4-32 2008~2013년 중 전국과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 추이

- 한편 2008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다소 차별화
- 2008~2011년 중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 지수는 동일한 패턴을 지속
-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는 2008년 1,245,098명에서 2009년 1,407,705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1,402,047명으로 감소한 후 2011년 1,458,258명으로 다시 증가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도 2008년 67.0에서 2009년 70.9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 70.3으로 하락했으나 2011년에 다시 70.7로 상승
- 그러나 2011년 이후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후 정체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11년 70.7에서 2012년 70.2로 하락한 후 2013년 70.1로 정체
- 최근 들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 지수가 동행하지 않는 것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인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일자리 질의 강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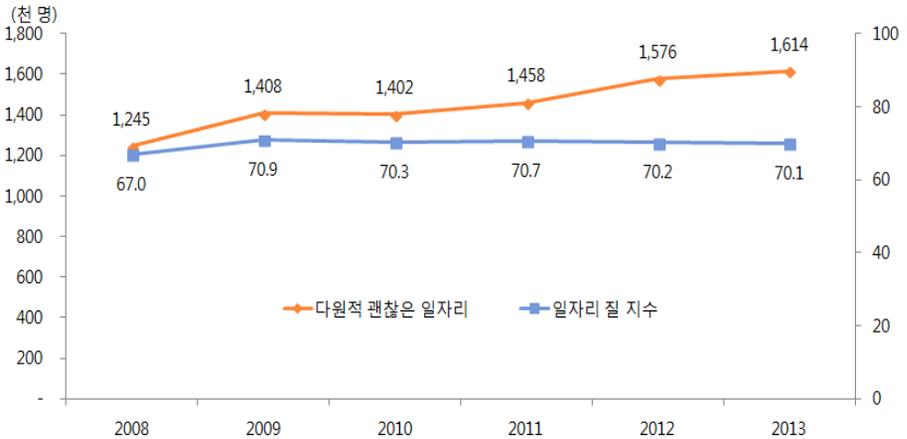


그림 4-33 2008~2013년 중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와 일자리 질 지수 추이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3.2.2 일자리 질 지수의 구성요소별 분해

- 일자리 질 지수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하면,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음
- 2013년 서울시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요소별 평균 점수는 고용안정성 22.5, 임금 19.7, 근로시간 10.3, 사회적 평판 3.5 등의 순

- 2008~2013년 중 구성요소별 점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은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등의 순으로 증가
- 2008~2013년 중 구성요소별 점수의 연평균 증가율 : 임금 2.8%, 고용안정성 -0.4%, 근로시간 1.7%, 사회적 평판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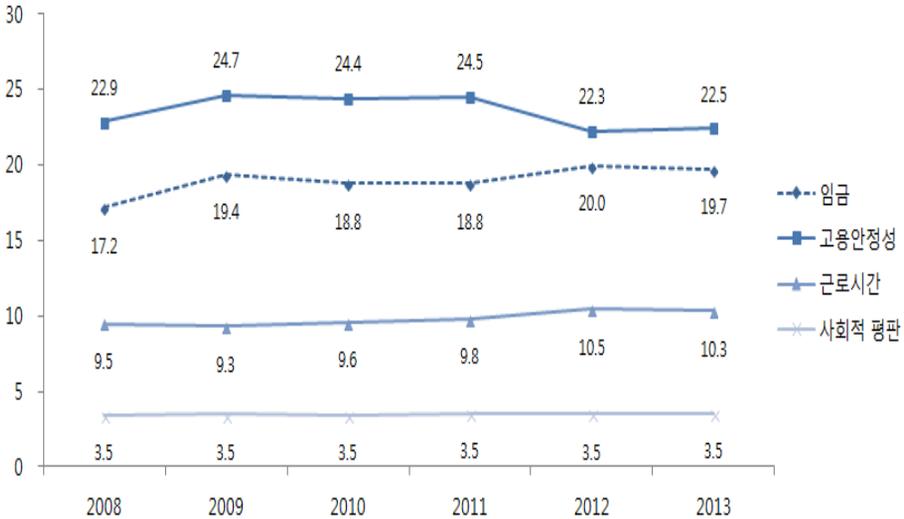


그림 4-34 2008~2013년 중 서울의 일자리 질 구성요소별 점수 추이

- 2008년 이후 구성요소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구성요소별 서울과 전국 평균 간 점수 차이는 고용안정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사회적 평판, 임금, 근로시간 등의 순
- 2008~2013년 중 서울과 전국의 구성요소별 점수 차이 : 임금 0.4p, 고용안정성 1.0p, 근로시간 0.2p, 사회적 평판 0.5p
- 특히 고용안정성과 근로시간 등의 서울과 전국 평균의 점수 격차는 2011년 이후 축소되는 추세

- 서울과 전국의 고용안정성 점수 차이 : 2011년 1.1p → 2012년 0.5p → 2013년 0.5p
- 서울과 전국의 근로시간 점수 차이 : 2011년 0.2p → 2012년 0.1p → 2013년 0.0p

표 4-25 2008~2013년 중 서울과 전국의 일자리 질 지수와 구성요소별 점수

구분		일자리 질 지수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적 평판
서울	2008	67.03	17.17	22.89	9.49	3.46
	2009	70.91	19.42	24.67	9.32	3.47
	2010	70.29	18.78	24.43	9.60	3.46
	2011	70.65	18.77	24.52	9.80	3.52
	2012	70.23	19.96	22.28	10.46	3.50
	2013	70.05	19.71	22.46	10.31	3.55
전국	2008	65.31	16.73	22.26	9.28	3.01
	2009	68.08	18.95	22.80	9.30	3.00
	2010	68.01	18.38	23.31	9.30	2.99
	2011	68.36	18.34	23.38	9.58	3.02
	2012	68.65	19.58	21.73	10.32	2.99
	2013	68.56	19.25	22.00	10.29	2.99

## V 향후 정책방향

- 1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 수립
- 2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
- 3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4 정책대상 선정과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 V 향후 정책방향

## 1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 수립

- 서울시는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만, 최근 고용의 질은 다소 정체되는 모습
- 향후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양적 확대를 모색할 필요
  -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 향상
  -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셋째,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괜찮은 일자리 정책대상의 선정과 정책 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마련



그림 5-1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안

##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35.1%에 불과할 정도로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 향상 요구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보수가 중위임금 이상인 일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60.1%이나, 이 중 25.0%는 보수를 제외한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낮음
- 예를 들어 서울의 일원적 관점은 일자리 중 13.5%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 또한 서울의 일자리 중 16.7%는 최저임금 이하이고, 23.2%가 최저임금 이상이나 중위임금 미만으로 보수도 열악한 일자리가 다수
- 잠재적 관점은 일자리(최저임금 이상~중위임금 미만) 중 52.8%가 임시직 및 일용직 일자리로 구성될 정도로 고용의 질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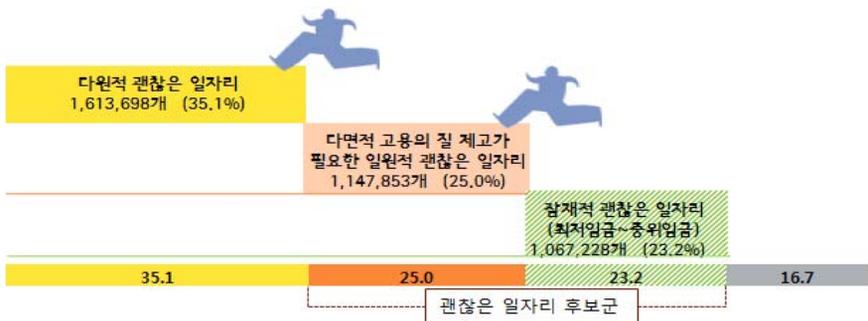


그림 5-2 2013년 기준 서울시 관점은 일자리 후보군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통계청

- 우선적으로 일원적 관점은 일자리와 잠재적 관점은 일자리를 대상으로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 향상을 모색할 필요

- 기존 일자리들의 양질화가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 창출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면적 측면의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가능
-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정책적 노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편
-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중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해당 일자리의 다른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전략도 바람직

## 2.1 보수 측면

- 서울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유도
- 현재 노원구,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가 공공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 생활임금제와 같은 효과적인 사회보호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면 근로빈곤층을 감소시키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
- 일반시민들은 괜찮은 일자리 조건으로 임금수준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비생산적이고 불확실한 일자리도 감수
-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필요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저임금 공공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뿐 아니라 민간 등 사회전반의 저임금에 대한 인식변화 기대

### 〈참고〉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생활임금제’

-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
- 물가수준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서 빈곤수준을 넘어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의미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생활임금제’
- 2012년 4월 생활임금 도입을 검토한 후 2011년 11월 15일 ‘생활임금 우선 적용방안’을 발표하고, 2013년 1월부터 적용
- 우선적용대상은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고, 우선적용 생활임금 기준액은 월 135만 7,000원

자료 : 최봉·김범식, 2013,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2.2 고용안정성 측면

- 고용안정성 제고는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발점
- 고용안정성은 전문가들이 향후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
-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보다 확대
-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산점 확대 검토
- 서울시는 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sup>61</sup>
- 협상계약은 1명당 0.4점, 10인 이상까지 반영하여 최대 4점 부여

-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1명당 0.4점, 5인 이상까지 반영하여 최대 2점 부여
-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더불어 고용보험 법상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 등 해고회피노력 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참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추진(공무직)**

-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를 공공분야에서 만든다”는 기조하에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2012년 5월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2012년 12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
  - 2013년 청소업무, 2014년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 정규직화 기준은 임금·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청소 → 시설·경비 → 기타 분야)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경비 간접고용근로자 1,274명 정규직 전환 개시」, 2014.03.03

## 23 근로시간 측면

- 적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보장, 기업의 생산성 증대, 국가의 경제성장 유인 등의 측면에서 중요
-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중 26.7%는 주당 적정근로시간(15~49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자리
- 특히 장시간 근로는 고용안정성이나 임금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편

61 서울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2013.11.18.

- 중소기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 강화
-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유도
-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는 신규 근로자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화 투자, 단축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검토

**〈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 훈련, 유·무급휴직, 인력 재배치에 활용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자료 : 김선기·박승규·전대욱·최인수, 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고〉 일본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정책’**

- 근로시간 단축 조성금 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촉진 특별장려금 제도(1993~1997) :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실시 계획에 따라 자동화 투자 및 신규 고용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직접 지급(단축 노력에 따라 지급기준액 증가)
- 중소기업 근로시간제도 개선 조성금 제도(1997~1999.3, 2001~2002)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을 파악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비용지원
- 이 밖에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 근로시간 단축 추진센터 설립, 연장근로 삭감 요강 제정 등을 시행

자료 : 조준모·이상희·권태희, 2010,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사회보험 측면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이 ‘두루누리 사업’을 추진
-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으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그러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사업의 실효성 저하
- 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15.6%에 불과

표 5-1 두루누리 사회보험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지	비인지	전체
근로자	12.9	87.1	100
사업자	27.2	72.8	100
전체	15.6	84.4	100

자료 : 최옥금·조영은, 2013,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두루누리 사업의 서울시 협약을 통해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로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 발굴 기회 확대
- 사업장 관련 각종 인·허가 시 시청 및 구청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안내하여 참여 기회 확대
- 주민센터를 통한 두루누리 사업 안내 제공과 기초보장 등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주민상담 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홍보

-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우대 및  
우선 배정,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 설치 등 안전  
지원 인센티브 부여

**<참고>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으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시행 :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1월 현재 월 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  
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50%까지 지원
- 지원대상은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자, 근로자 기준으  
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자료 : <http://insurancesupport.or.kr/>

### 3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3.1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괜찮은 일자리 측면에서 서울의 유망산업을 탐색한 후 이를 육성해 관  
          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유지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우선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유망산업 및 성장산  
          업을 육성

- 2008~2013년 중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주도
- 2008~2013년 중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 전문서비스업 15.9%, 출판업 13.7%,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 등
- 2008~2013년 중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업지원 서비스업 0.5% 등
-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을 서울시 산업육성전략과 연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육성, 권역별 육성 전략과의 연계 등을 강화하여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로 재편
- 특히 제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 사업서비스업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서비스업 관련 각종 협의 등의 정보를 집중 관리·제공하여 사업서비스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 **<참고> 스웨덴의 산업클러스터 연계 지식서비스**

- 스웨덴은 IT 제조기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전망, 협력업체 소개,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언, 법률 상담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IT컨설팅 발달
- 경쟁력을 가진 IT 제조업에 연구기관과 사업서비스 기업을 집적시킨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공격적 R&D 활동, 우수한 고등교육 등으로 고부가가치화와 높은 고용을 동시에 창출
- 대학이 산업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과 적극적 산학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력 공급 및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

자료 : 김영수, 2013,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전달체계 개선

-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는 괜찮은 일자리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저임금 속에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
-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수혜와 이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 제고가 가능한 분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적합
-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향후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의 경우 주민복지와 밀접한 공공성도 가진다는 특수성 존재
- 공공부문이 모든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막대한 비용부담과 효율성 저하 등의 제약요인 발생
-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담당할 역할을 설정하되, 두 부문이 상호 협력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
- 시장의 개입이 없이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혁신형 사회적기업(Social Venture) 육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생태계 구축에 주력
- 공간인프라 지원(클러스터 구축)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

### 〈참고〉 캐나다의 Santropol Roulant

- 지역사회 연계(세대 간 통합/지속가능 공동체)형 Social Venture로 1995년 2명의 청년실업자(Chris Codsall, Keith Fitzpatrick)가 사회적 가치 및 직업경험을 쌓은 후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자전거 도시락 배달봉사(Meals on Wheels)부터 시작
- 혁신적 음식배달 사업과 세대 통합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한 해 270여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

자료 : <http://santropolroulant.org/>

- 공공부문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 제고
- 사회복지서비스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등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업 특성상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및 조정체계 필요
- 서비스전달체계 및 운영과정 개선을 통해 보수와 고용안정성을 제고
  - 공공부문 담당자는 일반행정 업무를 배제하고, 방문상담,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해 전문성과 사업지속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지속적 확충과 정규직화 필요(민간부문의 전문인력 특채 병행)
  - 민간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 계약 시 민간부문에서 임금단가를 줄여 서비스단가를 낮추는 관행 개선(적정 인력 및 인건비 기준 부과)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운영방식 개선
- 사전에 보수, 근로조건 등 관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밀한 위탁설계(Contracting Out Design) 실시
  - 공공부문의 달성목표를 반영한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지표와 연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불보수를 확정하며,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근로자 수, 보수, 근로조건 등 지정
- 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유지 등 사후 위탁 관리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 확충으로 위탁의 질과 실태를 수시 모니터링
  - 기존에 서비스 수혜자를 산출지표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결과지표로도 활용해 위탁비용은 계약 시 일정 부분 지급하고,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
  - 민간위탁 공공 고용서비스에서 서비스 수혜자 취업 여부, 취업유지, 임금수준,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위탁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
  -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불금액을 차별화해 난이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보다 높은 금액 지불
- 고용의 질 개선 측면에서 완전 민간위탁보다 민관혼합형이 바람직

- 서비스 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계약 갱신 조건의 지속적 검증
- 고용의 질 유지 등을 고려해 적정량의 서비스는 비영리기관이나, 공공 조직 등이 제공하도록 유지해 나가는 전략 필요

**〈참고〉 민간위탁 공공 고용서비스의 Creaming & Parking 해소**

- Creaming & parking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성과계약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 Creaming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달성에 유리한 사업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
  - Parking : Creaming의 일종으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계약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더 이상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행태
- 사업대상자 profiling을 통해 취업 난이도 등에 따라 상이한 계약 조건 제시
  - 호주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대상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호주는 사업초기에 취업을 중심의 성과계약을 활용하였으나,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취업 난이도가 높은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점차 중심의 성과계약으로 변화

자료 : 박노옥, 2009,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제151호

**33 인력양성과 전업·전직 프로그램 강화**

- 괜찮은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전업·전직 프로그램 강화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직업 변화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강화
- 특히,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는 산업의 기술·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수요와 인력양성의 미스매칭(부조화) 해소

-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전업·전직 프로그램 운영
- 전업·전직희망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창업이나 재취업 훈련 강화
- 전업·전직 희망자의 직능과 적성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구직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 〈참고〉 서울시의 '기술교육원'

- 기술 교육원은 산·학 연계의 전문기술인 양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을 목표로 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로 2012년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서울특별기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동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등 4대 교육원 보유
- 기술교육원 학과는 건축디자인계열, IT디자인계열, 가정계열, 산업설비·기계계열, 서비스계열, 자동차계열, 전기전자계열 등 총 70개 학과가 있으며, 단과과정으로 일반과정, 여성과정, 재직자능력향상과정 총 27개 학과 운영
- 교육비(수강료, 실습비, 교재비)가 무료이며,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대상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 등의 특전 부여

자료 : <http://www.stechedu.or.kr/>,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인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깃팅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은 개인별 공공지원 이력(실업급여, 상병급여, 기초생활지원금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 프로파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용
- 개인 프로파일은 기본정보(연락처, 주소, 생애주기, 고용상태 등), 고용이력 정보(실업급여 수급여부, 수급금액, 직업훈련이력 등)를 제공

- 특히 개인 프로필 기반 타겟팅 서비스는 개인별 고용이력을 취합해 개인별 노동시장 이행과정별로 경력개발 단계를 분석해 맞춤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미국, 네덜란드 등 고용 서비스 선진국은 개인 프로필 기반 타겟팅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
- 각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3대 고용DB(고용보험, 구인구직, 직업훈련)를 통합해 개인 프로필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
- 개인 프로필 및 근속기간 정보에 근거해 취업가능성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산업과 직종 등을 추천
- 타 업체로 이직 시 프로필 통계분석을 통해 단계적 직장이동(소기업 → 중기업 → 대기업) 지원 가능

**〈참고〉 미국 조지아주의 FDSS(Frontline Decision Support System)**

- Targeting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FDSS(Frontline Decision Support System)는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주에 파일럿 적용 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
  - 2001년 초 조지아주 2개 경력 센터가 연계해 구축
- FDSS는 조지아주 구직자들의 최근 활동에 기반을 둔 가이드라인 제공(고객 특성, 과거의 서비스 데이터, 노동시장 정보 등 포함)
  - SJSM(The Systematic Job Search Module) : 재취업 확률 및 예상 수익, 희망 일자리의 증가세, 관련 직업 등 고용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 SRM(The Service Referral Module) : 재취업 및 직업 훈련 서비스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자료 : 지승현, 2011, “3대 고용DB 통합을 통한 Targeting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이슈』 Vol.4, No.3: <http://www.upjohninst.org/fdss/>

- 관청은 일자리의 대졸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졸 인력의 진입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공공부문이 적극 활용하거나 우수기업과 연계 확대
- 서울시의 고졸자 고용촉진대책 등에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적극 활용
  - 현재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2013년 기관 채용인원 약 210명)하고, 민간부분의 고졸 채용 촉진을 위해 월 100만원씩 12개월까지 급여지원
- 그러나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보다는 지역 노동시장을 고려한 산업인력 양성 정책이 더 근본적인 대안
  -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서울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한 연계 강화
  - 마이스터고와 기업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취업기회 및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 제공

#### **〈참고〉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 2008년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8차에 걸쳐 전국 42개 마이스터고 지정
  -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협력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1일 기준으로 35개 마이스터고와 2,936개 협약기업이 7,815명의 채용 약정 협약
-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기계, 뉴미디어, 모바일, 바이오산업 등 20개 산업 분야에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은 뉴미디어콘텐츠(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에너지(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해외건설·플랜트(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로봇(서울로봇고등학교) 등 총 4개 산업에 4개 고교가 있음

자료 : <http://www.meister.go.kr>, 마이스터고 홈페이지

## 정책대상 선정과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선정할 필요
- 정책대상의 우선 후보군은 기존의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 기존의 괜찮은 일자리는 해당 산업 및 인력 육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정책개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대표적
- 정책대상인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에서 해당 산업과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세분화한 후 규모와 속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 괜찮은 일자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자리 성격 등에 따라 임금수준,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등의 기준이 매우 다양
- 따라서 사업특성에 따라 대상 일자리를 어떻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립
- 업종 특성, 연령, 학력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설정
- 일부 연구에 의하면, 돌봄서비스에서 괜찮은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임금수준은 이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제시한 중위임금(180만원) 이상보다 낮은 135만원 이상 수준
- 또한 정책대상의 일자리 질 개선도 동시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괜찮은 일자리 조건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전문가들은 고용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 등을 지적

-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라 고용안정성, 보수, 근로시간, 사회보험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 수립

### 〈참고〉 돌봄서비스의 관점은 일자리 기준(예시)

- 돌봄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 의·식·주를 보장하여 주는 보육, 그룹홈 보호, 산모도우미, 재가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 일부 연구에 의하면, 돌봄서비스의 관점은 일자리 후보조건은 자발적 일자리 선택, 적절한 임금(월평균 135만원 이상), 적정 근로시간(1일 10시간 기준), 고용안정성(정규직 여부), 일과 가족생활 양립 및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4대 보험 적용), 노사협의 기구, 전문적 교육 여부 및 기간, 주관적 만족(이직 및 사직)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자료 : 최희경, 2009,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1

-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설정해 추진할 경우 정책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가능
-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정책대상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정책목표 설정 용이
-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마련하면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구인 및 구직 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사업체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자극제 역할 가능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2,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보도자료 (2012.08.01.).
- 고용노동부, 2014, 2014년 4대 정책목표, 보도자료 (2014.02.12.).
- 김재호, 2012, “청년취업난의 악화(II) :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노동리뷰』 89, pp. 39-57.
- 김보람·문은하, 이승윤, 2012,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pp. 31-59.
- 김영수, 2013,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 김영은·이건남, 2013, “2007 개정 실과 교과서에 제시된 직업위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65-184.
- 김용성, 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월화·유홍준, 2013, “한국의 직업위세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pp. 181-193.
- 김선기·박승규·전대욱·최인수, 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수현, 2013, 「양질의 일자리, 경제위기를 끌어내는 출발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수현, 2013,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수현, 2013,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수현·강세진, 최정은, 2014,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김진희, 2011, “고용의 질과 고물업 인적자원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학지』 16(3), pp. 89-98.
- 노동환·신종각, 2007,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0(3), pp. 45-65.
- 류만희, 2009, 가사, “간병서비스 공급자의 근로실태와 좋은 일자리”, 『노인복지연구』 45, pp. 235-259.
- 문순영, 2008,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3, pp. 207-237.
- 박노옥, 2009,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제151호.
- 박상현, 2010, “OES를 활용한 관찮은 일자리의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박현정, 2010, 「고용의 질 측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 방하남·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pp. 93-126.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 2007, 「고용의 질」, 한국노동연구원.
- 배민근, 2008, 「고용의 질 아직 갈 길 멀다」, LG경제연구원.
- 백학영·구인회, 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pp. 87-117.
- 서울특별시, 2014, 2014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
- 송영남, 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4), pp. 209-233.
- 송영남, 2011,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지방행정연구』 25(3), pp. 313-341.
- 어수봉·조세형, 2006,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 pp. 153-186.
- 윤영모, 2005,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찾아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상현, 2005, “DecentWork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pp. 4-11.
- 이인숙·배화숙, 2008,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보장연구』 24(2), pp. 53-80.
- 이흥직·최원희·권소일, 2011, “미취업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에 관한 인식 유형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 pp. 93-121.
- 장광수·임진·김상훈, 2011,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한국은행.
- 장혜정·고혜원·전재식 외, 2012,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 서울특별시·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준모·이상희·권태희, 2010,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조준모·황성수, 2008, “중견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노동리뷰』 8, pp. 48-57.
- 지승현, 2011, “3대 고용DB 통합을 통한 Targeting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이슈』 Vol.4, No.3.
- 최봉, 김범식, 2013,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pp. 1-42.
-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pp. 227-252.
- 최옥금·조영은, 2013,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최희경, 2009,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 27-57.

한국고용정보원, 201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홍성우, 2008, “광주, 전남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40(2), pp. 17-36.

Francis Green, 2005, “OECD 선진국에서의 ‘고용의 질’ 개념의 발전”, 『국제노동브리프』 3(7), pp. 24-30.

Ahlburg, D.A., Song, Y.N., Leitz, S., 1995, **Are Good Jobs Disappearing? Evidence for Minnesota from the 1980 and 1990 Censuses**, Minneapolis: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University of Minnesota.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Mehran, F., Ritter, J., 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147-178.

Bescond, D., Chataignier, A., Mehra, F., 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179-211.

Clark, A.E., 1998, **Measures of job satisfaction: what makes a good job?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n: OECD Working Paper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Paris : OECD.

Freeman, R., 1978, Job satisfaction as an economic variable, *American Economic Review* 68(2) : 135-141.

Ganzeboom, H.B.G., De Graaf, P.M., Treiman, D.J.,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1) : 1-56.

Ganzeboom, H.B.G. and Treiman, D.J., 2005, Internation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File: Conversion Tools, Available from: <http://www.harryganzeboom.nl/ismf/index.htm> (on 06.20.14)

Ghai, D., 2003, Decent work: Concept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113-145.

Jencks, C., Perman, L., Rainwater, L., 1988,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Market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 1322-1357.

Locke, E.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 Dunnette, M.D.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1297-1349), Chicago : RandMcNally.

Morissette, R. and Johnson, A., 2005, **Are Good Jobs Disappearing in Canada?**, Ottawa : Statistics Canada.

Piore, M.M.J., 1978, Dualism in the labor market: A response to uncertainty and flux. the case of France, *Revue Economic* 1(1) : 26-48.

Ritter, J. and Anker, R., 2002, Good jobs, bad jobs: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1(4) : 331-345.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국가통계포털
<a href="http://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a>	통계청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고용노동부
<a href="http://www.meister.go.k/">http://www.meister.go.k/</a>	마이스터고
<a href="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a>	서울시청
<a href="http://www.stechedu.or.kr/">http://www.stechedu.or.kr/</a>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a href="http://insurancesupport.or.kr/">http://insurancesupport.or.kr/</a>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사회보험
<a href="http://www.wage.go.kr/">http://www.wage.go.kr/</a>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a href="http://kaia.or.kr/">http://kaia.or.kr/</a>	한국의류산업협회

## 부 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	--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파악과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강원목 과장 (Tel. 02-2183-9155)
- 회 신 처 : Fax. 02-512-0777 / E-mail. kdn21@kdn21.co.kr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전화번호	
-----	--	------	--

### 1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 만 2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설문 중단
2.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3. 부양가족 유무 : ① 있음 (            )명            ② 미혼/독신
4. 최종학력 :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초급대, 2년·3년제 대학 포함)  
                  ④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교 포함)            ⑤ 대학원졸(석사 수료 이상)
5.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 문6으로 이동  
 ② 미취업자 → ( (1) 구직 중            (2) 학생            (3) 구직단념자 등 기타 )            ☞ 문11로 이동

6.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②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  
 ③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  
 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  
 ⑥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
7. 귀하는 현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                      )년
8. 귀하는 현 직장에서 일주일에 연장근무를 포함해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                      )시간
9. 귀하는 현 직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일 일하십니까? (                      )일
10. 귀하의 월평균 임금(임금근로자) 또는 소득(비임금근로자)은 얼마나 됩니까? (                      )만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1. 귀하께서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얼마입니까? 연봉/연간 소득 기준 \_\_\_\_\_만원
12. 귀하께서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13. 귀하께서 희망하는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_\_\_\_\_
14. 귀하께서는 소득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귀하께서는 소득보다 사회보험이 잘되어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귀하께서는 소득보다 근로시간이 적절한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께서는 소득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귀하께서는 고용안정성보다 사회보험이 잘되어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귀하께서는 고용안정성보다 근로시간이 적절한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 귀하께서는 고용안정성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께서는 사회보험보다 근로시간이 적절한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귀하께서는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귀하께서는 근로시간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양질의 일자리'는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만족도 등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24.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 다음 각각의 조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적절한 임금(소득)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근로시간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①	②	③	④	⑤
(6)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원활한 노사관계	①	②	③	④	⑤

25. 위의 조건들 중 개인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3) 3순위 \_\_\_\_\_  
 (4) 4순위 \_\_\_\_\_ (5) 5순위 \_\_\_\_\_

26.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각각 최소한 어느 수준이 되어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1) 임금(소득) 수준	월평균 ( )만원 이상
(2) 적정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 )시간 이상에서 ( )시간 이하
(3) 고용 안정성	- 종사상 지위 : (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택일) - 정년 연령 : 만 ( )세
(4) 사회보험 여부 (※ ①, ②, ③ 중 하나를 선택)	①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보장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장
(5)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 (※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에 대한 평균을 3점이라고 할 때, 1점, 2점, 3점, 4점, 5점 중 선택)	① 1점(매우 나빠도 됨) ② 2점(나빠도 됨) ③ 3점(보통이면 됨) ④ 4점(좋아야 됨) ⑤ 5점(매우 좋아야 됨)

※ 양질의 일자리 조건은 학력, 연령, 업종, 직종 등 대상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1단계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여부,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조건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질의 일자리는 이러한 **지표 각각에 대해 일정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입니다.

27.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전국 임금근로자 임금분포에서 중간값인 180만원(중위임금) 이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참고로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102만원,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126만원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은 일자리의 임금 조건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입니다.

28.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으로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 여부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29.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사회보험 여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30.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적정 주당 근무시간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49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하한 기준인 주 15시간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기준이고, 상한 기준인 49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입니다.

31.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으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산출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32. 귀하께서는 중앙정부가 현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33.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현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34. 귀하께서는 다음 중 향후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 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② 공공부문 등에서 빈곤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이 가능하게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 강화  
 ③ 직업능력 개발 등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  
 ④ IT-BT-GT-NT 등 첨단융복합산업과 관광-MICE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⑤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⑥ 돌봄 서비스, 육아, 교육 등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여건 개선  
 ⑦ 근로자의 과잉 근로시간 단축 유도  
 ⑧ 청년창업센터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창·취업 지원  
 ⑨ 전문기술인 양성이 목표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차세대 기술전문가 양성 강화  
 ⑩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창조전문인력 양성 사업 강화  
 ⑪ 기타 (      )

35. 이밖에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	--	--	--	--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파악과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강원목 과장 (Tel. 02-2183-9155)
- 회 신 처 : Fax. 02-512-0777 / E-mail. kdn21@kdn21.co.kr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전화번호	
소속기관		부서 및 직위	

### 1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양질의 일자리'는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만족도 등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1.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 다음 각각의 조건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적절한 임금(소득)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근로시간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①	②	③	④	⑤
(6)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원활한 노사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위의 조건들 중 개인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3) 3순위 \_\_\_\_\_  
 (4) 4순위 \_\_\_\_\_ (5) 5순위 \_\_\_\_\_

3.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이 각각 최소한 어느 수준이 되어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1) 임금(소득) 수준	월평균 ( )만원 이상
(2) 적정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 )시간 이상에서 ( )시간 이하
(3) 고용 안정성	- 중사상 지위 : (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택일 - 정년 연령 : 만 ( )세
(4) 사회보험 여부 (※ ①, ②, ③ 중 하나를 선택)	①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보장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장
(5)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 (※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및 인식에 대한 평균을 3점이라고 할 때, 1점, 2점, 3점, 4점, 5점 중 선택)	① 1점(매우 나빠도 됨) ② 2점(나빠도 됨) ③ 3점(보통이면 됨) ④ 4점(좋아야 됨) ⑤ 5점(매우 좋아야 됨)

4.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보수)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A	← 평가항목 A가 더 중요			평가항목 B가 더 중요 →		평가항목 B
	매우 중요 ⑦	중요 ③	동등 ①	중요 ③	매우 중요 ⑦	
임금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적정성
임금						사회보험 유무
임금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5. 귀하께서는 고용안정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A	← 평가항목 A가 더 중요			평가항목 B가 더 중요 →		평가항목 B
	매우 중요 ⑦	중요 ③	동등 ①	중요 ③	매우 중요 ⑦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적정성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유무
고용안정성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6.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적정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A	← 평가항목 A가 더 중요			평가항목 B가 더 중요 →		평가항목 B
	매우 중요 ⑦	중요 ③	동등 ①	중요 ③	매우 중요 ⑦	
근로시간 적정성						사회보험 유무
근로시간 적정성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7. 귀하께서는 사회보험 유무가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A	← 평가항목 A가 더 중요			평가항목 B가 더 중요 →		평가항목 B
	매우 중요 ⑦	중요 ③	동등 ①	중요 ③	매우 중요 ⑦	
사회보험 유무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 2 양질의 일자리 조건에 대한 적합도

※ 양질의 일자리 조건은 학력, 연령, 업종, 직종 등 대상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1단계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여부,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조건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질의 일자리는 이러한 **지표 각각에 대해 일정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입니다.

8.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인 180만원 이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참고로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102만원,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126만원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관점은 일자리의 임금 조건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입니다.

9.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으로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 여부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0.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사회보험 여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1.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적정 주당 근무시간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49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하한 기준인 주 15시간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고, 상한 기준인 49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입니다.

12. 양질의 일자리 조건 중 하나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인식으로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를 산출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13. 귀하께서는 중앙정부가 현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14.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현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18. 서울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될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19. 서울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될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20. 향후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제도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 1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전체		500	4.6	13.4	80.0	2.0
성별	남자	240	1.3	10.0	84.6	4.2
	여자	260	7.7	16.5	75.8	0.0
연령	20대	113	3.5	8.8	85.8	1.8
	30대	129	3.9	14.0	80.6	1.6
	40대	120	4.2	18.3	76.7	0.8
	50대	103	5.8	13.6	76.7	3.9
	60대	35	8.6	8.6	80.0	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6.0	15.7	77.1	1.2
	대졸	363	3.9	13.2	80.7	2.2
	대학원졸 이상	54	7.4	11.1	79.6	1.9
취업 유무	취업자	320	4.7	13.8	79.1	2.5
	미취업자	180	4.4	12.8	81.7	1.1

표 2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1) 적절한 임금(소득) 수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2	0.2	1.6	40.0	58.0
성별	남자	240	0.4	0.4	1.7	42.9	54.6
	여자	260	0.0	0.0	1.5	37.3	61.2
연령	20대	113	0.0	0.0	0.0	33.6	66.4
	30대	129	0.8	0.8	3.1	31.0	64.3
	40대	120	0.0	0.0	1.7	43.3	55.0
	50대	103	0.0	0.0	1.9	44.7	53.4
	60대	35	0.0	0.0	0.0	68.6	31.4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1.2	4.8	38.6	55.4
	대졸	363	0.3	0.0	0.8	39.4	59.5
	대학원졸 이상	54	0.0	0.0	1.9	46.3	51.9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0.0	0.3	40.0	59.7
	미취업자	180	0.6	0.6	3.9	40.0	55.0

표 3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2)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 안정성 확보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0	0.0	5.2	47.2	47.6	
성별	남자	240	0.0	0.0	6.7	47.1	46.3
	여자	260	0.0	0.0	3.8	47.3	48.8
연령	20대	113	0.0	0.0	3.5	51.3	45.1
	30대	129	0.0	0.0	9.3	39.5	51.2
	40대	120	0.0	0.0	3.3	47.5	49.2
	50대	103	0.0	0.0	3.9	50.5	45.6
	60대	35	0.0	0.0	5.7	51.4	4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0.0	10.8	44.6	44.6
	대졸	363	0.0	0.0	3.3	48.2	48.5
	대학원졸 이상	54	0.0	0.0	9.3	44.4	46.3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0.0	3.8	45.9	50.3
	미취업자	180	0.0	0.0	7.8	49.4	42.8

표 4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3) 근로시간의 적정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0	1.0	8.2	51.4	39.4	
성별	남자	240	0.0	1.7	13.3	52.9	32.1
	여자	260	0.0	0.4	3.5	50.0	46.2
연령	20대	113	0.0	2.7	7.1	42.5	47.8
	30대	129	0.0	0.0	9.3	42.6	48.1
	40대	120	0.0	0.0	4.2	59.2	36.7
	50대	103	0.0	1.9	12.6	58.3	27.2
	60대	35	0.0	0.0	8.6	65.7	2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0.0	10.8	55.4	33.7
	대졸	363	0.0	1.1	6.1	50.7	42.1
	대학원졸 이상	54	0.0	1.9	18.5	50.0	29.6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0.3	8.8	55.3	35.6
	미취업자	180	0.0	2.2	7.2	44.4	46.1

표 5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4	2.0	18.4	55.2	24.0	
성별	남자	240	0.4	2.5	20.0	56.3	20.8
	여자	260	0.4	1.5	16.9	54.2	26.9
연령	20대	113	0.0	1.8	21.2	50.4	26.5
	30대	129	1.6	3.9	19.4	51.2	24.0
	40대	120	0.0	1.7	17.5	59.2	21.7
	50대	103	0.0	1.0	18.4	56.3	24.3
	60대	35	0.0	0.0	8.6	68.6	2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1.2	18.1	59.0	21.7
	대졸	363	0.6	1.7	17.6	55.4	24.8
	대학원졸 이상	54	0.0	5.6	24.1	48.1	22.2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3	2.5	17.2	55.9	24.1
	미취업자	180	0.6	1.1	20.6	53.9	23.9

표 6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5)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1.4	9.8	42.0	39.2	7.6	
성별	남자	240	2.5	12.5	39.2	38.3	7.5
	여자	260	0.4	7.3	44.6	40.0	7.7
연령	20대	113	2.7	12.4	37.2	39.8	8.0
	30대	129	2.3	7.8	46.5	35.7	7.8
	40대	120	0.8	10.8	43.3	37.5	7.5
	50대	103	0.0	9.7	40.8	40.8	8.7
	60대	35	0.0	5.7	40.0	51.4	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9.6	45.8	39.8	4.8
	대졸	363	1.7	10.2	41.3	39.4	7.4
	대학원졸 이상	54	1.9	7.4	40.7	37.0	13.0
취업 유무	취업자	320	1.3	9.7	39.4	42.2	7.5
	미취업자	180	1.7	10.0	46.7	33.9	7.8

표 7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6)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2	0.8	20.4	49.4	29.2	
성별	남자	240	0.4	0.8	23.3	49.6	25.8
	여자	260	0.0	0.8	17.7	49.2	32.3
연령	20대	113	0.0	0.9	15.9	43.4	39.8
	30대	129	0.8	0.8	20.9	49.6	27.9
	40대	120	0.0	0.8	20.8	53.3	25.0
	50대	103	0.0	1.0	23.3	47.6	28.2
	60대	35	0.0	0.0	22.9	60.0	17.1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1.2	2.4	28.9	48.2	19.3
	대졸	363	0.0	0.6	18.5	49.9	31.1
	대학원졸 이상	54	0.0	0.0	20.4	48.1	31.5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0.6	17.2	53.1	29.1
	미취업자	180	0.6	1.1	26.1	42.8	29.4

표 8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0	0.8	12.4	58.4	28.4	
성별	남자	240	0.0	1.7	15.8	58.8	23.8
	여자	260	0.0	0.0	9.2	58.1	32.7
연령	20대	113	0.0	0.9	10.6	54.0	34.5
	30대	129	0.0	0.8	12.4	56.6	30.2
	40대	120	0.0	0.8	12.5	61.7	25.0
	50대	103	0.0	1.0	14.6	59.2	25.2
	60대	35	0.0	0.0	11.4	65.7	2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2.4	12.0	60.2	25.3
	대졸	363	0.0	0.0	11.8	58.4	29.8
	대학원졸 이상	54	0.0	3.7	16.7	55.6	24.1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0.9	10.6	60.0	28.4
	미취업자	180	0.0	0.6	15.6	55.6	28.3

표 9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0	1.2	16.4	48.8	33.6	
성별	남자	240	0.0	1.7	19.6	48.3	30.4
	여자	260	0.0	0.8	13.5	49.2	36.5
연령	20대	113	0.0	0.9	15.0	37.2	46.9
	30대	129	0.0	2.3	17.8	47.3	32.6
	40대	120	0.0	0.0	15.0	53.3	31.7
	50대	103	0.0	1.9	16.5	54.4	27.2
	60대	35	0.0	0.0	20.0	60.0	2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0.0	10.8	56.6	32.5
	대졸	363	0.0	1.1	16.3	47.9	34.7
	대학원졸 이상	54	0.0	3.7	25.9	42.6	27.8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0	1.3	15.9	49.7	33.1
	미취업자	180	0.0	1.1	17.2	47.2	34.4

표 10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9)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2	1.4	22.2	50.6	25.6	
성별	남자	240	0.4	1.7	21.7	49.2	27.1
	여자	260	0.0	1.2	22.7	51.9	24.2
연령	20대	113	0.0	2.7	20.4	36.3	40.7
	30대	129	0.0	1.6	24.0	51.2	23.3
	40대	120	0.0	0.0	22.5	54.2	23.3
	50대	103	1.0	1.9	23.3	53.4	20.4
	60대	35	0.0	0.0	17.1	74.3	8.6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1.2	27.7	51.8	19.3
	대졸	363	0.0	1.7	22.0	49.9	26.4
	대학원졸 이상	54	1.9	0.0	14.8	53.7	29.6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3	1.3	16.9	56.6	25.0
	미취업자	180	0.0	1.7	31.7	40.0	26.7

표 11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 : (10) 원활한 노사관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500	0.6	1.6	19.4	57.6	20.8	
성별	남자	240	0.8	1.7	19.6	59.6	18.3
	여자	260	0.4	1.5	19.2	55.8	23.1
연령	20대	113	2.7	0.9	19.5	48.7	28.3
	30대	129	0.0	2.3	18.6	59.7	19.4
	40대	120	0.0	0.0	20.8	59.2	20.0
	50대	103	0.0	2.9	18.4	60.2	18.4
	60대	35	0.0	2.9	20.0	65.7	11.4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0.0	1.2	18.1	61.4	19.3
	대졸	363	0.8	0.8	19.0	57.0	22.3
	대학원졸 이상	54	0.0	7.4	24.1	55.6	13.0
취업 유무	취업자	320	0.3	1.3	19.1	58.8	20.6
	미취업자	180	1.1	2.2	20.0	55.6	21.1

표 12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1순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적정한 임금(소득) 수준	일자리 안정성 확보	근로시간의 적정성	4대 보험 유무	
전체	500	51.4	24.0	9.0	2.4	
성별	남자	240	53.8	23.8	7.5	1.3
	여자	260	49.2	24.2	10.4	3.5
연령	20대	113	46.9	15.0	15.9	1.8
	30대	129	53.5	23.3	9.3	3.1
	40대	120	46.7	30.0	6.7	2.5
	50대	103	61.2	22.3	6.8	2.9
	60대	35	45.7	40.0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56.6	22.9	7.2	1.2
	대졸	363	51.8	23.4	9.4	3.0
	대학원졸 이상	54	40.7	29.6	9.3	0.0
취업 유무	취업자	320	56.3	26.3	5.3	1.3
	미취업자	180	42.8	20.0	15.6	4.4

표 계속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1순위)

(단위 : 명, %)

구분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원활한 노사관계	
전체	1.0	5.8	1.8	2.2	2.4	0.0	
성별	남자	0.8	6.7	2.5	2.1	1.7	0.0
	여자	1.2	5.0	1.2	2.3	3.1	0.0
연령	20대	2.7	8.8	0.9	3.5	4.4	0.0
	30대	0.0	5.4	3.1	0.0	2.3	0.0
	40대	1.7	6.7	0.8	2.5	2.5	0.0
	50대	0.0	1.9	1.9	1.9	1.0	0.0
	60대	0.0	5.7	2.9	5.7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2	2.4	3.6	3.6	0.0
	대졸	0.8	5.5	1.4	2.2	2.5	0.0
	대학원졸 이상	1.9	14.8	3.7	0.0	0.0	0.0
취업 유무	취업자	0.3	6.3	0.6	1.3	2.5	0.0
	미취업자	2.2	5.0	3.9	3.9	2.2	0.0

표 13 향후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중요한 사업 (1순위)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정규직 전환	'생활양 제' 도입 노력강화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	첨단융복합 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	사회 서비스 영역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체	500	30.4	21.6	7.0	5.8	8.4	
성별	남자	240	31.3	20.0	7.5	7.9	8.3
	여자	260	29.6	23.1	6.5	3.8	8.5
연령	20대	113	33.6	13.3	6.2	7.1	5.3
	30대	129	29.5	17.8	8.5	6.2	5.4
	40대	120	33.3	25.0	4.2	4.2	12.5
	50대	103	27.2	26.2	8.7	4.9	11.7
	60대	35	22.9	37.1	8.6	8.6	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83	32.5	24.1	6.0	7.2	7.2
	대졸	363	30.6	21.5	7.2	3.6	8.5
	대학원졸 이상	54	25.9	18.5	7.4	18.5	9.3
취업 유무	취업자	320	32.2	20.6	7.8	5.9	8.8
	미취업자	180	27.2	23.3	5.6	5.6	7.8

표 계속 향후 서울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중요한 사업 (1순위)

(단위 : 명, %)

구분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여건 개선	과잉 근로시간 단축유도	맞춤형 창·취업 지원	차세대 기술 전문가 양성	창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타
전체		8.2	10.0	4.0	2.6	1.8	0.2
성별	남자	4.6	8.8	5.4	3.3	2.9	0.0
	여자	11.5	11.2	2.7	1.9	0.8	0.4
연령	20대	8.8	17.7	4.4	1.8	1.8	0.0
	30대	12.4	10.9	3.9	3.9	1.6	0.0
	40대	6.7	7.5	3.3	1.7	1.7	0.0
	50대	4.9	5.8	4.9	1.9	2.9	1.0
	60대	5.7	2.9	2.9	5.7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6.0	7.2	7.2	2.4	0.0	0.0
	대졸	9.1	11.8	3.6	1.9	1.9	0.3
	대학원졸 이상	5.6	1.9	1.9	7.4	3.7	0.0
취업 유무	취업자	6.6	9.4	3.8	3.4	1.6	0.0
	미취업자	11.1	11.1	4.4	1.1	2.2	0.6

표 14 개인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의 중요도

(단위 : %, 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점 [5점/만점]
적정한 임금(소득) 수준	0.0	0.0	0.0	31.6	68.4	4.68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0.0	0.0	1.8	21.1	77.2	4.75
근로시간의 적정성	0.0	1.8	17.5	47.4	33.3	4.12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유무	0.0	0.0	12.3	47.4	40.4	4.28
해당 일자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판 또는 인식	0.0	26.3	31.6	38.6	3.5	3.19
직무의 높은 자율성 및 만족도	1.8	5.3	22.8	42.1	28.1	3.89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1.8	5.3	12.3	54.4	26.3	3.98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	3.5	12.3	45.6	26.3	12.3	3.32
일을 통한 개인의 높은 발전 가능성	1.8	1.8	17.5	54.4	24.6	3.98
원활한 노사 관계	5.3	12.3	31.6	43.9	7.0	3.35

표 15 양질의 일자리 5가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단위 : %)

평가항목 A	매우 중요 [7점]	중요 [3점]	동등 [1점]	중요 [3점]	매우 중요 [7점]	평가항목 B
임금	7.0	22.8	29.8	31.6	8.8	고용안정성
임금	28.1	40.4	21.1	5.3	5.3	근로시간 적정성
임금	24.6	40.4	22.8	10.5	1.8	사회보험 유무
임금	40.4	49.1	8.8	1.8	0.0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고용안정성	26.3	49.1	15.8	7.0	1.8	근로시간 적정성
고용안정성	31.6	42.1	19.3	7.0	0.0	사회보험 유무
고용안정성	47.4	47.4	3.5	1.8	0.0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근로시간 적정성	8.8	26.3	31.6	31.6	1.8	사회보험 유무
근로시간 적정성	24.6	42.1	22.8	10.5	0.0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사회보험 유무	24.6	47.4	14.0	12.3	1.8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표 16 향후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중요한 사업 우선순위

(단위 :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35.1	16.1	5.4	1.8	7.4
공공부문 등에서 빈곤수준을 넘어 실제생활이 가능하게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 강화	15.8	23.2	12.5	7.1	7.4
직업능력 개발 등 인력양성 및 훈련 지원	14.0	3.6	10.7	7.1	14.8
IT·BT·GT·NT 등 첨단 융복합산업과 관광·MICE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12.3	5.4	17.9	5.4	11.1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5.3	7.1	16.1	17.9	5.6
돌봄 서비스, 육아, 교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분야의 근로여건 개선	7.0	19.6	14.3	25.0	7.4
근로자의 과잉 근로시간 단축 유도	7.0	10.7	8.9	14.3	9.3
청년창업센터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창·취업 지원	0.0	1.8	7.1	8.9	14.8
전문기술인 양성이 목표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차세대 기술전문가 양성 강화	0.0	8.9	5.4	3.6	3.7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창조전문인력 양성 사업 강화	3.5	3.6	1.8	8.9	18.5

표 17 서울시 일원적 관함은 일자리의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311,929	13.4	394,850	14.0	314,896	12.7	331,583	12.9	390,032	15.1	380,183	13.8	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7,199	10.2	273,547	9.7	282,649	11.4	305,565	11.9	348,050	13.5	369,881	13.4	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1,215	10.0	282,793	10.0	286,645	11.5	293,602	11.4	314,158	12.2	313,714	11.4	6.3
금융 및 보험업	235,705	10.2	260,150	9.2	240,572	9.7	250,331	9.7	233,376	9.0	269,213	9.7	2.7
건설업	203,655	8.8	234,491	8.3	204,239	8.2	203,733	7.9	190,573	7.4	209,376	7.6	0.6
교육 서비스업	196,600	8.5	238,192	8.4	218,865	8.8	196,119	7.6	178,885	6.9	200,433	7.3	0.4
제조업	256,160	11.0	299,824	10.6	237,150	9.5	250,838	9.7	195,239	7.6	198,872	7.2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3,578	5.8	155,043	5.5	143,232	5.8	140,972	5.5	136,164	5.3	151,028	5.5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455	4.7	136,920	4.8	111,449	4.5	130,779	5.1	125,126	4.8	150,415	5.4	6.6
운수업	109,562	4.7	145,378	5.1	118,715	4.8	118,967	4.6	118,578	4.6	127,338	4.6	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332	2.9	92,118	3.3	80,473	3.2	95,462	3.7	101,664	3.9	106,065	3.8	9.2
숙박 및 음식점업	70,457	3.0	122,759	4.3	82,946	3.3	82,682	3.2	80,319	3.1	98,684	3.6	7.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2,030	3.1	92,010	3.3	77,405	3.1	81,658	3.2	91,766	3.6	93,847	3.4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697	1.8	55,186	2.0	42,347	1.7	46,867	1.8	37,182	1.4	40,847	1.5	-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836	0.8	21,835	0.8	21,487	0.9	20,534	0.8	20,552	0.8	28,311	1.0	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942	0.6	13,759	0.5	15,267	0.6	15,842	0.6	10,679	0.4	15,705	0.6	1.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45	0.1	3,565	0.1	2,049	0.1	4,602	0.2	3,720	0.1	2,536	0.1	-4.2
국제 및 외국기관	2,797	0.1	2,785	0.1	4,918	0.2	3,248	0.1	3,119	0.1	2,300	0.1	-3.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19	0.0	2,836	0.1	906	0.0	711	0.0	4,380	0.2	2,116	0.1	18.1
광업	1,130	0.0	421	0.0	376	0.0	0	0.0	353	0.0	617	0.0	-11.4
농업, 임업 및 어업	243	0.0	806	0.0	399	0.0	602	0.0	308	0.0	69	0.0	-22.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18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252,813	18.0	150,310	17.2	243,099	17.7	232,994	16.9	247,369	17.6	190,132	17.8	-5.5
숙박 및 음식점업	179,035	12.8	119,172	13.6	164,282	11.9	168,915	12.3	161,009	11.4	121,605	11.4	-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6,089	8.3	83,715	9.6	134,424	9.8	143,000	10.4	145,897	10.4	119,460	11.2	0.6
제조업	155,287	11.1	88,675	10.2	146,521	10.6	147,462	10.7	139,612	9.9	89,858	8.4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462	5.4	58,976	6.8	99,681	7.2	101,304	7.3	111,527	7.9	85,082	8.0	2.2
교육 서비스업	94,417	6.7	56,317	6.4	87,827	6.4	93,624	6.8	92,857	6.6	64,266	6.0	-7.4
건설업	114,444	8.2	49,328	5.6	81,409	5.9	76,305	5.5	79,887	5.7	58,709	5.5	-1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999	4.8	40,319	4.6	76,713	5.6	75,185	5.5	79,659	5.7	57,819	5.4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213	4.3	35,499	4.1	63,821	4.6	64,795	4.7	60,338	4.3	54,735	5.1	-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543	4.2	37,510	4.3	56,512	4.1	57,291	4.2	51,901	3.7	51,074	4.8	-2.7
금융 및 보험업	48,363	3.4	25,580	2.9	54,092	3.9	55,310	4.0	55,605	4.0	43,681	4.1	-2.0
운수업	57,779	4.1	33,483	3.8	51,084	3.7	56,028	4.1	55,019	3.9	41,689	3.9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527	4.4	35,979	4.1	53,681	3.9	47,884	3.5	48,619	3.5	34,275	3.2	-1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004	1.3	16,195	1.9	23,822	1.7	18,002	1.3	24,658	1.8	18,980	1.8	1.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921	1.6	10,186	1.2	16,263	1.2	14,942	1.1	28,323	2.0	18,095	1.7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539	1.0	30,020	3.4	19,526	1.4	21,960	1.6	20,558	1.5	14,064	1.3	-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746	0.3	1,146	0.1	1,036	0.1	1,503	0.1	2,155	0.2	2,354	0.2	-8.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41	0.2	583	0.1	1,486	0.1	1,112	0.1	767	0.1	960	0.1	-14.8
광업		0.0		0.0		0.0	65	0.0		0.0	259	0.0	
국제 및 외국기관	396	0.0	147	0.0	639	0.0	1,076	0.1	321	0.0	133	0.0	-19.6
농업, 임업 및 어업	32	0.0		0.0	609	0.0		0.0	514	0.0		0.0	-100.0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19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전문서비스업	119,134	5.1	137,052	4.8	147,500	5.9	170,383	6.6	213,878	8.3	227,303	8.2	13.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77,762	7.7	205,240	7.3	174,557	7.0	199,515	7.7	238,462	9.2	221,380	8.0	4.5
교육 서비스업	196,600	8.5	238,192	8.4	218,865	8.8	196,119	7.6	178,885	6.9	200,433	7.3	0.4
출판업	104,159	4.5	134,786	4.8	131,337	5.3	147,746	5.7	163,520	6.3	169,931	6.2	1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3,578	5.8	155,043	5.5	143,232	5.8	140,972	5.5	136,164	5.3	151,028	5.5	2.5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8,013	5.1	167,027	5.9	121,460	4.9	113,639	4.4	127,694	4.9	140,180	5.1	3.5
금융업	109,467	4.7	127,408	4.5	111,596	4.5	112,489	4.4	106,079	4.1	132,286	4.8	3.9
보건업	97,990	4.2	119,783	4.2	98,559	4.0	117,931	4.6	107,467	4.2	127,617	4.6	5.4
종합 건설업	112,938	4.9	128,666	4.5	113,178	4.6	105,693	4.1	102,377	4.0	114,300	4.1	0.2
전문직별 공사업	90,717	3.9	105,825	3.7	91,061	3.7	98,040	3.8	88,196	3.4	95,076	3.4	0.9
사업지원 서비스업	55,811	2.4	74,723	2.6	65,440	2.6	77,782	3.0	81,144	3.1	89,800	3.3	10.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3,805	3.2	106,713	3.8	75,778	3.0	76,872	3.0	75,038	2.9	83,093	3.0	2.4
보험 및 연금업	82,269	3.5	83,196	2.9	68,707	2.8	78,881	3.1	75,497	2.9	79,582	2.9	-0.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8,982	3.0	78,970	2.8	80,897	3.3	72,468	2.8	76,947	3.0	77,269	2.8	2.3
음식점 및 주점업	53,137	2.3	98,888	3.5	60,081	2.4	60,361	2.3	60,378	2.3	77,181	2.8	7.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3,970	1.9	49,545	1.8	60,269	2.4	58,961	2.3	51,800	2.0	57,344	2.1	5.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0,643	2.2	46,130	1.6	56,734	2.3	58,367	2.3	54,130	2.1	52,409	1.9	0.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668	0.3	57,899	2.0	40,552	1.6	47,988	1.9	44,625	1.7	48,376	1.8	48.6
협회 및 단체	31,848	1.4	39,347	1.4	32,548	1.3	36,413	1.4	40,759	1.6	47,496	1.7	8.3
부동산업	39,439	1.7	48,732	1.7	37,896	1.5	40,979	1.6	33,035	1.3	36,854	1.3	-1.3
연구개발업	21,658	0.9	24,713	0.9	24,084	1.0	38,457	1.5	33,660	1.3	34,727	1.3	9.9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일원적 관할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통신업	35,489	1.5	46,889	1.7	48,493	1.9	35,394	1.4	35,794	1.4	32,898	1.2	-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425	1.2	32,812	1.2	30,169	1.2	24,257	0.9	23,564	0.9	30,583	1.1	2.2
방송업	19,641	0.8	22,093	0.8	20,726	0.8	19,500	0.8	29,915	1.2	26,237	1.0	6.0
수리업	25,297	1.1	27,604	1.0	29,280	1.2	26,786	1.0	25,826	1.0	24,741	0.9	-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1,368	1.8	39,679	1.4	41,880	1.7	36,074	1.4	24,745	1.0	23,319	0.8	-10.8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65	0.5	17,138	0.6	12,890	0.5	12,848	0.5	17,659	0.7	22,798	0.8	14.7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885	0.6	25,059	0.9	15,577	0.6	18,460	0.7	25,181	1.0	21,609	0.8	7.7
숙박업	17,320	0.7	23,871	0.8	22,864	0.9	22,321	0.9	19,941	0.8	21,502	0.8	4.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2,453	0.5	15,862	0.6	18,178	0.7	21,321	0.8	20,865	0.8	19,228	0.7	9.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6,154	0.7	22,583	0.8	18,880	0.8	18,429	0.7	23,876	0.9	18,623	0.7	2.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1,762	0.5	15,448	0.5	9,887	0.4	14,089	0.5	18,394	0.7	17,324	0.6	8.1
항공 운송업	15,549	0.7	14,492	0.5	15,861	0.6	15,420	0.6	13,674	0.5	16,752	0.6	1.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2,522	0.5	17,395	0.6	15,033	0.6	17,680	0.7	20,521	0.8	16,265	0.6	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774	0.6	10,597	0.4	10,281	0.4	17,533	0.7	13,674	0.5	15,138	0.5	3.5
정보서비스업	9,521	0.4	17,448	0.6	19,468	0.8	18,505	0.7	12,404	0.5	14,915	0.5	9.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665	0.8	24,556	0.9	16,075	0.6	16,502	0.6	17,459	0.7	14,876	0.5	-4.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1,883	0.5	12,132	0.4	11,838	0.5	12,087	0.5	13,987	0.5	14,272	0.5	3.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82	0.1	18,237	0.6	11,754	0.5	14,548	0.6	12,405	0.5	14,187	0.5	53.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953	0.3	9,704	0.3	9,650	0.4	8,447	0.3	6,565	0.3	14,039	0.5	1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633	0.5	9,597	0.3	12,967	0.5	14,364	0.6	8,122	0.3	12,908	0.5	0.4
전기장비 제조업	12,505	0.5	13,025	0.5	11,126	0.4	12,004	0.5	9,905	0.4	9,261	0.3	-5.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212	0.8	18,900	0.7	16,429	0.7	16,961	0.7	7,528	0.3	9,249	0.3	-12.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293	0.4	11,788	0.4	7,497	0.3	9,376	0.4	9,404	0.4	9,190	0.3	-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642	0.5	9,354	0.4	8,964	0.3	9,035	0.3	8,363	0.3	
수상 운송업	7,755	0.3	8,312	0.3	8,899	0.4	5,353	0.2	9,001	0.3	8,265	0.3	1.3
기타 제품 제조업	9,997	0.4	11,954	0.4	9,557	0.4	10,802	0.4	7,129	0.3	8,209	0.3	-3.9
식품 제조업	11,035	0.5	16,712	0.6	13,968	0.6	17,612	0.7	6,634	0.3	7,287	0.3	-8.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3,108	1.9	11,128	0.4	8,821	0.4	6,336	0.2	4,971	0.2	6,842	0.2	-3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37	0.1	7,237	0.3	6,238	0.3	4,815	0.2	4,445	0.2	4,765	0.2	3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53	0.2	6,210	0.2	7,446	0.3	5,928	0.2	4,626	0.2	4,579	0.2	-2.0
임대업;부동산 제외	3,258	0.1	6,454	0.2	4,450	0.2	5,888	0.2	4,147	0.2	3,993	0.1	4.2
1차 금속 제조업	6,486	0.3	6,350	0.2	4,178	0.2	5,436	0.2	2,673	0.1	2,820	0.1	-15.3
수도사업	2,309	0.1	4,162	0.1	2,300	0.1	1,478	0.1	2,557	0.1	2,796	0.1	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195	0.3	7,246	0.3	4,599	0.2	3,711	0.1	2,025	0.1	2,378	0.1	-17.4
국제 및 외국기관	2,797	0.1	2,785	0.1	4,918	0.2	3,248	0.1	3,119	0.1	2,300	0.1	-3.8
가구내 고용활동	919	0.0	2,836	0.1	906	0.0	711	0.0	4,380	0.2	2,116	0.1	18.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415	0.2	4,251	0.2	3,117	0.1	4,173	0.2	3,289	0.1	2,114	0.1	-17.1
가구 제조업	3,035	0.1	5,511	0.2	2,621	0.1	2,976	0.1	1,793	0.1	2,010	0.1	-7.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373	0.6	5,163	0.2	3,971	0.2	2,553	0.1	3,802	0.1	1,915	0.1	-32.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149	0.1	2,071	0.1	634	0.0	3,619	0.1	2,249	0.1	1,553	0.1	-6.3
음료 제조업	1,816	0.1	1,673	0.1	1,881	0.1	2,379	0.1	1,510	0.1	1,327	0.0	-6.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716	0.1	3,105	0.1	3,474	0.1	1,509	0.1	1,175	0.0	1,273	0.0	-14.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497	0.2	1,033	0.0	493	0.0	580	0.0	287	0.0	852	0.0	-28.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14	0.0	1,494	0.1	507	0.0	703	0.0	1,075	0.0	693	0.0	17.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30	0.0									363	0.0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88	0.5	2,927	0.1	1,837	0.1	1,375	0.1	1,760	0.1	331	0.0	-51.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3	0.0			909	0.0	279	0.0	397	0.0	290	0.0	-15.7
광업 지원 서비스업	287	0.0	421	0.0					353	0.0	254	0.0	-2.4
담배 제조업	8,939	0.4					702	0.0	338	0.0	213	0.0	-52.6
임업	243	0.0	573	0.0			272	0.0	308	0.0	69	0.0	-22.2
농업					60	0.0							
어업			233	0.0	339	0.0	330	0.0					
금속 광업	512	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376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20 서울시 잠재적 편향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177,866	12.7	115,688	13.2	177,338	12.9	159,192	11.5	169,447	12.0	125,143	11.7	-6.8
음식점 및 주점업	173,567	12.4	112,548	12.9	152,355	11.1	157,267	11.4	153,735	10.9	112,102	10.5	-8.4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552	7.3	76,052	8.7	115,240	8.4	121,973	8.8	127,862	9.1	104,984	9.8	0.5
교육 서비스업	94,417	6.7	56,317	6.4	87,827	6.4	93,624	6.8	92,857	6.6	64,266	6.0	-7.4
도매 및 상품중개업	70,061	5.0	32,631	3.7	60,758	4.4	68,050	4.9	69,902	5.0	59,939	5.6	-3.1
보건업	53,160	3.8	30,381	3.5	58,426	4.2	58,090	4.2	60,226	4.3	49,770	4.7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9,309	4.9	41,896	4.8	63,766	4.6	68,807	5.0	71,026	5.0	42,322	4.0	-9.4
사회복지 서비스업	23,302	1.7	28,595	3.3	41,255	3.0	43,214	3.1	51,301	3.6	35,311	3.3	8.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2,035	3.7	27,631	3.2	44,291	3.2	45,595	3.3	43,436	3.1	33,968	3.2	-8.2
부동산업	59,965	4.3	33,212	3.8	49,064	3.6	44,580	3.2	44,644	3.2	31,363	2.9	-12.2
전문직별 공사업	64,933	4.6	29,087	3.3	51,837	3.8	47,841	3.5	44,881	3.2	31,058	2.9	-13.7
전문서비스업	32,910	2.3	18,849	2.2	32,012	2.3	36,255	2.6	34,852	2.5	30,719	2.9	-1.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891	2.2	19,289	2.2	34,928	2.5	31,879	2.3	46,467	3.3	28,348	2.7	-1.7
종합 건설업	49,511	3.5	20,241	2.3	29,571	2.1	28,464	2.1	35,006	2.5	27,651	2.6	-11.0
출판업	24,393	1.7	12,100	1.4	23,112	1.7	21,152	1.5	23,935	1.7	22,712	2.1	-1.4
금융업	17,174	1.2	9,270	1.1	20,924	1.5	20,637	1.5	21,584	1.5	20,557	1.9	3.7
보험 및 연금업	24,822	1.8	12,116	1.4	21,436	1.6	28,661	2.1	25,289	1.8	19,750	1.9	-4.5
협회 및 단체	21,637	1.5	13,589	1.6	26,146	1.9	27,294	2.0	22,688	1.6	19,371	1.8	-2.2
가구내 고용활동	21,921	1.6	10,186	1.2	16,263	1.2	14,942	1.1	28,323	2.0	18,095	1.7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3,537	1.0	7,663	0.9	19,185	1.4	21,027	1.5	18,035	1.3	14,475	1.4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539	1.0	30,020	3.4	19,526	1.4	21,960	1.6	20,558	1.5	14,064	1.3	-0.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139	1.0	7,634	0.9	16,109	1.2	11,701	0.8	15,034	1.1	11,828	1.1	-3.5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1,376	0.8	11,145	1.3	13,054	0.9	10,300	0.7	15,890	1.1	10,479	1.0	-1.6
수리업	15,472	1.1	7,441	0.9	15,639	1.1	16,012	1.2	10,504	0.7	10,100	0.9	-8.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979	0.6	6,249	0.7	12,546	0.9	13,182	1.0	7,702	0.5	9,685	0.9	1.5
숙박업	5,468	0.4	6,624	0.8	11,926	0.9	11,648	0.8	7,274	0.5	9,504	0.9	11.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060	0.6	5,544	0.6	6,766	0.5	9,492	0.7	8,163	0.6	9,265	0.9	2.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27	0.5	5,051	0.6	10,768	0.8	7,702	0.6	8,768	0.6	8,501	0.8	5.1
방송업	4,271	0.3	4,710	0.5	4,759	0.3	3,473	0.3	6,192	0.4	6,031	0.6	7.1
기타 제품 제조업	8,223	0.6	4,820	0.6	9,652	0.7	10,738	0.8	7,382	0.5	5,900	0.6	-6.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25	0.6	5,241	0.6	6,508	0.5	8,844	0.6	7,165	0.5	5,811	0.5	-6.3
통신업	10,231	0.7	7,444	0.9	10,389	0.8	8,790	0.6	4,010	0.3	5,703	0.5	-11.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683	0.8	2,993	0.3	6,742	0.5	6,013	0.4	6,174	0.4	5,510	0.5	-12.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787	0.3	4,189	0.5	6,071	0.4	8,490	0.6	9,625	0.7	5,404	0.5	2.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886	0.3	1,990	0.2	5,003	0.4	5,752	0.4	8,020	0.6	5,050	0.5	0.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598	0.5	5,910	0.7	6,852	0.5	9,936	0.7	6,698	0.5	4,624	0.4	-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703	0.8	6,634	0.8	9,773	0.7	9,965	0.7	6,532	0.5	4,502	0.4	-17.4
식품 제조업	8,827	0.6	5,636	0.6	7,006	0.5	7,335	0.5	4,092	0.3	3,748	0.4	-15.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248	0.5	3,901	0.4	8,377	0.6	7,247	0.5	7,382	0.5	3,514	0.3	-13.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366	0.5	4,195	0.5	11,732	0.9	6,011	0.4	8,732	0.6	3,374	0.3	-11.9
임대업; 부동산 제외	1,562	0.1	2,766	0.3	4,618	0.3	3,304	0.2	3,975	0.3	2,912	0.3	13.3
정보서비스업	4,990	0.4	1,802	0.2	4,634	0.3	4,448	0.3	2,903	0.2	2,738	0.3	-11.3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15	0.3	1,601	0.2	1,787	0.1	3,821	0.3	5,127	0.4	2,681	0.3	-9.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641	0.3	1,944	0.2	5,433	0.4	4,840	0.4	3,051	0.2	2,562	0.2	-11.2
연구개발업	4,184	0.3	2,767	0.3	3,153	0.2	3,656	0.3	2,751	0.2	2,504	0.2	-9.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24	0.4	3,101	0.4	5,041	0.4	5,470	0.4	3,077	0.2	2,352	0.2	-16.6
전기장비 제조업	3,235	0.2	2,513	0.3	3,956	0.3	2,552	0.2	2,704	0.2	2,008	0.2	-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546	0.3	2,486	0.3	4,457	0.3	2,554	0.2	4,379	0.3	1,938	0.2	-1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296	0.2	820	0.1	1,036	0.1	1,221	0.1	1,608	0.1	1,750	0.2	-11.9
항공 운송업	570	0.0	591	0.1	348	0.0	1,037	0.1	1,624	0.1	1,729	0.2	24.9
가구 제조업	1,158	0.1			1,023	0.1	1,115	0.1	1,720	0.1	1,644	0.2	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76	0.2	938	0.1	2,154	0.2	1,798	0.1	1,939	0.1	1,429	0.1	-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01	0.0	680	0.1	1,965	0.1	1,324	0.1	1,580	0.1	1,350	0.1	14.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034	0.1	435	0.0	1,426	0.1	706	0.1	767	0.1	960	0.1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64	0.1	1,394	0.2	2,344	0.2	2,313	0.2	1,642	0.1	846	0.1	-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43	0.1	491	0.1	2,188	0.2	2,312	0.2	1,367	0.1	820	0.1	-16.7
1차 금속 제조업	251	0.0	908	0.1	2,052	0.1	248	0.0	277	0.0	693	0.1	22.5
수도사업	450	0.0	327	0.0			282	0.0	547	0.0	604	0.1	6.1
수상 운송업	387	0.0	1,072	0.1	374	0.0	908	0.1	334	0.0	588	0.1	8.7
광업 지원 서비스업											259	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80	0.1			57	0.0	167	0.0	2,030	0.1	227	0.0	-29.2
국제 및 외국기관	396	0.0	147	0.0	639	0.0	1,076	0.1	321	0.0	133	0.0	-19.6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농업	32	0.0			609	0.0							
임업									514	0.0			
어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65	0.0					
음료 제조업	446	0.0	730	0.1	1,524	0.1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90	0.0	769	0.1					321	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29	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19	0.1			115	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4	0.0	147	0.0	60	0.0	406	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3	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21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77,678	680,631	691,922	661,994	696,764	725,267	4.7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41,651	165,846	164,428	201,287	198,499	195,020	6.6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135,107	180,677	142,365	169,008	192,393	179,668	5.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60,089	185,532	159,168	148,888	131,698	155,373	-0.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44,901	141,612	147,775	145,985	144,069	153,945	1.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11,001	131,818	125,215	127,320	130,503	151,749	6.5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9,948	136,291	111,223	123,370	117,802	149,751	6.4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05,120	129,038	113,693	128,175	101,224	128,917	4.2
영업직	129,084	116,826	132,533	112,480	98,663	103,160	-4.4
매장 판매직	71,009	104,423	65,443	59,351	61,135	75,598	1.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7,003	81,778	54,801	62,077	65,152	67,008	3.3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0,395	80,971	55,602	49,664	50,806	63,656	4.8
상담/통계/인내 및 기타 사무직	40,755	44,345	39,894	44,940	44,963	49,902	4.1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43,184	53,902	37,408	45,715	45,321	44,460	0.6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5,291	44,998	39,944	40,511	39,810	42,787	3.9
전문서비스 관리직	30,849	31,291	23,319	29,561	35,970	39,355	5.0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0,253	33,751	37,885	32,516	32,052	31,234	0.6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2,719	36,470	35,353	39,074	29,634	31,170	-1.0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20,653	22,186	11,578	23,939	30,552	29,614	7.5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4,245	7,582	7,027	30,556	28,659	24,358	11.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1,462	23,398	25,662	30,433	32,122	23,529	1.9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6,299	24,640	16,895	19,914	23,494	23,314	7.4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1,938	21,523	18,370	20,750	20,474	22,396	0.4
섬유/의복 및 가족 관련 기능직	21,034	39,882	20,392	21,908	20,855	22,080	1.0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17,537	31,269	19,916	17,165	18,235	21,841	4.5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10,465	16,857	18,072	14,844	14,907	19,914	13.7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15,425	18,674	16,095	14,315	15,237	19,341	4.6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6,554	19,371	16,432	17,076	19,495	18,986	2.8
이미용/예술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11,949	22,982	13,861	16,113	17,713	18,176	8.8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15,340	34,353	18,665	19,920	18,855	16,260	1.2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14,337	26,106	15,029	14,645	10,332	15,205	1.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6,911	26,020	12,142	8,956	11,928	13,969	-3.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11,701	12,364	13,892	10,793	13,231	11,431	-0.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10,944	11,560	9,088	10,024	9,239	10,189	-1.4
기타 기능 관련직	9,091	13,598	11,337	10,255	11,259	9,711	1.3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160	11,842	5,386	7,104	6,742	7,679	-1.2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6,584	14,473	4,175	7,282	9,620	7,405	2.4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2,749	9,184	6,358	8,330	3,815	6,758	19.7
공공 및 기업 고위직	5,253	2,800	3,256	5,368	8,547	6,348	3.9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5,855	9,538	4,979	4,343	5,218	6,291	1.4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5,162	6,728	3,499	6,474	6,242	5,389	0.9
농/축산 숙련직	1,078	1,353	1,932	1,199	1,902	2,796	21.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756	3,899	4,289	2,761	906	2,423	-2.5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2,495	2,687	2,193	2,077	1,606	2,112	-3.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208	2,402	1,616	641	1,317	1,725	7.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3,323	5,391	2,924	2,981	2,378	1,683	-12.7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264	1,351	878	1,312	743	1,511	41.7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3,369	4,759	1,776	1,302	2,071	886	-23.4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347	296	1,300		72	212	-9.4
임업 숙련직	60						
어업 숙련직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22 서울시 잠재적 관청은 일자리의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97,173	127,287	210,157	214,158	196,556	172,300	-2.7
매장 판매직	142,128	88,625	147,929	126,349	132,513	94,657	-7.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35,964	82,719	110,526	123,900	114,276	83,620	-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15,177	86,416	106,822	94,886	109,556	74,114	-8.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63,128	45,586	87,874	78,351	90,179	72,713	2.9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73,570	53,183	68,040	60,253	85,166	61,141	-3.6
상담/통계/인내 및 기타 사무직	46,314	28,794	40,247	50,572	61,038	48,565	1.0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45,225	26,292	48,029	47,422	53,680	47,372	0.9
섬유/의복 및 가족 관련 기능직	63,142	34,361	56,283	59,823	64,061	39,445	-9.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217	24,715	42,962	45,224	38,956	37,543	-7.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62,666	32,789	55,240	59,221	57,911	36,982	-10.0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30,404	24,098	37,134	39,026	54,260	34,368	2.5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31,430	21,735	32,877	30,422	32,603	24,640	-4.8
영업직	30,473	15,606	33,912	31,451	27,920	22,287	-6.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40,860	25,157	34,216	30,953	29,368	21,938	-11.7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28,794	17,987	23,632	25,828	25,221	20,780	-6.3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42,743	16,915	28,457	34,742	37,935	19,624	-14.4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847	6,061	12,471	16,555	18,337	17,494	4.8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8,359	6,969	15,259	23,210	21,875	14,337	-4.8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7,331	11,284	15,813	17,825	15,223	12,338	-6.6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7,057	5,782	10,625	11,272	10,080	11,246	9.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10,501	9,430	14,347	10,979	10,364	10,800	0.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2,553	7,767	19,617	19,030	16,072	10,609	-3.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18,944	13,165	16,761	15,077	14,141	9,973	-12.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9,641	5,628	12,811	13,800	10,226	9,792	0.3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18,931	12,572	11,292	17,874	12,707	8,918	-14.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6,645	6,570	11,096	8,529	9,853	8,679	5.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3,406	2,992	6,763	7,486	5,700	5,366	9.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2,104	3,750	12,747	9,641	6,240	5,230	-15.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372	3,610	7,329	8,715	5,533	3,765	-6.9
기타 기능 관련직	9,518	4,499	5,558	7,180	6,830	3,726	-17.1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5,482	2,388	5,700	6,992	3,856	3,554	-8.3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6,962	4,216	6,942	7,617	5,278	3,505	-12.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4,061	1,444	5,749	4,378	2,127	2,567	-8.8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2,231	2,742	3,332	2,241	4,099	1,881	-3.4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3,571	3,313	5,067	2,859	4,694	1,813	-12.7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439	456	701	2,633	1,879	1,777	4.3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38	536	913	167	1,374	1,708	15.3
농/축산 숙련직	1,597		2,808	3,311	1,089	1,189	-5.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의 직업 중분류별 규모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270	.	.	537	.	1,010	30.2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4,071	1,161	3,434	2,838	1,285	898	-26.1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590	306	237	71	.	877	8.2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610	2,033	2,903	3,108	2,913	871	-19.7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473	.	.	.	.	624	5.7
전문서비스 관리직	559	1,134	.	638	611	320	-10.6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268	364	544	739	902	273	0.3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	.	.	450	.	.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1,109	420	854	436	884	.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5	515	437	.	.	.
임업 숙련직	.	.	.	.	774	.	.
어업 숙련직	.	.	.	.	.	.	.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23 서울시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의 대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1,914	13.0	179,036	12.7	201,553	14.4	222,204	15.2	262,034	16.6	274,619	17.0	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8,634	11.1	175,245	12.4	190,520	13.6	203,393	13.9	229,440	14.6	218,336	13.5	9.5
도매 및 소매업	139,376	11.2	166,039	11.8	145,968	10.4	172,001	11.8	224,026	14.2	198,811	12.3	7.4
금융 및 보험업	142,933	11.5	162,144	11.5	158,977	11.3	152,099	10.4	153,577	9.7	181,319	11.2	4.9
교육 서비스업	141,911	11.4	168,316	12.0	159,261	11.4	141,120	9.7	131,777	8.4	140,728	8.7	-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039	8.2	108,727	7.7	98,518	7.0	99,059	6.8	103,766	6.6	109,548	6.8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582	6.2	86,538	6.1	79,324	5.7	88,536	6.1	97,109	6.2	108,648	6.7	7.2
제조업	125,376	10.1	122,023	8.7	116,221	8.3	122,186	8.4	108,219	6.9	102,527	6.4	-3.9
건설업	75,146	6.0	77,718	5.5	78,783	5.6	73,476	5.0	77,801	4.9	83,881	5.2	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594	2.6	38,065	2.7	40,245	2.9	47,835	3.3	57,532	3.7	57,424	3.6	12.0
운수업	35,359	2.8	36,995	2.6	45,292	3.2	44,697	3.1	42,582	2.7	44,435	2.8	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132	1.9	28,910	2.1	28,984	2.1	29,722	2.0	34,066	2.2	35,750	2.2	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782	1.3	24,005	1.7	22,492	1.6	25,862	1.8	22,397	1.4	18,827	1.2	2.3
숙박 및 음식점업	9,634	0.8	11,748	0.8	10,664	0.8	11,166	0.8	10,055	0.6	13,461	0.8	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06	0.7	10,352	0.7	10,638	0.8	10,117	0.7	9,628	0.6	11,981	0.7	6.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412	0.8	8,106	0.6	10,014	0.7	10,327	0.7	7,094	0.5	9,689	0.6	-1.4
국제 및 외국기관	2,271	0.2	1,810	0.1	3,008	0.2	2,718	0.2	2,742	0.2	2,034	0.1	-2.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85	0.1	998	0.1	1,247	0.1	1,140	0.1	2,074	0.1	996	0.1	4.9
광업	512	0.0	421	0.0							617	0.0	3.8
농업, 임업 및 어업			300	0.0	339	0.0	602	0.0	308	0.0	69	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1	0.0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표 24 서울시 다원적 관철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일자리 수	비중	
전문서비스업	82,293	6.6	93,829	6.7	109,228	7.8	124,583	8.5	159,283	10.1	172,198	10.7	15.9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1,451	8.1	118,310	8.4	101,445	7.2	121,553	8.3	162,100	10.3	145,016	9.0	7.4
교육 서비스업	141,911	11.4	168,316	12.0	159,261	11.4	141,120	9.7	131,777	8.4	140,728	8.7	-0.2
출판업	65,187	5.2	83,558	5.9	90,121	6.4	105,060	7.2	128,167	8.1	123,812	7.7	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039	8.2	108,727	7.7	98,518	7.0	99,059	6.8	103,766	6.6	109,548	6.8	1.4
금융업	74,835	6.0	88,010	6.3	79,011	5.6	72,820	5.0	81,633	5.2	98,357	6.1	5.6
보건업	68,006	5.5	78,174	5.6	69,574	5.0	79,547	5.5	83,190	5.3	92,640	5.7	6.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9,099	3.9	51,787	3.7	57,784	4.1	51,914	3.6	62,607	4.0	59,579	3.7	3.9
종합 건설업	52,171	4.2	59,082	4.2	57,559	4.1	50,150	3.4	52,331	3.3	57,100	3.5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28,533	2.3	32,040	2.3	33,806	2.4	39,086	2.7	47,772	3.0	50,488	3.1	1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28,354	2.3	35,429	2.5	32,874	2.3	38,297	2.6	47,749	3.0	42,944	2.7	8.7
보험 및 연금업	40,529	3.3	45,995	3.3	39,674	2.8	44,432	3.0	37,177	2.4	41,867	2.6	0.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7,569	2.2	28,139	2.0	40,292	2.9	34,847	2.4	34,768	2.2	41,095	2.5	8.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1,641	2.5	31,049	2.2	38,134	2.7	42,269	2.9	38,804	2.5	36,658	2.3	3.0
협회 및 단체	20,651	1.7	24,922	1.8	24,636	1.8	24,340	1.7	29,111	1.8	30,780	1.9	8.3
전문직별 공사업	22,975	1.8	18,636	1.3	21,224	1.5	23,326	1.6	25,470	1.6	26,781	1.7	3.1
연구개발업	15,582	1.3	16,351	1.2	18,341	1.3	31,004	2.1	22,734	1.4	24,896	1.5	9.8
통신업	19,693	1.6	30,429	2.2	28,263	2.0	20,380	1.4	22,701	1.4	22,863	1.4	3.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955	1.3	14,413	1.0	13,336	1.0	14,162	1.0	18,884	1.2	21,174	1.3	5.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40	1.2	17,069	1.2	16,200	1.2	14,703	1.0	17,411	1.1	17,946	1.1	3.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6,656	1.3	15,160	1.1	19,089	1.4	17,885	1.2	15,292	1.0	17,715	1.1	1.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부동산업	15,057	1.2	21,697	1.5	21,313	1.5	23,238	1.6	20,263	1.3	17,576	1.1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8,576	0.7	8,364	0.6	9,750	0.7	8,988	0.6	13,919	0.9	16,008	1.0	13.3
방송업	11,069	0.9	11,220	0.8	13,632	1.0	12,876	0.9	19,260	1.2	15,809	1.0	7.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563	2.0	21,351	1.5	24,617	1.8	20,471	1.4	17,139	1.1	14,238	0.9	-1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629	0.5	9,605	0.7	11,969	0.9	13,735	0.9	13,133	0.8	13,242	0.8	14.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571	0.8	12,300	0.9	11,649	0.8	12,151	0.8	14,178	0.9	10,851	0.7	2.5
정보서비스업	6,859	0.6	10,687	0.8	14,176	1.0	14,328	1.0	10,283	0.7	10,347	0.6	8.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102	0.7	6,086	0.4	4,679	0.3	8,982	0.6	9,406	0.6	9,978	0.6	4.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856	0.7	6,144	0.4	8,346	0.6	9,665	0.7	6,493	0.4	9,304	0.6	1.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185	0.3	8,301	0.6	6,194	0.4	8,479	0.6	10,226	0.6	8,847	0.5	16.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38	0.3	6,092	0.4	5,474	0.4	5,148	0.4	4,436	0.3	7,896	0.5	16.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588	1.1	12,571	0.9	11,971	0.9	13,232	0.9	5,338	0.3	7,535	0.5	-1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060	0.3	6,025	0.4	6,438	0.5	8,748	0.6	9,760	0.6	6,936	0.4	11.3
항공 운송업	6,993	0.6	6,904	0.5	6,703	0.5	8,305	0.6	7,117	0.5	6,916	0.4	-0.2
음식점 및 주점업	3,680	0.3	3,264	0.2	3,748	0.3	4,928	0.3	4,647	0.3	6,863	0.4	1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513	0.7	9,738	0.7	6,235	0.4	10,399	0.7	8,307	0.5	6,647	0.4	-4.8
숙박업	5,955	0.5	8,484	0.6	6,916	0.5	6,239	0.4	5,408	0.3	6,598	0.4	2.1
수상 운송업	5,080	0.4	5,326	0.4	7,530	0.5	4,773	0.3	7,039	0.4	6,562	0.4	5.3
전기장비 제조업	7,326	0.6	6,263	0.4	6,562	0.5	6,931	0.5	7,289	0.5	6,502	0.4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769	0.7	10,925	0.8	6,461	0.5	7,288	0.5	7,557	0.5	5,687	0.4	-8.3
식품 제조업	5,495	0.4	7,278	0.5	6,735	0.5	7,725	0.5	2,724	0.2	4,440	0.3	-4.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다원적 관청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수리업	2,040	0.2	3,464	0.2	3,046	0.2	4,544	0.3	3,212	0.2	4,193	0.3	15.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068	0.4	4,260	0.3	5,164	0.4	4,969	0.3	5,192	0.3	4,084	0.3	-4.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67	0.1	3,706	0.3	3,103	0.2	3,773	0.3	4,454	0.3	3,951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4,064	0.3	3,602	0.3	3,728	0.3	3,188	0.2	3,094	0.2	3,412	0.2	-3.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933	0.2	2,130	0.2	1,664	0.1	3,554	0.2	3,733	0.2	3,213	0.2	10.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75	0.2	3,372	0.2	5,456	0.4	3,994	0.3	3,482	0.2	2,978	0.2	8.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303	0.3	2,582	0.2	4,880	0.3	1,986	0.1	3,028	0.2	2,932	0.2	-7.4
1차 금속 제조업	4,672	0.4	3,244	0.2	2,951	0.2	3,410	0.2	2,013	0.1	2,106	0.1	-14.7
국제 및 외국기관	2,271	0.2	1,810	0.1	3,008	0.2	2,718	0.2	2,742	0.2	2,034	0.1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74	0.1	1,947	0.1	2,032	0.1	2,470	0.2	1,797	0.1	1,611	0.1	0.5
임대업:부동산 제외	1,725	0.1	2,308	0.2	1,179	0.1	2,625	0.2	2,134	0.1	1,251	0.1	-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77	0.2	3,805	0.3	2,159	0.2	2,046	0.1	757	0.0	1,155	0.1	-16.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30	0.1	2,148	0.2	1,717	0.1	1,191	0.1	2,880	0.2	1,096	0.1	-7.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238	0.3	718	0.1	2,029	0.1	1,473	0.1	1,311	0.1	1,029	0.1	-20.5
가구 제조업	92	0.0	1,201	0.1	282	0.0	1,305	0.1	1,062	0.1	859	0.1	56.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23	0.2	2,579	0.2	2,193	0.2	1,475	0.1	1,175	0.1	856	0.1	-15.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41	0.1	523	0.0	1,301	0.1	838	0.1	1,743	0.1	777	0.0	-11.6
음료 제조업	1,130	0.1	707	0.1	1,402	0.1	1,217	0.1	1,033	0.1	584	0.0	-1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0	442	0.0	507	0.0	73	0.0	1,075	0.1	506	0.0	
수도사업	1,556	0.1	1,962	0.1	1,668	0.1	661	0.0	601	0.0	385	0.0	-24.4
금속 광업	225	0.0		0.0		0.0		0.0		0.0	363	0.0	1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30	0.1	1,265	0.1	1,535	0.1	1,078	0.1	1,418	0.1	331	0.0	-24.3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부록 표 계속 서울시 다원적 관철은 일자리의 중분류 산업별 일자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자리 수	비중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40	0.1	279	0.0	397	0.0	290	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287	0.0	421	0.0							254	0.0	-2.4
담배 제조업							398	0.0	338	0.0	213	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785	0.1	556	0.0			787	0.1	603	0.0	199	0.0	-24.0
임업			300	0.0			272	0.0	308	0.0	69	0.0	
농업													
어업					339	0.0	330	0.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58	0.0	392	0.0	493	0.0	440	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211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 Abstract

# Abstract

## The Study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and Future Policy Perspectives

Bum-Sik Kim·Mook-Han Kim·Min-Young Hwang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concepts and measurement standards for decent job, then carrying out analysis on reality of decent job in Seoul through this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 i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results.

Decent job in this study was defined as not only the job where both the man and the woman can obtain productive labor conforming to social standard under the value of freedom, justice, human dignity but the one where social recognition and subjective satisfaction exceed certain level together with adequate reward.

Conditions of this decent job are various according to the objects such as academic backgrounds, ages, business types, however they were established centered on the indices actually measurable or formally provided. Conditions of the decent job were measured in the average level and in the individual level centered on remuneration, job stability, proper working time, job's social reputation etc in detail. At this time, standard of remuneration was established at higher wage than median one of national wage workers and proper working time per week at more than 15 hours but less than 49 hours. And job stability was judged by if the worker is a regular employee or not and job's social reputation was judged utilizing job's Socio-Economic Index popularly used internationally to satisfy the standard of good quality's job in case the score's standardized figure is more than 0.

Main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cent jobs in Seoul

during 2013 was 1,613,689, which is the biggest among 16 cities/provinces and 35.1% of whole country is concentrated in Seoul. Decent jobs in Seoul were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5.3% during period between 2008 to 2013. Second, decent jobs in Seoul in terms of demography are as follows. People in 30~40 among the age group occupy 67.4%, men 63.9% in the classification by sex, those graduated from universities 90.5% in the classification by academic background. Third, decent jobs in Seoul in the industrial divisions level occupy relatively high percentage in professional services,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education, publishing activities etc. Fourth,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of specialists on relative importance(weighted value) for decent job constituent variable showed the order of job stability, wage, proper working time, existence of social insurance, social reputation of the job. Fifth, according to obtained result of job quality index utilizing the weighted value for decent job constituent variable, the index of job quality in Seoul was over average national level, maintaining more than level 70. Sixth, comparing job quality index in Seoul with trend of the number of decent jobs since 2008, it showed same pattern until 2011, and a little difference has been discovered later. So to speak, the number of decent jobs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ed since 2011, the index of job quality shows stagnated level after it dropped from 70.7 in 2011 to 70.2 in 2012. This is owing to the change of job quality's strength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importance in the factor consisting decent job. The result disassembling job quality consisting factor shows job stability is more or less weakened comparing to other consisting factor.

In order to create continuously and maintain decent job in Seoul later, following policies are required. First, multiphasic job policy which can raise quality of the job deviating from simple quantified increasing is required. Second, considering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t is required to actively foster prospective industry which can generate a lot of decent jobs. Third, in order to enlarge good quality's manpower, it is required to enhance manpower fostering program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and occupations.

# Table of Contents

## **Chp.1 Introduction**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Seoul's Decent Establishment
- 3 The Limitation of Establishment Analysis

## **Chp.2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Standards of Decent Job**

- 1 The General Concepts of Quality of Employment
- 2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Standards of Decent Job in This Study

## **Chp.3 The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f Decent Job**

- 1 Outline of the Questionnaire Survey
- 2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 3 The Analysis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Decent Job Conditions
- 4 The Policy Demand for Decent Job Creation

## **Chp.4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 1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in One Dimension
- 2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Seoul's Decent Job in Multi-dimension
- 3 The Trend of Quality of Employment Index in Seoul

## **Chp.5 Future Policy Perspectives**

- 1 The Policy-making for Increasing Jobs Accompany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 2 Improving the Quality of Jobs in Multi-dimension
- 3 The Decent Job Creation in Connection with Shif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 4 The Selection of Policy Targets and Establishment of Practice Guidelines

References  
Appendices

서울연 2014-PR-06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값 10,000원 ISBN 979-11-5700-032-6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